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방법 및 절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정보화는 근본적으로 산업사회의 사회구조와 시스템을 정보사회에 알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총체적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각종 법적, 제도적, 사회적 규범을 정보사회에 맞게 개선·보완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정보기술의 발전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에서의 경제활동, 그리고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출현 등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정보화 촉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에 대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2000년도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완성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은 주로 경제적 논리, 즉 새로운 사회적 생산기술의 도입과 소비의 확대라는 양적 성장 위주의 측면에서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보사회에 적합한 법적·제도적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행된 실질적인 조사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정보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변화 과정에서 청소년계층은 정보화에 의한 역기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대부분이 역기능과 유해정보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특기할만한 한 가지 사항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의 도입

과 확산 과정에서 청소년 계층이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청소년 정책의 특성 상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은 관련 부처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각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그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정책의 추진 성과와 더불어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인 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 정책 내용의 중복성과 유사성, 그리고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미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2. 연구 문제

1)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현 실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청소년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은 여러 관련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 정책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및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실적 등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2)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선점

우리나라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청소년 정보화 정책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밝혀질 것이다. 이를 통해 개선해

야 할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이고, 또 그 세부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정책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 중 정보화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문헌연구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는 사례연구,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청소년 정보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문헌고찰: 정책 내용 및 연구경향 분석

정보화 정책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념, 청소년 정보화의 현황, 문제점 등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주로 정보화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정부 관련부처의 정책관련 문건,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전문서적 등에 나타난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사례연구

○ 정보화 선진국 사례연구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정보화 선진 국가의 정보화 사례를 탐색하였으며, 위 국가 중 일부 국가를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기관과 대학, 연구소 방문을 통해 청소년 정보화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만나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이들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정보화 정책과의 비교 평가를 통

해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3) 조사연구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정보화 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는 결국 이 연구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등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정책의 개선방안 등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수립될 수 있었다.

① 설문조사

- 청소년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인식
- 모 집 단: 2005년 6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전국의 남녀 중고교생(제주도 제외)
- 표 본: 전국 청소년 2,065명
- 표집방법: 다단계화집락추출법 (multi-stratificated cluster sampling)
- 조사방법: 설문조사 요령을 숙지한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학급단위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자계식(自計式) 방식

② 전문가 의견조사

- 정보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델파이방법
- 모 집 단: 청소년 정보화 관련 전문가
- 표 본: 청소년 정보화 관련 전문가 약 20명
- 표집방법: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 조사방법: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의견조사

(4) 자문회의 및 전문가 협의회

① 자문회의

청소년 정보화 관련 전문연구자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설계, 조사연구 기획, 연구결과 생성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 걸쳐 전문적 자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②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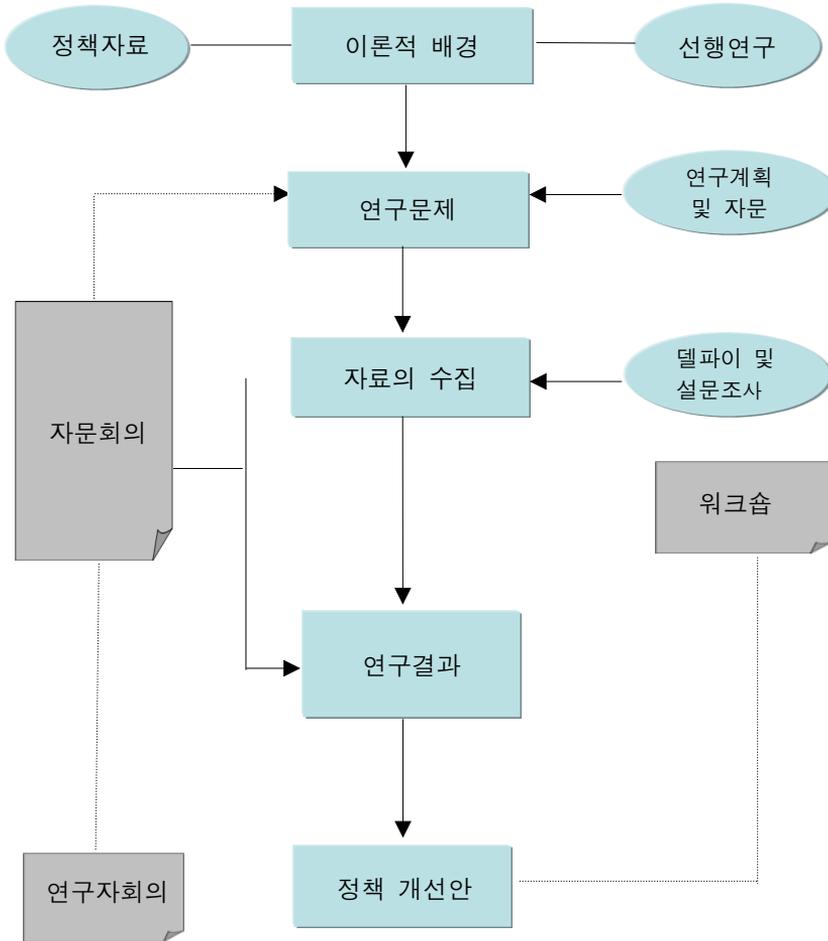
청소년 정보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나 연구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부문별 주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이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한다.

(5) 전문가 워크숍

청소년 정보화 정책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 집필에 참고하였다.

워크숍 관련 주요 발표 영역은 청소년 정보화 과정에서의 정보이용 정책,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청소년을 위한 정보복지 정책 분야 등이다. 이 분야에 대해 각 영역별 전문가 두 사람씩을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이들의 발표내용 대하여 연구자와 참가자들이 자유토론을 통해 청소년 정보화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 분야별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절차



[그림 1-1] 연구절차도

Ⅱ. 청소년 정보화 정책 현황

1. 정보사회와 청소년
2. 주요 국가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
3. 한국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

II. 청소년 정보화 정책 현황

1. 정보사회와 청소년

1) 정보사회의 정의

정보사회¹⁾란 용어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논자들이 처한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오브라이언(O'Brien, 1986)은 소득과 산업, 그리고 취업구조 등 경제지표의 변화에 주목하여 정보사회를 "경제활동의 영역이 상품의 제조에서 정보와 지식을 제조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전문화된 정보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분야가 각광을 받는 사회"라 하였다. 한편 브랜스콤(Branscomb, 1987)은 정보사회를 일컬어 "경제체제가 제조업이나 농업의 보조활동으로서 정보의 생산과 지식을 제조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전문화된 정보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분야가 주목받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다케우치 히로시(1984)는 정보사회를 정보 및 정보기술의 생산과 유통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기술이 급속히 진보함으로써 다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회"로 정의하였으며, 윌호이트(Wilhoit, 1981)는 "저장과 유통에서 풍부한 정보의 균형,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하였다.

정보가치와 사회 기축원리의 변화를 중시한 배규한(1995)의 정의에 따르면 정보사회는 "노동방식이나 사람들의 생활양식, 가치체계, 관습, 사회제도 등이 정보와 지식,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망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기술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사회,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 비교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특정사회 내의 정보 유통량이 팽창함에 따라 그 정보를 효율적

1) 정보사회라는 말은 일본의 우메사오 다다오가 1963년 '정신적 산업사회'라는 논문에서 사용하였다.

로 처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게 부여되는 사회"라고도 한다(전석호, 1995).

한편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보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우리나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보화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한 사회 내 성장성이 높아지고, 의사소통이 증가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현상, 혹은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윤영민, 1998). 전자의 개념은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의 개념은 사회에서의 활용과정과 그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는 1968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미국과 일본의 미래학자 심포지엄에서 후기산업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자는 일본학자의 제안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Hartley et al., 1985).

당시 주장된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는 아직 본격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기적 단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더 강하다. 영어권 문헌에서는 정보화 사회를 따로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대신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오늘날의 사회에 대한 공통적 개념의 틀 속에는 정보사회의 양상들이 포함되어 있다(소영진, 1998).

2)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은 낙관론적 관점과 비관론적 관점으로 대별된다. 먼저 낙관론의 관점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진보는 풍요와 자유, 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을 경제부문에 활용하는 것은 부를 창출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풍요는 점차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보편적 이용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Hepworth & Robins, 1998).

정보의 불평등과 정보격차의 문제는 전화나 자동차, TV의 경우처럼 정보 기술의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새로운 혁신기술의 도입단계에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채택되지만, 점차 이윤이 발생하고 이용자가 증가하여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고 사용방법도 간편화되면서 일반 대중의 보편적 이용도 가능해진다(Compaine, 1988).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론적 관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격차가 약화되기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특정 테크놀로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확산 초기에는 정보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일단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정보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실용화되면 기존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기 전에 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개발되어 또 다른 정보격차를 발생하게 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보급되는 시간적 간격이 점점 좁혀지면 한 사회 내의 정보격차도 증가하게 된다(Rogers, 1983).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정보의 풍요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혜택을 입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미래사회는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탈규제, 사유화, 민영화 추세로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 근무와 원격진료, 공공도서관 및 생활정보의 온라인화 등으로 인하여 기술적으로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정보 자체가 사유화·상업화되어 이윤추구의 도구가 된다면 누구나 결코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Schiller, 1996).

즉,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소득과 정보격차를 심화시킨다. 정보화로 인

해 정보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고학력 시민의 소득은 상승하는 반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저학력 계층민의 소득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어 학력수준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산층 지역에는 병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이 지역의 땅값은 상승하는 반면, 저소득 계층 지역의 땅값은 떨어져 두 지역간에 총체적인 격차가 확대된다. 결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겹으로는 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Castells, 1989).

이처럼 정보사회의 미래에 관해서는 정보기술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는 낙관론과 정보화가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경계론 내지 비관론이 병존해 왔는데,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는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의 진전에 관한 논의에서도 똑 같이 전개되고 있다(김문조, 2001).

3) 정보화와 청소년

청소년 정보화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N-세대(네트워크 세대) 이론에 따르면, 양방향성·융통성·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보매체를 습득하고 생활화하는 신세대는 전통적 학습방법이나 통제양식을 내면화한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의식과 행동방식이 판이할 것으로 추측된다(김문조, 2001). 또 젊은 세대는 정보화에 따른 효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더욱이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이 가치관을 습득하고 조정하는 주요 매체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김규원·박경, 2004).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99%를 넘어서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4). 청소년의 정보화 수준과 생활양식, 사회의식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청소년 문제의 양상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최정일, 2003).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보사회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양분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중 부정적인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념이나 생활양식상의 급격한 변혁을 동반하는 정보화 시대

의 청소년들에게는 행동상의 자유로움에 반한 여러 사회·문화적 부작용들이 산재해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문조, 2001).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의 과정에 있는 미완적 인격의 소유자로서, 소위 '제2의 미디어 시대'라는 새로운 생활현실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이나 좌절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문조, 2001).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 학부모나 성인들의 70.7%가 '정보나 자료가 필요할 때'라고 응답한 것에 반하여, 중학생의 56.2%, 고등학생의 50.3%가 '할 일이 없고 심심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황상민, 2000). 다른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사이버 세계에 몰입되어가는 경험과정의 시작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박남희 외, 2004). 즉 사이버세계로의 접근이 단지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적 특성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로 인한 청소년의 여가문화의 변화도 긍정적인 양상보다는 부정적인 양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몸을 움직이는 신체적 활동의 여가 중심에서 컴퓨터를 통한 게임 중심의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체력저하를 야기한다. 또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이메일 중독, 핸드폰 중독 등 이러한 각종 정신적 중독 현상은 동시에 규칙적인 생활을 파괴함으로써 육체적 건강, 일상생활 방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김미숙, 2003).

다른 한편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살펴보면, 정보화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대안적 환경이 되고 그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변화를 주고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안공간이 된다(김미윤, 2003).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탈중심적이고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교류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비위계적인 공동체를 경험한다. 더불어 폭넓은 상호작용과 간

접경험을 획득하고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가능성을 찾기도 한다(김미윤, 2003).

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청소년을 위한 정보의 비중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진구, 2000)²⁾,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웹진이나 인터넷 방송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생산과 제공, 청소년 정보감시단 활동이나 사이버 토론문화 형성 등과 같은 건전한 사이버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정보사회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정보사회의 매체활용에 주도적이며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소득의 향상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 스스로 자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정갑영, 2002).

정보사회화 현상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과거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공하고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정보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자가 청소년 세대임을 감안할 때, 정보사회의 미래는 청소년층이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얼마나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김문조, 2001). 청소년들의 우월한 정보화능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참여가 전 국민의 정보화역량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따라서 청소년의 정보화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청소년 정책을 개선하고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 수는 대략 20만개에서 30만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체 홈페이지의 0.3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주요 국가의 정보화 정책 현황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정보사회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IT인력 및 IT산업 육성, 전자민주주의 구현,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등을 담은 국가차원의 정보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박재준, 2002).

1) 각국의 교육정보화 정책³⁾

(1) 미국

미국의 교육정보화 정책은 2002년도에 제정된 'No Child Left Behind Act'와 'Enhancing Education Through Technology Act'를 기초로 하여 ICT의 활용을 통한 학업 성취도 개선 과제를 위해 ICT활용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NCLB 등에서 제시된 정보화 정책의 비전과 주요 내용은 ICT를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취하고 학생들이 8학년을 마치는 시점까지 ICT를 능숙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ICT를 교육과정에 통합·활용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ICT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고차원적 사고능력 배양에 일조하며, 소외지역 대상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 등이다.

미국은 2004년까지 PC 한 대당 학생 수를 4명으로 조정하고, 2010년까지는 PC 한 대당 학생 수 한 명을 목표로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2년 현재 PC 한 대당 학생 수는 초·중등을 합하여 4.8명이고, 인터넷이 연결된 공립학교 비율은 2002년 현재 99% 이상이다. 또한 2002~2007 교사 전문성향상정책을 통해 ICT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각 교과별로 ICT활용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ICT활용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를

3) 외국의 교육정보화 정책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을 참고한다.

위해 약 1억 9,600만 달러(한화 약 2,300억원)를 투입하였다.

(2) 영국

영국의 'e-러닝 정책'은 무역산업부의 정보화 정책과 교육기술부(DfES)의 교육정책이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기술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할 교육정보화 정책의 방향과 전략인 '교육과 기술(education and skills)'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평생 학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 역량, 지식 등을 개발하고 보유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평생 교육을 통한 성인의 학습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교육적 의사소통과 과학기술청(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Agency) 중심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기술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운영하며,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 산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초·중등학교 인터넷 연결 비율은 2003년도에 100%를 달성하였으며, 2003학년도 현재 개인용 컴퓨터 한 대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7.9명이며 중등학교의 경우는 5.4명이다. 학교가 끝난 후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PC구매용 대출제도와 학교 정보화 기기 대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학내 ICT 기기의 활용을 위해 교내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형태로는 선정된 ISP의 허용, 감시 체제의 운영, 방화벽과 필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또 영국의 교사연수는 오프라인이나 원격연수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된다. 교사연수를 위해 책정된 학교당 예산은 약 750파운드(한화 약 130만원)이며 연간 정규교사 한 명 당 400파운드(한화 약 70만원)씩 지급된다. ICT활용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비율은 2003년도 현재 초등학교는 95%, 중등학교는 87%, 특수학교는 93%에 이른다.

영국 교육기술부는 2004년도까지 5,000만 파운드(한화 약 1,100억 원)를 투입하는 '교육과정 온라인 프로젝트(Curriculum Online Project)'를 통해 교과별 ICT교육을 지원한다. 현직 교사와 전문가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평가하여 적합한 활용 방식을 현장에 보급하는 한편 민간개발자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일반에 보급한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 '교육정책 2003-2008'에 제시한 ICT관련 정보화 정책 내용은 '테 케트 이프랑기(Te Kete Ipurangi: TKI)'라는 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한 ICT 통합교육과정 보급과 e-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 연수, 교사 커뮤니티 활성화, 학교 인터넷의 광대역 연결, ICT활용을 통해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학부모 정보화 지원을 위한 '부모를 위한 포털사이트' 등이 있다. 한편 '디지털 지평(Digital Horizons-Learning through ICT)'이란 계획을 통해 2002~2004년까지 교육정보화를 위해 학생, 교사, 학교장과 장학사, 원주민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지평'에서 제시한 교육정보화 전략은 첫째, 고차원적 사고능력과 정보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ICT 통합교육과정 설계, 둘째, ICT활용 저변확대를 위한 교사-교장-ICT 선도자 중심의 모임 활성화, 셋째, 관심분야의 ICT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 넷째, 학교-정부-지역사회-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다섯째,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보급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각급 학교의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PC재활용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은 컴퓨터 접근 뉴질랜드(Computer Access New Zealand: CANZ) 위원회를 통하여 노후 PC를 재활용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학교에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2003년도 뉴질랜드의 ICT 활용교육의 물적 기반을 살펴보면, PC 한 대당

학생 수는 8명(초등학교 10명, 중등학교 6명)이며 인터넷이 연결된 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의 98%이다. 교사의 ICT 활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세부 사업들은 교사 ICT 조직 사업, e-러닝 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 사업, 교사 PC 보급사업, 영어와 마오리 언어로 언어, 수학, ICT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교사 대상으로 운영하는 TKI사업, 그리고 나아가 일선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장학사, ICT 선도요원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2) 각국의 정보화 역기능 대응 정책⁴⁾

(1) 미국

미국 인터넷관련 담당 기구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라 할 수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산업계와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에 맡겨두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는 제3자가 올린 정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1996년의 연방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에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현행법이나 새로 제정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 음란물 유통을 규제하는 연방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과 형법(Criminal Code), 그리고 온라인 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등을 들 수 있다.

연방통신법의 일부인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은 미성년자를 인터넷 음란외설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정되었으나, 외설물(indecency)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1997년 6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음란물(obscenity)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외국의 정보화역기능 대응정책 현황에 대한 설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1999)을 참고한다.

통신품위법의 부분 위헌판결이 있는 후 온라인 아동보호법이 1998년 10월 20일 제정되었으나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에 의하여 일시 효력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 놓여있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웹을 통하여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 내에서나 국제간에 그러한 정보를 거래하는 자는 5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이 법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누구든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위반행위가 누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아울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50,000달러 이하의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가 올린 정보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섯째, 정보제공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성인전용카드, 성인인식번호, 연령검증기술 등을 사용하여 미성년자가 유해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성실히 제한하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영국

영국은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8년도에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을 제정하였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의 온라인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출판'의 개념이 전자정보의 전달을 포함하고 아동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진이 컴퓨터로 조작한 위조사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되었다. 예를 들면, '니클라스 사건'으로 알려진 한 사건은 브리스톨(Bristol) 크라운 법원이 1998년 1월 25일 아동 음란물을 뉴스그룹에 올려 혐의아동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칼 니클라스(Karl Niklass)라는 사람을 9개월 징역형에 처한 사건이다.

한편 1996년부터 정부, 경찰과 인터넷 관련 산업계가 공동으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정보나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영국정부와 경찰의 후원으로 인터넷 서비스제공

자협회(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ISPA)가 설립되었고, 런던 인터넷 상거래협회의회(London Internet Exchange, LINX)의 주관 하에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이 설립되어 자율규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구(IWF)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협회의 책임과 한계를 규정하여 인터넷에서 불법적이고 해로운 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불법 정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협회에 접수되면 이를 인터넷에 올린 정보제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찰에 통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1997년 8월 연방정보통신사업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인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법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둘째, ISP가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러한 차단조치가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다면 제3자가 올린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하여 ISP는 책임이 있다. 셋째, ISP는 제3자가 올린 정보를 이용자들이 단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만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넷째, 1996년 연방통신법 제85항의 통신비밀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서도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인지했고 또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차단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법이 규정한 불법내용 차단 의무를 지켜야 한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 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은 1996년 7월 15일부터 인터넷 규제를 시작하여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유입되어서는 안 될 정보를 차단하는 행정권한을 정하였다. SBA는 1996년

7월에 '인터넷 윤리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8년 3월 16일 싱가포르 정부는 3개의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이 1998년 말까지 소위 '가족용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음란사이트를 걸러내고, 기존의 사이버패트롤이나 넷내니(NetNanny)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선별·차단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는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3) 각국의 정보격차해소 정책⁵⁾

미국 등 선진국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격차라는 현상의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 정보격차 해소의 이념적 목표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의 기회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정보격차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며 따라서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격차 해소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시된다. 선진국의 경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들의 성격이 다양하고 많은 수가 존재하며 탄탄한 자원봉사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민간기업들도 정보격차 등 지역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개방적인 추진체계와 최소한의 지침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의 판단도 실적보다는 효과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a).

(1) 미국

미국은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보편적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5) 외국의 정보격차해소 정책현황은 한국전산원(2000a),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a)을 참고한다.

따라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체적·지역적 차별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의 방향은 '국가정보인프라: 행동의제(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라는 국가정보화계획의 아홉 가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6년에 통신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명시하였으며, 동시에 학교와 도서관, 농촌의료기관의 인터넷 이용관련 비용 지원(E-Rate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클린턴 정부 때부터 모든 미국인이 정보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규모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제시하였다. 클린턴 정부는 디지털 기회(digital opportunity)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비영리단체의 정보화촉진 시범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통신과 정보인프라 지원 프로그램(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sistant Program: TIIAP)을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기회프로그램(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TOP)으로 전환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였다. TOP 프로그램은 199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교육, 건강, 공공안전, 기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향상과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범적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 2000년부터는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교육부는 1999년부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과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기술센터 프로그램(Community Technology Center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지역기술센터의 개설 비용이나 혹은 기존 센터의 확대비용을 지원하는데, 주요 지원대상기관은 주 혹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성인교육기관, 지역 및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다. 1999년에 1천만 달러를 40개 기관에 지원하였고 2000년에는 93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는 3천 2백만 달러를 들여 148개 기관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1천 5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55개 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특기할만한 점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민간단체의 주도적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도서관 온라인화 사업(Libraries Online)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국의 도서관 협회, 공공도서관 기술센터 등의 민간과 공공단체들이 공동으로 낙후지역 도서관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고 있으며, '뉴욕 이웃집연합프로그램(The United Neighborhood Houses of New York)'은 뉴욕 시의 주민복지관에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 접속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기술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접근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직원에 대한 교육, 지역접근센터 간 협력 지원, 그리고 지역접근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컴퓨터 기증사업 등과 같이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 분야에 20억 달러, 민관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한 신규 관련 분야에 3억 8천만 달러 등 23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였다.⁶⁾ 그러나 2004년에 부시 행정부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지역기술센터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소홀히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a).

(2) 영국

영국의 정보화 정책 추진계획인 '우리정보화세대(Our Information Age: The Government's Vision)'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보다는 국민의 전반적인 IT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박기홍 외, 2000). 이 정보화 정책 보고서에는 소수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정보사회 건설을 정책의 방향으로 정하면서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를 정부가 감당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역할(교육혁신, 정보접근기회확대, 경쟁 촉진, 서비스의 질 향상, 정부의 현대화)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한국

6) 1999년 연방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장비를 학교나 비영리기관에 기부토록 하는 'Executive Order 1999: Educational Technology; Ensuring Opportunity for All Children in the Next Century'를 발표하고, 2000년도에 공립학교와 공공 도서관에 컴퓨터를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산원a, 2000). 정보접근 기회의 단절로 인한 정보부자와 빈자의 사회는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란 점과, 산업혁명은 소수의 발명과 기업활동에 기초하고 있지만 정보사회의 경쟁력은 모든 사람의 기술과 창의력에 달려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풍성해지는 매체라는 점을 들어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에 '열다섯 번째 정책팀(Policy Action Team: PAT 15)'은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 및 이용의 향상을 목표로 전자정부의 구현, 영국연방 온라인센터 및 컴퓨터 교육센터의 설립, 모든 공공서비스의 온라인화 실천 등을 골자로 한 열 가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a). 그리고 2000년 9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지식경제국가의 건설계획인 '영국연방 온라인(UK online)'이란 정책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최적 환경 구축, 모든 정부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그리고 보편적 접근이라는 중요한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한국전산원, 2000a).

보편적 접근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자통신법을 제정하고, 광대역 이동통신 인·허가 등의 법제도와 경쟁관련 정책으로 보편적 접근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인터넷 접속 요금의 정액제와 가입자망의 자유화 조치이다. 이는 '모두를 위한 정보화기술(IT For All)'의 일환이며 1999년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27억 달러 규모의 '모두를 위한 컴퓨터(Computers for All)' 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체의 경쟁 강화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무료 또는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ISP업체들이 접속요금과 전화요금까지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유지열·추혜원, 2001). 그리고 보편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통상산업부는 2005년까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착수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02년까지 6,000개의 영국연방 온라인센터 구축을 목표로 접근환경 조성에 힘을 썼고 2002년 11월에 완료하였

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a).

영국은 정보기술활용능력 육성을 위해 17억 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IT교육훈련과정 신설, 공공인터넷 접속장소구축, 직원에게 컴퓨터 구입비용 제공시 세제혜택 부여, 저소득계층에 10만 대의 컴퓨터 제공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기술부는 2,040개의 직접학습센터를 설치하는 등 2005년까지 연간 일백만 명이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목표로 직접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 사람들의 IT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약 계층 주민의 정보화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정보화사업과는 달리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보급이나 네트워크구축 지원과 같은 인프라에 한정하지 않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ICT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업 지역 선정도 소득·교육수준·취업률 등의 여러 지표에서 취약 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재활용 컴퓨터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과 관련 단체로부터 컴퓨터를 기부받아 전문가의 수리를 거쳐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경우 10만대의 재활용 컴퓨터 보급을 목표로 5만 파운드의 기금을 설정하였다.

또한 보급한 컴퓨터의 경우 3년간 무상수리가 보증되며, 최소사양을 갖추게 하고 필요부품 교체,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역사회 활동과 청소년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홍보할 수 있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이 사업에 컴퓨터를 기부함으로써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유럽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a).

(3) 호주

호주는 '정보경제를 위한 실천전략(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Overview: Key Priorities for Action)'의 최우선 과제로 정보격차 해

소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국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7년부터 5년간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의 통신 인프라 구축과 혁신적 기술의 도입,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허브의 설치, 농촌이나 원거리에서도 시내요금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표준전화서비스 요금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적·지역적으로 정보접근과 이용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서의 상대적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사회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가 ICT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PC를 재활용하여 보급한다. 23개의 지역의회에 인터넷과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동시에 의회 관련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정보화교육(예, I've Got E-mail 2)을 실시한다. 코카콜라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과 협력하여 도시 내 취약 지역 거주 청소년을 위해 인터넷 접속과 로컬 콘텐츠를 제공한다.

(4) 캐나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2001년도에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National Broadband Task Force)'를 결성하고 2004년까지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정보접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상공회의소, 기타 민간기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여 학교, 도서관, 지역사회센터 등에 인터넷 접속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사회접근 프로그램(Community Access Program)'을 시작하여 2001년 3월 31일까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각각 5천개를 설치·완료하였다.

또 연방정부 주도로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컴퓨터를 수집하고 보수를 한 후 학교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Computer for School)을 통해 매년 6만대 이상의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ICT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 기반의 동기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실제 자격증을 부여받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시험페이지(test page)를 제공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ICT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ICT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성취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5) 일본

일본 정부는 정보격차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을 2001년에 제정하였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함양, 정보접근에 장애가 없는 정보사회 구현, 원격근무나 개인이 자기 집이나 혹은 작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소규모 사업(SOHO) 촉진, 지방의 통신망 구축 지원 등과 같은 21세기형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2001년에 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개정해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서는 통신·방송 서비스 관련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3천만 엔까지 지원한다. 또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에 정보통신기기를 비치하는 사업을 2000년부터 시작하였다.

(6) 유럽연합(EU)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자유럽 2002: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회(e-Europe 2002: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와 더불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제시한 '전자유럽 2002 행동계획(e-Europe 2002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계획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정규 학교 및 성인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 디지털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접근센터를 확대하며 디지털 TV, 모바일 등을 이용한 대체 정보접근기기를 보급한다.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누구나 ICT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3. 한국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 현황

1)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추진과정)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추진에 관한 일반적 현황은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전반적 검토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과 범위를 좁혀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우리 정부는 1985년에 행정전산망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 정부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1987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1단계(1987~1991)와 2단계(1992~1996)로 나누어 추진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한국 정보화 정책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

7)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자료 출처는 한국전산원(2000a, b), 성낙일(2003), 송희준(2002)을 참고한다.

년대에 정부의 행정업무 전산화가 추진되면서 이 사업은 전국의 금융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국방과 안보부문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1994년에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하여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한 가지 예로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 하부구조를 확대함으로써 2015년까지 음성이나 데이터, 영상 등 각종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2) 정보화촉진기본법

한편 1995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하부조직으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과 임무를 갖게 되었다. 또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3)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6년에 제3단계로 이루어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첫 단계는 기반조성단계(1996~2000)이고, 둘째는 정보활용 확산단계(2001~2005),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정보활용 고도화단계(2006~2010)로서 각 단계별로 추진목표와 세부계획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지역정보화사업과 정보문화 확산사업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계획 등도 포괄하고 있었으며,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화 시책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보화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Cyber Korea 21

1999년에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인 Cyber Korea 21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과거 산업화가 늦어져 겪어야 했던 지난 100년간의 시련과 위기를 교훈삼아 21세기 지식정보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지식정보 기반을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 일자리 창출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좀 더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차세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 전자정부 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관리를 토대로 한 새 산업과 기존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문화의 정착,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e-KOREA VISION 2006)

이미 수립한 'Cyber Korea 21'의 주요목표들이 2002년도에 조기 달성됨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정보화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까지의 국가정보화 비전을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 정보화촉진,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및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2) 청소년 관련부처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국가 정보화 정책에 발맞추어 당시 문화관광부(현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육성정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교육정책에 청소년 및 학생 정보화 정책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육성정책⁸⁾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하였으며,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배양이라고 하는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교육정책⁹⁾은 창조적 지식의 가치가 중시되는 교육과 인간의 가치가 중시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정책수립의 목표 하에 정보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중심의 정보윤리, 정보문화운동 지원과 청소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통체제의 정립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습자, 지원상담자, 교수-학습자료, 정보 등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사이버 원격 학습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모든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및 교수-학습자료 제작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김옥순, 2000).

-
- 8) 당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정책은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8-2002)에 제시된 육성정책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9)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교육정책은 1999년도에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 II-1> 청소년 관련부처의 정보화 정책

	문화관광부 (현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목표	(1)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2)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배양	(1) 창조적 지식의 가치가 증시되는 교육 (2) 인간의 가치가 증시되는 교육
정책의 기본방향	다가올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역으로서 건전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이끌어 가고, 정보문화 운동을 확대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재고한다.	사이버공간과 지구촌을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 학생들이 정보의 바다를 향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구체적 정책방안	(1) 청소년 중심의 정보윤리, 정보문화 운동지원: 유해정보 감시 및 유익 정보 홍보 활동 지원/사이버를 통한 청소년 의견수렴/ 정보공동체와 정보창작활동 지원 (2) 청소년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구축 및 유통체계 정립; 청소년 관련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정보화 지원/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1) 학습자, 지원상담자, 교수-학습자료, 정보를 연결하는 사이버 원격 학습체제를 구축 (2) 모든 초·중등학교 교실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모든 교원들에게 PC를 보급하며,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과 모든 학생들에게 인터넷 주소(ID) 부여 (3) 교원양성기관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및 교수-학습자료 제작실 설치/ 표준화된 학술정보 DB구축용 시스템 제공·지원 (4)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업무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표준화한 통합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출처: 청소년 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육성(김옥순, 2000).

그러나 당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청소년 관련 정보화 정책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청소년 관련 정보화 정책에 있어 '지식의 정보화'가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와 기술설비가 중심이 되는 단순히 하드웨어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당시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멀티미디어실의 확보 등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과 기술 습득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문화관광부가 실시하고자 한 청소년 관련 정보화 정책에서는 '정보능력의 향상'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기존에 실시되었던 정보테크놀로지의 사용기술 능력(컴퓨터 활용능력) 향상과 같은 하드웨어와 기술 중심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청소년 중심의 정보윤리·정보문화 운동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보화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하드웨어 확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한 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청소년 관련 정보화 정책은 이제 지식정보사회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 '지식의 정보화'를 중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핵심과제는 정보 기계나 설비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을 청소년들이 창출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성패에 관한 관건은 문화의 수용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의 증진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을 대표하는 '정보능력의 향상'이란 용어는 '정보의 지식화 능력 향상'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것이며(김옥순, 2000), 청소년위원회는 '정보의 지식화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모든 청소년 정책을 관통하는 기본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부처는 청소년 정보화 정책수립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차별화하여 수립·시행함으로써 중첩된 정보화 시설 투자에 따른 이중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단위정책의 예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정보의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는 '청소년 정보복지 정책' 쪽으로 정책들을 차별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학생들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한다고 하는 정책과 상당부분에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학생 청소년 들에게는 이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보복지 정책은 정보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과 정보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계층의 요구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위원회는 소외된 계층의 네트워크 접근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부문별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집행 현황

(1) 교육정보화관련 정책¹⁰⁾

① 사이버 원격 학습체제 구축

학생 교육과 정보화 관련 행정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습자와 지원상담자, 교수-학습자료, 그리고 정보와 같은 구성요인을 연결하는 사이버 원격 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2003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 14명당 한 대의 PC, 교원 1인당 한 대의 PC를 보급, 교단선진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기기 설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0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에 학내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교원용 PC 및 실습실용 PC,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을 완료하였다. 즉 교원 1인당 PC 한 대, 학생은 8명당 한 대, 교단선진화 장비설치는 222,146개의 전 교실에 보급하였다. 또한 각 교육청에 2년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10) 교육정보화관련 정책현황에 대해서는 교육정보관리국(1997), 교육인적자원부(1998, 2001a, 2001b, 2002) 자료를 참고한다.

교수-학습 방법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③ 교육정보자료 개발 제공

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180개 지역교육청에 교육용 콘텐츠 정보실을 운영해 매년 개발·보급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교수-학습용 DB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교수용 소프트웨어는 학습 주제 수준의 프로그램으로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시도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보급해 오고 있으나, 학교급별, 학년별, 그리고 각 교과에 편중되어 개발되거나 개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2001년부터는 시도교육청협의체에서 조정하여 각기 분담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개별학습 중심의 CAI위주로 개발 활용하였으나, 학교의 특성에 맞고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용 소프트웨어로 개발되고 있다.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 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에서도 교사의 교과 동호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 2001b).

1992년부터 실시되어 2002년까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이 11회나 개최되었다. 공모전에 입상한 교육자료는 에듀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학교급별, 교과별로 재구성·수정·보완되어 제공된다. 2002년까지 4,122편이 개발되었으나 실제 이 작품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미흡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민간개발과 외국 업체와 협력해 제작한 교육용 자료를 중심으로 적격,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교육용 콘텐츠,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제를 실시한다. 품질인증에 해당되는 자료는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자료저작에 사용되는 도구형 소프트웨어, 학사행정 업무에 이용되는 학교행정 지원용 소프트웨어 등이다.

사이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보 체제로 에듀넷을 구축·운영하는 방안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다. 정보교육담당 교원 양성 및 교원정보화 연수

연차적으로 모든 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해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교단 선진화 장비용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교원정보화 자격연수는 중등학교의 전공 교원에 대한 1,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연수와 교감, 교장 자격연수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1년 7월 현재 중등학교의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총 2,079명이다.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컴퓨터 관련 자격 연수는 중학교 246명, 고등학교 7,678명 등 총 10,003명에게 실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 2001b).

④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업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표준화한 통합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2000년도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환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하여 교육행정기관과 교사의 업무를 크게 경감시키고 효율적 정보화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도별로 시도교육청 소관의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정보와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연동하도록 하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급 학교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에 두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정보격차해소 관련정책

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이용률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의 내용을 주로 인터넷 이용여부를 보는 정보접근에 국한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은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서 일단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¹¹⁾.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지만 청소년 계층 내부에서의 정보격차의 심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보화 수준이나 접근능력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가정적, 사회적 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보접근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보소외는 성별, 지역별, 발달단계별,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활용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보소외는 컴퓨터 소유, 사용의 자율성,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사회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 인터넷 사용목적 또는 기능적 욕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한국 청소년개발원, 2003).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접근과 활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기회와 경제활동, 문화생활의 격차로 확대되어 삶 자체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조건이 열악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어 정보격차를 재생산하게 된다. 구조화된 정보격차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거나 기존의 사회문제를 강화하여 사회갈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청소년 정보화의 문제에 있어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있다고 할 것이다.

11)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전산원, 2000a)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1,005명 중 10대 청소년은 1명에 불과하였다.

① 정보격차의 정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격차의 정의는 경제적·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정보기기와 정보인프라에 더하여 정보 활용능력과 정보 이용패턴에 있어서의 격차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② 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가. 1,000만 명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0년도부터 2002년 6월까지 정보소외계층 및 정보선도계층 약 1,38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100만 주부 인터넷교육'을 전국 1,000여개 학원에서 실시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인 주부들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였다.

2001년도에는 전국 초·중·고 10,064개교에 LAN 통신망을 설치하였고, 2000년 말 기준 전국 초·중·고에 학내전산망 구축과 교원용 PC 및 실습실용 PC, 멀티미디어 기기 보급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1만여 개교에 431,981대의 실습용 PC보급, 34,854대의 교원용 PC보급, 그리고 222,147개의 교단 선진화 기자재를 보급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나. 인터넷 PC 보급사업

2003년도에는 50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주민 정보이용시설 110개소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10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120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사회 각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중고 개인용 컴퓨터 23,000여대를 수집·양품화해 이중 약 18,000대를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보급하였다

다. 인터넷 플라자 육성

인터넷 PC방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인터넷 활용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우체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에도 인터넷 플라자를 조성할 방침을 수립하였다.

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대

전국 100여개 우체국에 정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장애인이나 전업주부, 실업자, 농어민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교실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1999년에 우체국 정보화 교육장 25개소를 개소하고,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25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74,562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8~2001년 사이에 76,433명의 여성에게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1999~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모두 28,156명에게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정보격차 해소 종합대책

가. 정보격차 해소 대책

2000년 4월에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열린 제5차 정보화 전략회의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우체국과 사회복지관, 지역도서관 등을 통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학생 5만 명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5년간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하였으며, 주부인터넷 교육을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또 농·어업 분야에서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종합정보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

기 위해 2001년 1월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④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정책

가.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정책

저소득 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등 주로 저소득 밀집계층의 청소년을 위해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2000년에 수립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및 컴퓨터 보급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50만 명에게 기본적인 정보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중 소년소녀가정이나 복지시설 수용 학생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6만 2천여 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컴퓨터 이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b).

나.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실시

한국정보통신교육원에서는 1999년~2004년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정보통신교육원, 2003).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부응기금(matching fund) 방식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자는 고등학생 또는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각 1개월 과정으로 기반분야(컴퓨터 실무과정, 웹스타일리스트과정, 서버구축과정), 프로그래밍분야(VISUAL BASIC과정, ASP 프로그래밍과정, JAVA 프로그래밍과정), 웹분야(웹 디자인과정, 캐릭터제작과정, 웹애니메이션과정, 웹영상과정)로 나뉘어 지며 과정별 연계가 가능하다.

2000년~2001년의 전체 수료자 비율은 92%이고, 2002년도 수료자 비율은 80%, 2003년도 수료자 비율은 89%이다.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에 대해 수료생, 직원, 외부강사로부터 얻은 설문조사 결과 컴퓨터 관련 전문 기술과 기능습득이 주로 실무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1개월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깊이도와 심화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안진희, 2004). 교육운영 절차와 방법은 어느 정도 효율적이며, 교육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편이다. 교육원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비교적 원만하고 교육원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⑤ 장애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정책

가. 장애학생 특수교육 정보화

일반교육에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은 학령기 장애학생 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에 관한 어떤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각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학교 내부시설 수리, 학교 외부환경 개선, 교재·교구와 비품을 확충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에 상당수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고, 컴퓨터 실습실과 각종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 학습에 활용되고 있으나,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비는 미흡한 상태이다. 교사 대상 연수에서는 기존의 연수와는 차별된 연수 내용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 저조하고, 특수학교에 제공되는 정보화 관련 예산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박신영, 2003).

다. 장애인 교육복지 정보센터 설치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특수교육정보를 수집, DB화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복지·고용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 특수교육원에 장애인 교육복지 정보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방송과 원격교육 시스템 확충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음성·문자·수화점

자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자료 제공, 사이버교사제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구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11-2>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정보화 추진 현황

구분	대상	내용	실적	소요예산
원격방송연수	장애학생	원격방송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연수	2,134명	9천만원
장애인 교육복지 정보센터	특수학교(급) 일반학교	홈페이지 운용 인트라넷 운영	176,269명 조회	
정보매체 개발	교원 장애인 부모	웹을 통한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기술훈련 프로그램	700세트	7억 3천만원
정보화 지원사업	일반인	원격영상교육시스템 구축	서울, 대구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2).

(3) 정보화부작용방지관련 정책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청소년들에 의한 인터넷상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과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음란정보, 폭력물, 자살사이트 같은 유해사이트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차별적인 노출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이다.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게 무차별 전송되고 있는 음란스팸메일은 정서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왜곡시킴은 물론, 모방범죄도 유발시키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음란게시판의 경우, 사이버 매춘, 음란물 유통, 청소년 성매매 등 '현실과 매개되는 음란정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면서 밥 먹는 것 또는 잠자는

시간까지 포기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며, 직장이나 학업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며, 가상공간에서 얻는 즐거움에 빠져서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을 잃어가게 된다. 특히 게임중독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가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게임 내 폭력을 모방하거나 잘못된 성의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해킹, 바이러스 제작·유포, 통신사기, 사이버도박, 음란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이다.

또한 정보의 과잉공급으로 정보수용능력과 이해력이 파괴될 수 있다. 정보과잉 현상 하에서 한정된 정보소비자의 수요를 빼앗으려는 미디어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이에 따라 미디어의 중요한 수요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 확보나 무선통신기기 이용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인터넷 콘텐츠의 중요성보다는 청소년의 일차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만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¹²⁾

가. 법적 제도를 통한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인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12) 이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김기봉, 2003)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표 II-3> 연도별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현황

(단위: 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9	합계
결정	607	755	90	95	400	816	2,177	4,940
취소	0	0	7	0	14	470	4	495

출처: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3)

○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통신에 대한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통신에 대하여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에 의한 규제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나 시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불법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 스팸메일의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팩스 등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술적 장치를 통한 청소년보호

○ 해외 음란·청소년유해정보 등급DB 구축

2001년 10월 불건전정보 차단DB의 구축이 완료되었다. 기존의 해외 불건전정보차단 DB 총131,700건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여 109,010건을 등급DB로 전환하였다. 2003년 9월 현재는 해외음란 폭력정보등급DB구축은 17만 5천 571건에 이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이트에 대해 국내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접속차단을

요청하였다. 2003년 9월 현재 도메인은 379건, IP차단 요청은 541건에 이른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것은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성인사이트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보급

2001년 10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3년 9월 현재 25만여 건을 제공하였지만, 인터넷 이용자수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필요성등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이 필요하다.

○ 음란스팸 인식·차단 소프트웨어개발 및 보급

2003년 11월부터 PC상에서 음란스팸메일을 인식·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 ISP협회, 학부모정보감시단, 그리고 네이버 등 7개 기관 혹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특정단어나 문장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는 사이트 URL과 이미지 음란성을 분석하여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음란동영상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다음, 야후 등 대형 포털사이트로 확대해 나가고 CD로도 제작하여 장애인 시설과 청소년 수련원 등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순환이 빨라져 음란스팸차단 소프트웨어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응기술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무료보급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란 스팸메일의 차단을 지속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모바일 등을 통한 새로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대응기술 개발

청소년가입자에 대해 청소년유해 정보 원천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과 광고성 문자 메시지 차단 등의 서비스를 휴대폰 가입 시 제공하도록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내용선별 기술표준 마련과 더불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에서 내용선별 기술표준과 관련 기술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이미지분석을 이용한 음란정보 차단, 악성 팝업창 차단 등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와 스팸메일 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과 연구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 포털사이트의 성인인증을 통한 청소년보호

신용평가기관의 금융정보 DB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DB를 이용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하여 인증을 받는 것은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신용카드로 성인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용불량자의 경우 성인인증이 불가능하고 네티즌들이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역시 직접 공인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성이 낮다.

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 구축

그동안 우리나라의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의 서버로부터 세계 각 국으로 유통되어 국가적인 이미지를 손상시켜도 각 국의 핫라인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3년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협회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Ⅲ. 조사연구 결과 분석

1. 청소년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Ⅲ. 조사연구 결과 분석

1. 청소년 정보화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및 정보화사업 인식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정보화에 대한 이해 및 청소년 정보화 정책 효율화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사 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청소년)은 2005년 6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전국의 남녀 중·고교생으로 한정하였다. 청소년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 조사에서는 연령보다는 신분(중·고교생)에 의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조사의 표본은 다단층화집락추출법(multi-stratificated cluster sampling)의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모집단¹³⁾을 ① 성(남·여) ② 교급(중학생·고교생) ③ 고등학교 계열(인문계·실업계) ④ 지역권역(서울·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⑤ 지역규모(서울·광역시·시군구)로 층화한 뒤, 각 범주별 모집단의 실제인구에 비례하여 조사대상 인원을 할당하였다.

지역권역과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전국의 10개의 조사권역을 구분하고(서울은 강남/강북), 각 조사권역별로 지리적 위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 1~3곳과 시군구 2~3곳을 유의 선정하여 18개의 조사지점을 확정

13)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전국의 중·고교생(정규학교 기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비인가 학교는 제외)은 3,680,103명이다.

하였다.

각 조사지점별로 교육부의 학교명부에 의거하여 1~5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33개의 조사대상 학교를 확정하고, 조사지점별로 배정된 표본규모를 고려하여 1~4개 학급을 최종 조사대상 학급으로 할당하였다. 조사대상 학교학급을 결정한 뒤에는 협조공문을 통하여 학교의 허락을 얻고, 안내문을 통하여 설문조사 요령을 숙지한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학급 단위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자계식(自計式)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6월 27일에서 7월 15일에 걸쳐 각 학교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후 수거된 조사표는 총 2,065부였으나,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의 크기는 총 1,605부이다.

<표 III-1> 지역권역별 조사지점

	조 사 지 점	
	광역시	시군구
서울	강남, 강북	
수도권	인천	이천, 안양, 성남
중부권	대전	당진, 충주, 강릉
호남권	광주	여수, 남원
영남권	부산, 울산, 대구	밀양, 안동

(3) 조사 내용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크게 ① 컴퓨터 일반적인 이용행태 ② 인터넷 이용행태 ③ 인터넷 이용의 결과 및 영향 ④ 정보화 인식 ⑤ 정보화 정책 인식실태 ⑥ 사회규범 ⑦ 삶의 질 ⑧ 개인적인 인적사항의 8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표 III- 2).

<표 III-2>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 사 영 역	세 부 항 목
컴퓨터 이용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컴퓨터 유무 -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유무 - 가정의 인터넷 접속방법 - 1개월 내 컴퓨터 이용유무 - 컴퓨터 사용일수 - 컴퓨터 사용시간 -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 - 컴퓨터 사용용도
인터넷 이용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유무 - 인터넷 사용일수 - 인터넷 사용시간 -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 - 인터넷 사용용도
인터넷 이용의 결과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시 가해경험 - 인터넷 이용시 피해경험 - 인터넷 사용시 역기능
정보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및 자신의 정보화 수준 인식 -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인식
정보화 정책 인식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인식
사회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친구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대한 인식정도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 친구관계, 학교생활, 자신, 주변 환경,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개인적인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년도 - 성별 - 가족 수 - 학교와 학년 - 거주지 - 가정의 경제수준 - 학교성적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와의 대화정도에 대한 인식 -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이해정도 - 부모의 직업 - 부모의 학력

(4) 분석방법 및 조사결과 기술

조사결과의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배경변인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등을 사용하였다.

2)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3>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948명으로 전체의 59.1%이며, 여학생은 656명으로 전체의 40.9%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931명으로 전체의 58.0%, 실업계 고등학생이 197명으로 전체의 12.3%, 인문계 고등학생이 467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하고 있어 중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827명으로 전체의 5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21.3%, 시군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은 2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적수준의 분포는 상위권 학생이 33.1%, 중위권 학생이 34.0%, 하위권 학생이 32.3%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분포는 잘사는 편이 19.0%, 보통수준이 66.4%, 못사는 편이 14.0%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하여 보통수준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별 분포는 민주적인 태도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허용적 태도가 36.3%, 독재적인 태도가 11.1%, 방임적인 태도가 5.2%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III-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 분		비 율(%)
성 별	남 자	59.1
	여 자	40.9
	N=1,604	100.0
학 교 별	중 학 교	58.0
	실 업 고	12.3
	인 문 고	29.1
	N=1,595	99.4
지 역 별	특별시(서울)	21.3
	광역시	51.5
	시 군	26.3
	N=1,591	99.1
경제수준별	못 사는 편	14.0
	보통수준	66.4
	잘 사는 편	19.0
	N=1,594	99.3
성 적 별	하 위 권	32.3
	중 위 권	34.0
	상 위 권	33.1
	N=1,595	99.4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46.0
	독 재 적	11.1
	허 용 적	36.3
	방 입 적	5.2
	N=1,583	98.6

(2) 컴퓨터/인터넷 이용 현황

① 가정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이용 비율

전체 1,604명의 설문 대상자 중 1,577명(98.3%)이 가정에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540명(96.0%)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1개월 이내에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1,465명(91.3%),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1,583명(98.6%)을 차지하고 있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이 일상생활화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표 III-4).

<표 III-4> 가정의 컴퓨터 보유와 인터넷 이용 현황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N
가정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98.3	1.7	.	1,577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96.0	2.3	1.7	1,540
최근 1개월 이내에 컴퓨터를 이용하였습니까?	91.3	1.2	7.5	1,465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하였습니까?	98.6	0.9	0.5	1,583

인터넷 접속 방법에 대한 응답에서 전용선(ADSL, HDSL, VDSL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 비율이 61.3%를 차지하고 있어 제일 많은 인터넷 접속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

<표 III-5> 가정의 인터넷 이용 방법 현황

구 분	비율(%)
전화선 (모뎀)	10.7
전용선(ADSL, HDSL, VDSL 등)	61.3
ISDN(종합정보 통신망)	0.2
케이블 망(CATV망)	3.1
기타 (위성, 무선인터넷 등)	2.6
잘 모 름	16.39
무 응 답	5.1
N=1,605	100

②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응답자의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평균은 120.12분이었으며, 인터넷 이용시간은 108.30분이었다. 주중(월~금)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193.28분, 인터넷 이용시간은 177.09분이었으며, 주말(토, 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217.16분, 인터넷 이용시간은 191.84분이었다(표 III-6). 따라서

주중보다 주말에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시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가정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구 분	컴퓨터 이용(분)	인터넷 이용(분)
하루 평균 이용시간	120.12	108.30
주중(월~금) 이용시간	193.28	177.09
주말(토, 일) 이용시간	217.16	191.84

가. 성별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성별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의 차이에 대한 T-test결과 컴퓨터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자의 경우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이 107.06분이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106.53분으로 나타나 여자의 컴퓨터 이용에 있어 인터넷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성별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 T-test결과

구 분	평 균(분)		t	df	Sig. (2-tailed)
컴퓨터 하루 평균 이용시간	남자	129.19	5.06	1582.91	.00
	여자	107.06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	남자	109.60	.71	1563.50	.47
	여자	106.53			

나. 학교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학교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비교에 있어 공통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165.47/153.42), 중학생(121.92/109.35), 인문계 고등학생(98.18/87.70)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

이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

<표 III-8> 학교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구 분		평균(분)	F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중 학 생	121.92	40.28**	.00
	실업계 고등학생	165.47		
	인문계 고등학생	98.18		
	전체(N=1,595)	120.35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중 학 생	109.35	40.60**	.00
	실업계 고등학생	153.42		
	인문계 고등학생	87.70		
	전체(N=1,595)	108.46		
Post Hoc				
구 분	학교 구분(I)	학교 구분(J)	평균차이 (I-J)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중 학 생	실업계 고등학생	-43.54**	.00
		인문계 고등학생	23.74**	.00
	실업계 고등학생	중 학 생	43.54**	.00
		인문계 고등학생	67.29**	.00
	인문계 고등학생	중 학 생	-23.74**	.00
		실업계 고등학생	-67.29**	.00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중 학 생	실업계 고등학생	-44.07**	.00
		인문계 고등학생	21.65**	.00
	실업계 고등학생	중 학 생	44.07**	.00
		인문계 고등학생	65.72**	.00
	인문계 고등학생	중 학 생	-21.65**	.00
		실업계 고등학생	-65.72**	.00

*p<.05, **P<.01

다. 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비교에 있어 공통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 거주 응답자들은 광역시와 시군 거주 응답자보다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광역시와 시군의 컴퓨터 및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III-9> 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구 분		평균(분)	F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특별시(서울)	137.99	9.42**	.00
	광역시	115.77		
	시, 군	112.00		
	전체(N=1,591)	119.55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특별시(서울)	125.07	9.14**	.00
	광역시	105.53		
	시, 군	98.96		
	전체(N=1,591)	107.99		
Post Hoc				
구 분	지역 구분(I)	지역 구분(J)	평균차이 (I-J)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특별시(서울)	광역시	22.22**	.00
		시, 군	25.99**	.00
	광역시	특별시(서울)	-22.22**	.00
		시, 군	3.77	.48
	시, 군	특별시(서울)	-25.99**	.00
		시, 군	-3.77	.48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특별시(서울)	광역시	19.54**	.00
		시, 군	26.11**	.00
	광역시	특별시(서울)	-19.54**	.00
		시, 군	6.57	.21
	시, 군	특별시(서울)	-26.11**	.00
		시, 군	-6.57	.21

*p<.05 , **P<.01

라. 경제 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경제 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비교에 있어 공통적으로 못 사는 편, 보통 수준, 잘 사는 편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III-10).

<표 III-10> 경제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구 분		평균(분)	F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못 사는 편	143.54	14.02**	.00
	보통 수준	120.05		
	잘 사는 편	101.73		
	전체(N=1,594)	119.85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못 사는 편	131.22	13.45**	.00
	보통 수준	107.87		
	잘 사는 편	91.53		
	전체(N=1,594)	108.03		
Post Hoc				
구 분	성적 구분(I)	성적 구분(J)	평균차이 (I-J)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못 사는 편	보통 수준	23.49**	.00
		잘 사는 편	41.81**	.00
	보통 수준	못 사는 편	-23.49**	.00
		잘 사는 편	18.32**	.00
	잘 사는 편	못 사는 편	-41.81**	.00
		보통 수준	-18.32**	.00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못 사는 편	보통 수준	23.38**	.00
		잘 사는 편	39.71**	.00
	보통 수준	못 사는 편	-23.38**	.00
		잘 사는 편	16.34**	.00
	잘 사는 편	못 사는 편	-39.71**	.00
		보통 수준	-16.34**	.00

*p<.05 , **P<.01

마. 성적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성적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비교에 있어 공통적으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시간의 경우 하위권은 중위권과 상위권에 비하여 많은 이용시간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상위권과 중

위권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시간의 경우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으며, 세 집단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III-11).

<표 III-11> 성적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구 분		평균 (분)	F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하위권	134.79	12.42**	.00
	중위권	117.94		
	상위권	107.39		
	전체(N=1,595)	119.91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하위권	121.40	11.38**	.00
	중위권	107.44		
	상위권	95.78		
	전체(N=1,595)	108.10		
Post Hoc				
구 분	성적 구분(I)	성적 구분(J)	평균차이 (I-J)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하 위 권	중 위 권	16.85**	.00
		상 위 권	27.40**	.00
	중 위 권	하 위 권	-16.85**	.00
		상 위 권	10.56	.05
	상 위 권	하 위 권	-27.40**	.00
		중 위 권	-10.56	.05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하 위 권	중 위 권	13.96*	.01
		상 위 권	25.62**	.00
	중 위 권	하 위 권	-13.96*	.01
		상 위 권	11.66*	.03
	상 위 권	하 위 권	-25.62**	.00
		중 위 권	-11.66*	.03

*p<.05 , **P<.01

바. 양육태도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의 양육태도별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시간 비교에 있어 공통적으로 방
임적, 허용적, 독재적, 민주적의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양육태도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구 분		평균(분)	F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민 주 적	112.28	3.93	.01
	독 재 적	120.98		
	허 용 적	127.50		
	방 입 적	135.65		
	전체 (N=1,583)	120.09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민 주 적	100.55	4.02	.01
	독 재 적	110.71		
	허 용 적	114.80		
	방 입 적	125.11		
	전체 (N=1,583)	108.23		

Post Hoc

구 분	양육태도 구분(I)	양육태도 구분(J)	평균차이 (I-J)	Sig
컴퓨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민 주 적	독 재 적	-8.69	.15
		허 용 적	-15.21**	.00
		방 입 적	-23.36*	.03
	독 재 적	민 주 적	8369	.25
		허 용 적	-6.52	.40
		방 입 적	-14.67	.22
	허 용 적	민 주 적	15.21**	.00
		독 재 적	6.52	.40
		방 입 적	-8.15	.44
	방 입 적	민 주 적	23.36*	.03
		독 재 적	14.67	.22
		허 용 적	8.15	.44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	민 주 적	독 재 적	-10.16	.17
		허 용 적	-14.26**	.00
		방 입 적	-24.56*	.02
	독 재 적	민 주 적	10.16	.17
		허 용 적	-4.10	.59
		방 입 적	-14.40	.22
	허 용 적	민 주 적	14.26**	.00
		독 재 적	4.01	.59
		방 입 적	-10.30	.32
	방 입 적	민 주 적	24.56*	.02
		독 재 적	14.40	.22
		허 용 적	10.30	.32

*p<.05, **P<.01

이용시간의 차이에 대한 One-way ANOVA 검증 결과 역시 공통적으로 방임적 양육태도와 민주적 양육태도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용적 양육태도와 민주적 양육태도 집단 간의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양육태도와 독재적 양육태도, 독재적 양육태도와 허용적 양육태도, 독재적 양육태도와 방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와 방임적 양육태도 집단 간의 이용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③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장소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장소 모두 본인 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PC방이 다음 순으로 이용 장소로 나타났다(표 III-13).

<표 III-13> 컴퓨터/인터넷 사용 장소 (단위: 명)

구 분	본인 집	친구 집	학 교	컴퓨터 학원	PC방	복기기관 및 시설	공공기관 및 시설
컴 퓨 터 사용장소	1,440	7	29	0	102	2	4
인 터 넷 사용장소	1,449	11	27	2	94	1	6

④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용도

컴퓨터의 이용용도는 게임/오락과 인터넷, 음악이나 영상물 감상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부가적으로 교육/학습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표 III-14> 컴퓨터 이용용도

(단위: %)

구 분	1순위	2순위
문서 및 계산표 작성	0.7	2.0
게임/오락(인터넷을 통한 게임/오락도 포함)	50.5	17.3
인터넷	30.8	28.7
교육/학습	4.2	12.6
음악이나 영상물 감상	8.5	31.0
각종 응용 프로그램(패키지)을 이용한 전문작업(그래픽/통계)	0.4	1.0
기 타	3.3	4.3
무 응 답	1.6	3.1
N=1,605	100	100

인터넷 이용용도는 온라인 게임, 오락(영화보기, 음악듣기 등), 채팅/메신저, 자료, 정보검색의 순으로 주 이용용도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블로그나 홈페이지 관리가 부가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5).

<표 III-15> 인터넷 이용용도

(단위: %)

구 분	1순위	2순위
자료, 정보검색	15.5	21.4
온라인 게임	35.8	12.0
쇼핑,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 서비스	2.2	4.0
온라인 강의수강 등 교육/학습	2.7	4.0
오락(영화보기, 음악듣기, TV시청, 인터넷 방송 등)	16.9	25.3
전자우편(이메일)	0.9	1.7
채팅/메신저	15.9	15.8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3.2	2.8
신문/잡지/뉴스 보기	1.7	3.3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사용	0.2	0.2
블로그나 홈페이지 관리하기	3.9	6.4
기 타	0.7	1.5
무 응 답	0.4	1.6
전 체(N=1,605)	100	100

(3) 인터넷을 통한 가해경험

인터넷을 통한 가해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졌다. ‘언어폭력을 해본 경험이 있다’ 와 ‘엽기 사이트 접촉 경험이 있다’의 두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의 경우 매우 낮은 수치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위의 2개 항목의 경우도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인터넷을 통한 가해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6).

<표 III-16> 인터넷을 통한 가해 경험 (N=1,605)

항 목	평 균
음란물을 보낸 경험이 있다	1.35
폭력물을 보낸 경험이 있다	1.24
음란채팅을 유도한 경험이 있다	1.19
음란성 광고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1.11
음란성 광고메일을 보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	1.61
언어폭력을 해본 경험이 있다	2.57
남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본 경험이 있다	1.30
사이버 폭력을 해본 경험이 있다	1.23
사이버 스토킹을 해본 경험이 있다	1.12
해킹을 한 경험이 있다	1.34
바이러스 유포 경험이 있다	1.13
자살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다	1.12
전자 상거래 사기 경험이 있다	1.28
엽기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다	2.30

(4) 인터넷을 통한 피해경험

인터넷을 통한 피해경험도 가해경험과 유사하게 응답자들이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와 “스팸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의 두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의 경우 모두 경험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특히 8개 항목의 경우(폭력물 접촉, 음란채팅, 개인정보 유출, 해킹피해, 사이버 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전자상거래 사기) 매우 낮은 수치의 응답이 나타났다(표 III-17). 그러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두 항목의 경우 모두 메일을 통한 피해경험으로서, 인터넷 메일의 상업성과 음란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III-17> 인터넷을 통한 피해 경험 (N=1,605)

항 목	평 균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3.39
스팸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3.75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다	2.39
폭력물 접촉 경험이 있다	1.77
음란채팅 경험이 있다	1.46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2.39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이 있다	1.73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1.38
해킹 피해 경험이 있다	1.82
바이러스 감염 피해 경험이 있다	2.35
사이버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	1.26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1.26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경험이 있다	1.41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 경험이 있다	2.04

(5) 정보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과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정보화 능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18).

<표 III-18>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구 분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보통이다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전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	빈도(명)	39	67	341	713	445	1,605
	비율(%)	2.4	4.2	21.2	44.4	27.7	100
우리나라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빈도(명)	36	104	476	656	331	1,603
	비율(%)	2.2	6.5	29.7	40.9	20.6	100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 수준	빈도(명)	40	219	890	283	171	1,603
	비율(%)	2.5	13.6	55.5	17.6	10.7	100

① 성별에 따른 정보문화 수준 평가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리나라의 정보문화에 수준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T-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표 III-19).

<표 III-19>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성별 T-test 결과

구 분		평 균	t	df	Sig. (2-tailed)
우리나라의 정보수준 인식	남자	3.97	2.91**	1602	.00
	여자	3.83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남자	3.78	3.28**	15483.67	.00
	여자	3.62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 수준	남자	3.27	3.83**	1558.62	.00
	여자	3.11			

*p<.05 , **P<.01

② 학교별 정보문화 수준 평가

학교별로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생과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으나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III-20).

<표 III-20>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학교별 ANOVA 검증 결과

구 분	구 분	평 균	F	Sig
우리나라의 정보인식 수준	중학교	3.82	18.36**	.00
	실업계 고등학교	3.81		
	인문계 고등학교	4.13		
	전체(N=1,595)	3.91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중학교	3.64	16.86**	.00
	실업계 고등학교	3.58		
	인문계 고등학교	3.92		
	전체(N=1,593)	3.71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수준	중학교	3.16	8.48**	.00
	실업계 고등학교	3.07		
	인문계 고등학교	3.34		
	전체(N=1,593)	3.20		

Post Hoc

구 분	학교 구분(I)	학교구분(J)	평균차이 (I-J)	Sig
우리나라의 정보인식 수준	중 학 교	실업계 고등학교	.01	.84
		인문계 고등학교	-.30**	.00
	실업계 고등학교	중 학 교	-.01	.84
		인문계 고등학교	-.32**	.00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인문계 고등학교	중 학 교	.30**	.00
		실업계 고등학교	.32**	.00
	중 학 교	실업계 고등학교	.05	.47
		인문계 고등학교	-.29**	.00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 수준	실업계 고등학교	중 학 교	-.05	.47
		인문계 고등학교	-.34**	.00
	인문계 고등학교	중 학 교	.29**	.00
		실업계 고등학교	.34**	.00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 수준	중 학 교	실업계 고등학교	.09	.18
		인문계 고등학교	-.17**	.00
	실업계 고등학교	중 학 교	-.09	.18
		인문계 고등학교	-.27**	.00
인문계 고등학교	중 학 교	.17**	.00	
	실업계 고등학교	.27**	.00	

*p<.05 , **P<.01

③ 경제수준별 정보문화 수준 평가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각 경제수준별로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경제수준별 ANOVA 검증 결과

구 분	평 균	F	Sig	
우리나라의 정보수준 인식	못 사는 편	3.71	7.91**	.00
	보통 수준	3.92		
	잘 사는 편	4.03		
	전체(N=1,594)	3.91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못 사는 편	3.56	4.93*	.01
	보통 수준	3.72		
	잘 사는 편	3.82		
	전체(N=1,592)	3.71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수준	못 사는 편	3.08	17.74**	.00
	보통 수준	3.16		
	잘 사는 편	3.47		
	전체(N=1,592)	3.21		

Post Hoc

구 분	경제수준 구분(I)	경제 수준 구분(J)	평균차이(I-J)	Sig
우리나라의 정보인식 수준	못 사는 편	보통 수준	-.21**	.00
		잘 사는 편	-.32**	.00
	보통 수준	못 사는 편	.21**	.00
		잘 사는 편	-.12	.05
	잘 사는 편	못 사는 편	.32**	.00
		보통 수준	.12	.05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못 사는 편	보통 수준	-.16*	.02
		잘 사는 편	-.26**	.00
	보통 수준	못 사는 편	.16*	.02
		잘 사는 편	-.10	.09
	잘 사는 편	못 사는 편	.26**	.00
		보통 수준	.10	.09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 수준	못 사는 편	보통 수준	-.07	.26
		잘 사는 편	-.39**	.00
	보통 수준	못 사는 편	.07	.26
		잘 사는 편	-.32**	.00
	잘 사는 편	못 사는 편	.39**	.00
		보통 수준	.32**	.00

*p<.05 , **P<0.01

그러나 One-Way ANOVA 결과 못 사는 편의 학생들의 평가는 보통수준의 학생들과 잘 사는 편의 학생들과의 평가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으나, 보통수준의 학생들과 잘사는 편의 학생들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III-21).

④ 성적별 정보문화 수준 평가

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별로 학생들의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ne-Way ANOVA 검증 결과 상위권의 학생들이 정보문화 수준에 대하여 중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2). 이는 하위권 학생보다는 중위권 학생이 정보문화 수준에 대하여 높게 평가는 하고 있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 학생들이 중/하위권 학생들보다 국내의 정보문화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22>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성적별 ANOVA 검증 결과

구 분		평 균	F	Sig
우리나라의 정보수준 인식	하 위 권	3.80	12.08**	.00
	중 위 권	3.86		
	상 위 권	4.07		
	전체(N=1,595)	3.91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하 위 권	3.65	3.21*	.04
	중 위 권	3.70		
	상 위 권	3.79		
	전체(N=1,593)	3.71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수준	하 위 권	3.04	30.21**	.00
	중 위 권	3.14		
	상 위 권	3.44		
	전체(N=1,593)	3.21		
Post Hoc				
구 분	성적 구분(I)	성적 구분(J)	평균차이(I-J)	Sig
우리나라의 정보인식 수준	하 위 권	중 위 권	-.06	.25
		상 위 권	-.27**	.00
	중 위 권	하 위 권	.06	.25
		상 위 권	-.20**	.00
	상 위 권	하 위 권	.27**	.00
		중 위 권	.20**	.00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하 위 권	중 위 권	-.05	.36
		상 위 권	-.15*	.01
	중 위 권	하 위 권	.05	.36
		상 위 권	-.09	.11
	상 위 권	하 위 권	.15*	.01
		중 위 권	-.09	.11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 수준	하 위 권	중 위 권	-.10	.06
		상 위 권	-.40**	.00
	중 위 권	하 위 권	.10	.06
		상 위 권	-.30**	.00
	상 위 권	하 위 권	.40**	.00
		중 위 권	.30**	.00

*p<.05 , **P<.01

⑤ 지역별/양육태도별 정보문화 수준 평가

지역별, 양육태도별 정보문화 수준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나(표 III-23~24), ANOVA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3> 지역별 정보문화 수준평가 ANOVA 검증 결과

구 분		평 균	F	Sig
우리나라의 정보수준 인식	특별 시	3.84	1.27	.28
	광역 시	3.94		
	시 군	3.92		
	전체(N=1,591)	3.91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특별 시	3.68	.58	.56
	광역 시	3.71		
	시 군	3.75		
	전체(N=1,589)	3.72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수준	특별 시	3.24	.65	.52
	광역 시	3.18		
	시 군	3.23		
	전체(N=1,589)	3.21		

<표 III-24> 양육태도별 정보문화 수준평가 ANOVA 검증 결과

구 분		평 균	F	Sig
우리나라의 정보수준 인식	민 주 적	3.89	1.28	.28
	독 재 적	3.83		
	허 용 적	3.95		
	방 임 적	4.02		
	전체(N=1,583)	3.91		
우리나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	민 주 적	3.74	1.08	.36
	독 재 적	3.71		
	허 용 적	3.67		
	방 임 적	3.83		
	전체(N=1,581)	3.72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수준	민 주 적	3.21	2.21	.09
	독 재 적	3.35		
	허 용 적	3.16		
	방 임 적	3.20		
	전체(N=1,581)	3.21		

(6) 정보화 사회에 대한 순기능·역기능 평가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두 기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을 비교하여 볼 때 순기능은 3.31, 역기능은 3.55로 정보화의 역기능을 좀 더 크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기능에 대한 항목 13개중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치(3.80)를 보였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성세대와의 만남이 활발해져 세대 간 상호이해의 폭이 증가할 것이다” 항목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치(2.93)를 보였다(표 III-25).

역기능에 대한 9개의 항목 중 “인터넷 중독이 심화될 것이다”와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등 신종범죄가 증가할 것이다”의 두 항목은 각각 4.01과 4.00의 수치로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와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의 두 항목은 각각 3.21과 3.11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6).

<표 III-25>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순기능 평가(N=1,605)

항 목	평 균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3.60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3.51
개인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3.77
국가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3.80
청소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 혜택이 증가할 것이다	3.09
일하는 시간이 줄고, 개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3.39
기성세대와의 만남이 활발해져 세대 간 상호이해의 폭이 증가할 것이다	2.93
지역간의 문화격차가 줄 것이다	3.08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2.96
학력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3.27
청소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3.26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3.21
학업성취 능력이 향상되어 학습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3.12
총 합 (신뢰도 α : .85)	3.31

<표 III-26>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역기능 평가(N=1,605)

항 목	평 균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4.00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3.41
다른 사람과의 실제 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3.30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3.79
폭력물과 음란물, 불건전 사이트 범람이 증가할 것이다	3.83
인터넷 중독이 심화 될 것이다	4.01
생활양식의 빠른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이 증가할 것이다	3.32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3.21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3.11
중 합 (신뢰도 α : .84)	3.55

① 성별에 따른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 평가

정보화의 순기능에 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T-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역기능의 경우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III-27).

<표 III-27>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성별 T-test 결과

구 분		평 균	t	df	Sig. (2-tailed)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순기능	남자	3.33	1.98	1569.74	.05
	여자	3.27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역기능	남자	3.57	1.48	1572.36	.14
	여자	3.52			

② 학교별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역기능 평가

학교별 순기능에 대한 평가는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

로 검증되었다.

역기능에 대한 차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표 III-28).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순기능에 대해선 평균 3.29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역기능에 대해서는 3.8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III-28>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학교별 ANOVA 검증 결과

구 분		평 균	F	Sig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중학교	3.33	2.11	.12
	실업계 고등학교	3.23		
	인문계 고등학교	3.29		
	전체(N=1,595)	3.31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중학교	3.43	48.17**	.00
	실업계 고등학교	3.56		
	인문계 고등학교	3.80		
	전체(N=1,593)	3.55		

Post Hoc				
구 분	학교 구분(I)	학교구분(J)	평균차이 (I-J)	Sig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중 학 교	실업계 고등학교	.10	.05
		인문계 고등학교	.03	.35
	실업계 고등학교	중 학 교	-.10	.05
		인문계 고등학교	-.06	.22
	인문계 고등학교	중 학 교	-.03	.35
		실업계 고등학교	.06	.22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중 학 교	실업계 고등학교	-.13*	.02
		인문계 고등학교	-.38**	.00
	실업계 고등학교	중 학 교	.13*	.02
		인문계 고등학교	-.25**	.00
	인문계 고등학교	중 학 교	.38**	.00
		실업계 고등학교	.25**	.00

*p<.05 , **P<.01

③ 지역별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역기능 평가

지역별로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역기능의 평가는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9).

<표 III-29> 지역별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 ANOVA 검증 결과

구 분		평 균	F	Sig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특별시	3.28	1.55	.21
	광역시	3.33		
	시 군	3.27		
	전체(N=1,591)	3.31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특별시	3.50	1.53	.22
	광역시	3.58		
	시 군	3.54		
	전체(N=1,591)	3.55		

④ 경제수준별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역기능 평가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에 대해서는 잘사는 편, 못사는 편, 보통수준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의 학생들은 다른 경제수준의 학생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못 사는 편과 보통수준의 학생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0). 반면 역기능에 대한 평가는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III-30>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경제수준별 ANOVA 검증 결과

구분	평균	F	Sig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못 사는 편	3.29	7.06**	.00
	보통 수준	3.28		
	잘 사는 편	3.43		
	전체(N=1,594)	3.31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못 사는 편	3.63	1.67	.19
	보통 수준	3.54		
	잘 사는 편	3.53		
	전체(N=1,594)	3.55		

Post Hoc				
구분	경제수준 구분(I)	경제 수준 구분(J)	평균차이(I-J)	Sig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못 사는 편	보통 수준	.02	.71
		잘 사는 편	-.14*	.01
	보통 수준	못 사는 편	-.17	.71
		잘 사는 편	-.15**	.00
	잘 사는 편	못 사는 편	.14*	.01
		보통 수준	.15**	.00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못 사는 편	보통 수준	.09	.09
		잘 사는 편	.10	.10
	보통 수준	못 사는 편	-.09	.09
		잘 사는 편	.01	.77
	잘 사는 편	못 사는 편	-.10	.10
		보통 수준	-.01	.77

*p<.05, **P<.01

⑤ 성적별 정보문화 수준 평가

성적별로 살펴보면 순기능/역기능 모두 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의 순으로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을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 간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하위권 학생들만이 중, 상위권 학생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III-31).

<표 III-31>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성적별 ANOVA 검증 결과

구 분	구 분	평 균	F	Sig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하 위 권	3.24	4.26*	.01
	중 위 권	3.34		
	상 위 권	3.34		
	전체(N=1,595)	3.31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하 위 권	3.50	3.01	.05
	중 위 권	3.57		
	상 위 권	3.60		
	전체(N=1,593)	3.55		
Post Hoc				
구 분	성적 구분(I)	성적 구분(J)	평균차이 (I-J)	Sig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하 위 권	중 위 권	-.10*	.01
		상 위 권	-.10*	.01
	중 위 권	하 위 권	.10*	.01
		상 위 권	.00	.94
	상 위 권	하 위 권	.10*	.01
		중 위 권	.00	.94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하 위 권	중 위 권	-.07	.10
		상 위 권	-.10*	.02
	중 위 권	하 위 권	.07	.10
		상 위 권	-.03	.44
	상 위 권	하 위 권	.10*	.02
		중 위 권	.03	.44

*p<.05, **P<.01

⑥ 양육태도별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역기능 평가

부모의 양육태도별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역기능 평가는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

<표 III-32> 양육태도별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 ANOVA 검증 결과

구분	평균	F	Sig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민주적	3.34	2.26	.08
	독재적	3.30		
	허용적	3.30		
	방임적	3.15		
	전체(N=1,583)	3.31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민주적	3.56	.78	.51
	독재적	3.49		
	허용적	3.56		
	방임적	3.62		
	전체(N=1,583)	3.55		

(7)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평가

전반적으로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3). 6개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모두 보통 이하의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III-33>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N=1,605)

항목	평균
저소득층 자녀 대상 컴퓨터 보급사업	2.29
저소득 청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	2.28
소년원 등 보호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	2.10
청소년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2.18
불건전 정보 방지 대책	2.39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상담	2.46

(8)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 평가

전반적으로 청소년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4). 특히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개발 및 보급” 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 에 대하여 각각 4.01과 3.95로 매우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4> 청소년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 평가(N=1,605)

항 목	평 균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3.45
사이버 비행 예방활동	3.63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	3.95
청소년용 정보서비스 강화 및 통합 서비스 운영	3.56
건전 정보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57
농어촌, 장애 청소년 등 정보소의 청소년 정보화 교육	3.76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정보능력 개발 지원 확대	3.5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3.47
학교내 정보화 인프라 구축 확대	3.49
정보통신 기술교육 강화	3.65
청소년 건전사이트 지속개발 및 보급	3.75
유해정보매체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체제 운영	3.76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개발 및 보급	4.01
인터넷 미디어 교육 강화	3.61

(9)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 인지 항목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으로서 인터넷 중독과 유해정보(음란물, 폭력물 등) 노출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5). 또한 신체적 피로, 학습의 지장, 가족과의 갈등 순으로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인터넷 부작용 인지

항 목	빈도(명)	비율(%)
음란물, 폭력물 등 유해정보 노출	614	38.3
인터넷 중독(게임, 채팅, 음란물, 정보검색 중독 등)	617	38.4
신체적 피로	140	8.7
학습의 지장	131	8.2
가족과의 갈등	58	3.6
기 타	45	2.8
전 체	1,605	100

(10)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규범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의 사회규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36). 특히 친구의 경우 4.21의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모님의 경우 형제나 친구들 보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규범에 대해 엄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인터넷 이용의 사회규범 평가(N=1,605)

항 목	평 균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3.46
아버지는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	3.55
어머니는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	3.56
내 누이나 형님, 언니나 오빠는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	3.89
내 동생(들)은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3.86
가장 가까운 내 친구는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4.21
전 체 ($\alpha : .91$)	3.75

(1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조사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7). 가족생활, 친구관계, 학교생활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 주변환경,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I-37>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가(N=1,605)

항 목	평 균
나는 내 가족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	3.91
나는 내 친구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	4.08
나는 내 학교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	3.72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3.40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하여 만족한다	3.55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54
전 체($\alpha : .88$)	3.70

(12) 청소년의 부모님과과의 대화와 이해도

청소년과 부모님과의 대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대화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8).

<표 III-38> 청소년의 부모님과의 대화와 이해도(N=1,605)

항 목	평 균
아버지와의 대화	3.96
어머니와의 대화	4.49
아버지께서 자식을 이해하시는 정도	3.56
어머니께서 자식을 이해하시는 정도	3.84

(13) 각 항목별 세부 분석

① 컴퓨터 이용용도

이용자들의 컴퓨터 이용용도의 1순위는 전체적으로 게임과 오락(51.2%), 인터넷 이용(31.3%), 음악 및 영상물 감상(8.7%)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청소년 모두 게임 및 오락, 인터넷 이용 두 용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은 게임 및 오락, 인터넷 이용 순으로 여자 청소년은 인터넷 이용, 게임 및 오락의 순으로 이용비중이 높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학교별로도 중학교,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생 모두 게임 및 오락, 인터넷 이용 두 용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은 게임 및 오락의 비중이 인터넷 이용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순으로 게임 및 오락과 인터넷 이용의 비중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III-39).

<표 III-39> 컴퓨터 이용용도 1순위 (단위: %)

구 분	문서 및 계산표	게임, 오락	인터넷	교육, 학습	음악, 영상 감상	응용 프로그램	기타	합 계	통계치	
전 체 (N=1,576)	12.7	51.2	31.3	4.3	8.7	6.4	3.4	100		
성 별	남 자	6.04	41.8	9.1	2.9	3.7	4.3	1.0	59.1	$\chi^2 =$ 394.34**
	여 자	6.04	9.4	22.2	1.4	4.9	2.1	2.4	40.9	
	전 체 (N=1,576)	12.8	51.2	31.3	4.3	8.7	6.4	3.4	100	df=6
학 교 별	중학교	6.4	33.1	15.4	2.0	4.7	3.2	2.4	58.2	$\chi^2 =$ 43.38**
	실업고	2.1	6.2	4.2	.4	1.1	1.1	.2	12.4	
	인문고	4.3	12.0	11.5	1.8	2.9	2.1	.8	29.4	
	전 체 (N=1,566)	12.8	51.2	31.3	4.3	8.7	6.4	3.3	100	df=12

*p<.05, **P<.01

② 인터넷 이용용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용도 1순위는 전체적으로 온라인 게임(36.5%)과 오락(17.4%, 영화, 음악, TV, 인터넷 방송 등), 채팅 및 메신저(15.9%), 자료 및 정보검색(15.8%)의 순으로 네 가지 용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자료 및 정보검색, 오락의 순으로 사용용도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여자 청소년들은 채팅 및 메신저, 오락, 자료 및 정보검색의 순으로 사용용도가 나타나고 있어 남녀 간에 인터넷 사용용도에는 큰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은 온라인 게임, 채팅 및 메신저, 오락, 자료 및 정보검색의 순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은 온라인 게임, 자료 및 정보검색, 오락, 채팅 및 메신저의 순으로 이용용도가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게임, 오락, 채팅 및 메신저, 자료 및 정보검색의 순으로 이용용도가 나타났다(표 III-40).

<표 III-40> 인터넷 이용용도 1순위 (단위: %)

구 분	자료 정보 검색	온라 인 게임	온라 인 거래	온라 인 강의	오락	전자 우편	채팅, 메신 저	커뮤 니티 활동	무선 인터 넷	블로 그, 홈페 이지	기타	합계	통계치	
전 체	15.8	36.5	2.2	2.8	17.4	1.0	16.2 9	3.3	.2	3.9	.7	100		
성 별	남자	10.4	33.3	.7	2.1	7.8	.3	2.9	1.0	0	.9	.2	59.4	$\chi^2 =$ 540.27** df=10
	여자	5.3	3.2	1.5	.7	9.8	.6	13.4	2.3	.2	3.1	.5	40.6	
	전체 (N=1,571)	15.8	36.5	2.2	2.8	17.4	1.0	16.2	3.3	.2	3.9	.7	100	
학 교 별	중 학 교 실 업	6.7	24.3	1.0	1.0	9.9	.4	12.4	1.6	.1	1.2	.3	58.9	$\chi^2 =$ 130.86** df=20
	고 인 문	2.4	4.1	.5	.1	2.3	.1	1.6	.5	0	.5	.1	12.3	
	고	6.7	8.1	.7	1.7	5.2	.3	2.3	1.2	.1	2.2	.3	28.8	
	전체 (N=1,561)	15.8	36.5	2.2	2.8	17.4	.8	16.3	3.3	.2	4.0	.6	100	

*p<.05, **P<.01

③ 인터넷 이용시 느끼는 유해경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유해한 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중독-게임, 채팅, 음란물, 정보검색 중독 등(38.4%)과 유해정보(음란물, 폭력물) 노출(38.3%)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로(8.2%)나 학습의 지장(8.2%)과 같은 인터넷의 유해성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과의 갈등(3.6%)이나 기타 유해성(2.8%)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1).

<표 III-41> 인터넷 이용시 느끼는 유해성 (단위: %)

구 분	유해 정보	인터넷 중독	신체적 피로	학습의 지장	가족과 갈등	기 타	합계	통계치	
전 체 (N=1,604)	38.3	38.4	8.7	8.2	3.6	2.8	100		
성 별	남 자	19.3	23.4	6.7	5.3	2.6	1.9	59.1	$\chi^2 = 44.57^{**}$
	여 자	19.0	15.0	2.1	2.9	1.1	.9	40.9	
	전 체 (N=1,604)	38.3	38.4	8.7	8.2	3.6	2.8	100	df=5
학 교 별	중 학 교	24.3	21.4	4.3	4.6	2.1	1.6	58.4	$\chi^2 = 26.52^{**}$
	실 업 고	4.6	5.5	1.2	.4	.4	.3	12.4	
	인 문 고	9.3	11.7	3.1	3.3	1.1	.9	23.9	
	전 체 (N=1,595)	38.2	38.6	8.7	8.2	3.6	2.8	100	df=10
지 역 별	특 별 시	7.7	8.3	2.25	1.6	.9	.8	21.5	
	광 역 시	21.4	19.5	4.1	3.7	2.0	1.3	52.0	
	시 군	9.4	10.5	2.4	2.8	.7	.7	26.5	
	전 체 (N=1,592)	38.4	38.3	8.8	8.1	3.6	2.8	10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5.1	5.7	1.2	.8	.7	.6	14.1	
	보통수준	26.8	25.7	5.7	5.2	2.0	1.4	66.8	
	잘사는편	6.6	6.8	1.8	2.1	.9	.8	19.1	
	전 체 (N=1,594)	38.5	38.2	8.7	8.1	3.6	2.8	100	
성 적 별	하 위 권	10.3	14.4	3.6	2.1	1.3	.8	32.5	$\chi^2 = 44.00^{**}$
	중 위 권	15.6	11.3	2.0	3.6	1.1	.6	34.2	
	상 위 권	12.5	12.7	3.0	2.4	1.3	1.4	33.3	
	전 체 (N=1,595)	38.5	38.3	8.7	8.1	3.6	2.8	100	df=1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9.3	17.1	3.9	4.1	1.4	1.0	46.7	$\chi^2 = 33.61^{**}$
	독 제 적	4.2	3.5	1.4	.9	.7	.4	11.2	
	허 용 적	13.0	15.6	3.2	2.8	1.3	.9	36.8	
	방 입 적	1.8	2.05	.4	.3	.3	.5	5.2	
	전 체 (N=1,563)	38.3	38.2	8.8	8.1	3.7	2.8	100	df=15

*p<.05, **P<.01

④ 인터넷 이용시 가해경험

가. 음란물 송신 경험

전체 평균은 1.35로 음란물을 송신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42).

<표 III-42> 음란물을 보낸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53	t=11.76**
	여 자	1.08	
학 교 별	중 학 교	1.20	F=32.43**
	실 업 고	1.53	
	인 문 고	1.57	
	전체(N=1,595)	1.35	
지 역 별	특 별 시	1.40	
	광 역 시	1.33	
	시 군	1.35	
	전체(N=1,592)	1.35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46	F=5.92**
	보통수준	1.29	
	잘사는편	1.45	
	전체(N=1,594)	1.35	
성 적 별	하 위 권	1.40	
	중 위 권	1.33	
	상 위 권	1.31	
	전체(N=1,595)	1.35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31	F=2.64*
	독 재 적	1.48	
	허 용 적	1.34	
	방 입 적	1.51	
	전체(N=1,583)	1.35	

*p<.05, **P<.01

나. 폭력물 송신 경험

전체 평균은 1.24로 폭력물을 송신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43).

<표 III-43> 폭력물을 보낸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34	.85	t=7.83**
	여 자	1.09	.44	
학 교 별	중 학 교	1.17	.61	F=9.84**
	실 업 고	1.36	.84	
	인 문 고	1.32	.86	
	전체(N=1,595)	1.24	.73	
지 역 별	특 별 시	1.27	.76	
	광 역 시	1.21	.69	
	시 군	1.27	.77	
	전체(N=1,592)	1.24	.73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35	.84	F=6.16**
	보통수준	1.20	.64	
	잘사는편	1.31	.89	
	전체(N=1,594)	1.24	.73	
성 적 별	하 위 권	1.27	.76	
	중 위 권	1.26	.74	
	상 위 권	1.19	.67	
	전체(N=1,595)	1.24	.73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22	.70	
	독 재 적	1.38	.93	
	허 용 적	1.23	.69	
	방 입 적	1.22	.66	
전체(N=1,583)		1.24	.73	

*p<.05, **P<.01

다. 음란채팅 유도 경험

전체 평균은 1.20으로 음란채팅 유도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44).

<표 III-44> 음란채팅을 유도한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28	.79	t=7.53**
	여 자	1.07	.35	
학 교 별	중 학 교	1.14	.55	F=11.19**
	실 업 고	1.36	.90	
	인 문 고	1.24	.72	
	전체(N=1,595)	1.20	.66	
지 역 별	특 별 시	1.18	.61	
	광 역 시	1.20	.68	
	시 군	1.19	.65	
	전체(N=1,592)	1.19	.6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27	.80	F=6.40**
	보통수준	1.15	.55	
	잘사는편	1.29	.84	
	전체(N=1,594)	1.20	.66	
성 적 별	하 위 권	1.25	.74	
	중 위 권	1.19	.65	
	상 위 권	1.15	.57	
	전체(N=1,595)	1.19	.66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16	.59	F=3.13*
	독 재 적	1.33	.89	
	허 용 적	1.19	.63	
	방 입 적	1.24	.77	
	전체(N=1,583)	1.20	.66	

*p<.05, **P<.01

라. 음란성 광고메일 송신 경험

전체 평균은 1.11로 음란성 광고메일 송신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45).

<표 III-45> 음란성 광고메일 송신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16	.62	t=4.90**
	여 자	1.04	.30	
학 교 별	중 학 교	1.08	.45	F=4.87*
	실 업 고	1.20	.68	
	인 문 고	1.12	.55	
	전체(N=1,595)	1.11	.51	
지 역 별	특 별 시	1.10	.47	
	광 역 시	1.10	.52	
	시 군	1.13	.56	
	전체(N=1,592)	1.11	.5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13	.52	F=7.27**
	보통수준	1.08	.42	
	잘사는편	1.21	.77	
	전체(N=1,594)	1.11	.52	
성 적 별	하 위 권	1.11	.53	
	중 위 권	1.10	.48	
	상 위 권	1.12	.56	
	전체(N=1,595)	1.11	.52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10	.51	
	독 재 적	1.16	.64	
	허 용 적	1.11	.50	
	방 입 적	1.11	.52	
	전체(N=1,583)	1.11	.52	

*p<.05, **P<.01

마. 음란성 광고수신 후 해당 홈페이지 접속 경험

전체 평균은 1.61로 음란성 광고수신 후 해당 홈페이지 접속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표 III-46).

<표 III-46>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86	1.17	t=13.06**
	여 자	1.26	.66	
학 교 별	중 학 교	1.46	.93	F=25.52**
	실 업 고	1.75	1.08	
	인 문 고	1.85	1.16	
	전체(N=1,595)	1.61	1.04	
지 역 별	특 별 시	1.61	1.07	
	광 역 시	1.66	1.07	
	시 군	1.52	.96	
	전체(N=1,592)	1.61	1.04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73	1.11	
	보통수준	1.58	1.01	
	잘사는편	1.63	1.10	
	전체(N=1,594)	1.61	1.04	
성 적 별	하 위 권	1.64	1.09	
	중 위 권	1.58	.99	
	상 위 권	1.61	1.04	
	전체(N=1,595)	1.61	1.04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55	1.01	F=4.89*
	독 재 적	1.70	1.15	
	허 용 적	1.61	1.01	
	방 입 적	1.99	1.25	
	전체(N=1,583)	1.61	1.04	

*p<.05, **P<.01

바. 언어폭력 행사 경험

전체 평균은 2.57로 언어폭력 행사경험이 없다는 쪽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 성적별로 양육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표 III-47> 언어폭력을 해 본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80	1.37	t=8.75**
	여 자	2.23	1.21	
학 교 별	중 학 교	2.53	1.33	F=3.19*
	실 업 고	2.47	1.36	
	인 문 고	2.70	1.32	
	전체(N=1,595)	2.57	1.34	
지 역 별	특 별 시	2.63	1.31	
	광 역 시	2.53	1.33	
	시 군	2.63	1.37	
	전체(N=1,592)	2.58	1.34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81	1.41	F=4.19*
	보통수준	2.53	1.31	
	잘사는편	2.55	1.37	
	전체(N=1,594)	2.57	1.34	
성 적 별	하 위 권	2.71	1.33	F=4.40*
	중 위 권	2.48	1.30	
	상 위 권	2.53	1.37	
	전체(N=1,595)	2.57	1.34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53	1.32	
	독 재 적	2.66	1.41	
	허 용 적	2.60	1.35	
	방 입 적	2.65	1.25	
	전체(N=1,583)	2.57	1.34	

*p<.05, **P<.01

성별로는 남자(2.80)가 여자(2.23)보다 많은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2.70), 중학교(2.53), 실업고(2.47)의 순으로 높은 응답이 이루어 졌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사는 편(2.81), 잘 사는 편(2.55), 보통수준(2.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별로는 하위권(2.71), 상위권(2.53), 중위권(2.48)의 순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7).

사.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경험

전체 평균은 1.31로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48).

<표 III-48>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험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별	남자	1.39	t=5.86**
	여자	1.18	
학교별	중학교	1.27	F=3.10*
	실업고	1.39	
	인문고	1.35	
	전체(N=1,595)	1.31	
지역별	특별시	1.29	
	광역시	1.28	
	시군	1.36	
	전체(N=1,592)	1.31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41	
	보통수준	1.28	
	잘사는편	1.31	
	전체(N=1,594)	1.31	
성적별	하위권	1.30	
	중위권	1.30	
	상위권	1.32	
	전체(N=1,595)	1.31	
부모의 양육태도별	민주적	1.27	F=2.99*
	독재적	1.46	
	허용적	1.31	
	방임적	1.27	
	전체(N=1,583)	1.31	

*p<.05, **P<.01

아. 사이버 폭력 행사 경험

전체 평균은 1.23으로 사이버 폭력 행사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부모의 양육

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49).

<표 III-49> 사이버 폭력을 한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31	.83	t=5.53**
	여 자	1.12	.53	
학 교 별	중 학 교	1.17	.64	F=7.35**
	실 업 고	1.34	.85	
	인 문 고	1.30	.82	
	전체(N=1,595)	1.23	.73	
지 역 별	특 별 시	1.19	.69	
	광 역 시	1.24	.74	
	시 군	1.25	.74	
	전체(N=1,592)	1.23	.73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31	.89	
	보통수준	1.21	.68	
	잘사는편	1.23	.74	
	전체(N=1,594)	1.23	.72	
성 적 별	하 위 권	1.28	.83	
	중 위 권	1.22	.69	
	상 위 권	1.20	.66	
	전체(N=1,595)	1.23	.73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18	.65	F=3.28*
	독 재 적	1.37	.99	
	허 용 적	1.26	.74	
	방 임 적	1.23	.67	
	전체(N=1,583)	1.23	.73	

*p<.05, **P<.01

자. 사이버 스토킹 경험

전체 평균은 1.13으로 사이버 스토킹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50).

<표 III-50> 사이버 스토킹을 한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16	.60	t=3.79**
	여 자	1.07	.40	
학 교 별	중 학 교	1.10	.49	F=3.52*
	실 업 고	1.19	.61	
	인 문 고	1.16	.57	
	전체(N=1,595)	1.13	.53	
지 역 별	특 별 시	1.09	.45	
	광 역 시	1.13	.56	
	시 군	1.13	.53	
	전체(N=1,592)	1.12	.53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14	.51	
	보통수준	1.10	.48	
	잘사는편	1.18	.69	
	전체(N=1,594)	1.12	.53	
성 적 별	하 위 권	1.13	.57	
	중 위 권	1.11	.49	
	상 위 권	1.13	.53	
	전체(N=1,595)	1.12	.53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12	.52	
	독 재 적	1.15	.61	
	허 용 적	1.13	.54	
	방 입 적	1.08	.36	
	전체(N=1,583)	1.12	.53	

*p<.05, **P<.01

차. 해킹 경험

전체 평균은 1.34로 해킹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51).

<표 III-51> 해킹을 한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45	.96	t=6.99**
	여 자	1.18	.56	
학 교 별	중 학 교	1.33	.82	
	실 업 고	1.40	.91	
	인 문 고	1.34	.82	
	전체(N=1,595)	1.34	.83	
지 역 별	특 별 시	1.37	.88	
	광 역 시	1.35	.85	
	시 군	1.31	.73	
	전체(N=1,592)	1.34	.83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43	.94	
	보통수준	1.32	.79	
	잘사는편	1.36	.86	
	전체(N=1,594)	1.34	.83	
성 적 별	하 위 권	1.39	.88	
	중 위 권	1.29	.75	
	상 위 권	1.34	.85	
	전체(N=1,595)	1.34	.83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30	.76	F=2.70*
	독 재 적	1.49	1.02	
	허 용 적	1.35	.85	
	방 입 적	1.36	.77	
	전체(N=1,583)	1.34	.83	

*p<.05, **P<.01

카. 바이러스 유포 경험

전체 평균은 1.14로 바이러스 유포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표 III-52).

<표 III-52> 바이러스 유포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18	.65	t=4.85**
	여 자	1.06	.36	
학 교 별	중 학 교	1.11	.52	
	실 업 고	1.22	.65	
	인 문 고	1.14	.56	
	전체(N=1,595)	1.14	.55	
지 역 별	특 별 시	1.13	.53	
	광 역 시	1.14	.57	
	시 군	1.13	.53	
	전체(N=1,592)	1.13	.55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17	.56	
	보통수준	1.13	.54	
	잘사는편	1.14	.60	
	전체(N=1,594)	1.13	.55	
성 적 별	하 위 권	1.16	.60	
	중 위 권	1.14	.56	
	상 위 권	1.10	.48	
	전체(N=1,595)	1.13	.55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11	.49	
	독 재 적	1.24	.76	
	허 용 적	1.14	.56	
	방 입 적	1.12	.48	
	전체(N=1,583)	1.14	.55	

*p<.05, **P<.01

타. 자살사이트 접촉 경험

전체 평균은 1.12로 자살사이트 접촉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는 성적별 집단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표 III-53).

<표 III-53> 자살사이트 접촉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14	.57	
	여 자	1.10	.43	
학 교 별	중 학 교	1.10	.49	
	실 업 고	1.23	.65	
	인 문 고	1.11	.50	
	전체(N=1,595)	1.12	.52	
지 역 별	특 별 시	1.13	.55	
	광 역 시	1.11	.48	
	시 군	1.14	.57	
	전체(N=1,592)	1.12	.5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14	.54	
	보통수준	1.11	.49	
	잘사는편	1.14	.59	
	전체(N=1,594)	1.12	.52	
성 적 별	하 위 권	1.18	.65	F=4.73*
	중 위 권	1.10	.48	
	상 위 권	1.08	.39	
	전체(N=1,595)	1.12	.52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10	.48	
	독 재 적	1.22	.76	
	허 용 적	1.12	.49	
	방 입 적	1.13	.46	
	전체(N=1,583)	1.12	.52	

*p<.05, **P<.01

파. 전자상거래 사기 경험

전체 평균은 1.28로 전자상거래 사기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과 학교별,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한다(표 III-54).

<표 III-54> 전자상거래 사기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36	.92	t=5.64**
	여 자	1.15	.58	
학 교 별	중 학 교	1.20	.70	F=10.32**
	실 업 고	1.39	.90	
	인 문 고	1.38	.92	
	전체(N=1,595)	1.28	.80	
지 역 별	특 별 시	1.29	.83	
	광 역 시	1.27	.80	
	시 군	1.28	.80	
	전체(N=1,592)	1.28	.8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40	.95	F=3.05*
	보통수준	1.25	.76	
	잘사는편	1.28	.83	
	전체(N=1,594)	1.28	.80	
성 적 별	하 위 권	1.31	.85	
	중 위 권	1.24	.74	
	상 위 권	1.29	.82	
	전체(N=1,595)	1.28	.8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24	.79	
	독 재 적	1.36	.91	
	허 용 적	1.28	.79	
	방 입 적	1.31	.80	
	전체(N=1,583)	1.28	.80	

*p<.05, **P<.01

하. 엽기 사이트 접촉 경험

전체 평균은 2.30으로 전자상거래 사기 경험이 없다는 쪽으로 응답이 이루어져 있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로는 남자(2.48)가 여자(2.03)보다 엽기 사이트 접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2.43), 중학교(2.22), 실업고(2.35)의 순으로 엽기 사이트 접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5).

<표 III-55> 업기 사이트 접촉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48	1.29	t=7.34**
	여 자	2.03	1.15	
학 교 별	중 학 교	2.22	1.25	F=4.83*
	실 업 고	2.35	1.29	
	인 문 고	2.43	1.22	
	전체(N=1,595)	2.30	1.25	
지 역 별	특 별 시	2.38	1.25	
	광 역 시	2.30	1.29	
	시 군	2.24	1.16	
	전체(N=1,592)	2.30	1.25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34	1.29	
	보통수준	2.27	1.21	
	잘사는편	2.36	1.36	
	전체(N=1,594)	2.30	1.25	
성 적 별	하 위 권	2.36	1.24	
	중 위 권	2.20	1.21	
	상 위 권	2.34	1.30	
	전체(N=1,595)	2.30	1.25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24	1.28	
	독 재 적	2.33	1.28	
	허 용 적	2.34	1.22	
	방 입 적	2.51	1.24	
	전체(N=1,583)	2.30	1.25	

*p<.05, **P<.01

⑤ 인터넷 이용시 피해경험

가. 음란성 광고메일 수신 경험

전체 평균은 3.39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음란성 광고메일 수신 경험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3.46)가 여자(3.29)보다 많은 수신 경험이 있었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3.99), 실업고(3.66), 중학교(3.04)의 순으로 수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은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46	1.41	t=2.45**
	여 자	3.29	1.35	
학 교 별	중 학 교	3.04	1.41	F=85.70**
	실 업 고	3.66	1.25	
	인 문 고	3.99	1.14	
	전체(N=1,595)	3.39	1.39	
지 역 별	특 별 시	3.35	1.42	
	광 역 시	3.45	1.38	
	시 군	3.30	1.37	
	전체(N=1,592)	3.39	1.39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67	1.28	F=5.71**
	보통수준	3.36	1.39	
	잘사는편	3.30	1.44	
	전체(N=1,594)	3.39	1.39	
성 적 별	하 위 권	3.37	1.43	
	중 위 권	3.36	1.37	
	상 위 권	3.44	1.36	
	전체(N=1,595)	3.39	1.39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28	1.39	
	독 재 적	3.49	1.44	
	허 용 적	3.45	1.38	
	방 입 적	3.75	1.30	
	전체(N=1,583)	3.39	1.39	

*p<.05, **P<.01

경제수준별로는 못 사는 편(3.67), 보통 수준(3.36), 잘 사는 편(3.30)의 순으로 음란성 광고메일 수신 경험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6).

나. 스팸메일(일반광고성) 수신 경험

전체 평균은 3.78로 스팸메일 수신 경험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서 학교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인문고(4.27), 실업고(3.90), 중학교(3.46)의 순으로 수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7).

<표 III-57> 스팸메일(일반성 광고)을 받은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72	1.35	F=66.63**
	여 자	3.78	1.25	
학 교 별	중 학 교	3.46	1.36	
	실 업 고	3.90	1.29	
	인 문 고	4.27	1.01	
	전체(N=1,595)	3.75	1.31	
지 역 별	특 별 시	3.67	1.41	
	광 역 시	3.79	1.29	
	시 군	3.75	1.24	
	전체(N=1,592)	3.76	1.31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87	1.32	
	보통수준	3.74	1.29	
	잘사는편	3.70	1.37	
	전체(N=1,594)	3.75	1.31	
성 적 별	하 위 권	3.67	1.36	
	중 위 권	3.75	1.29	
	상 위 권	3.84	1.27	
	전체(N=1,595)	3.75	1.31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68	1.33	
	독 재 적	3.81	1.38	
	허 용 적	3.79	1.27	
	방 입 적	4.00	1.27	
	전체(N=1,583)	3.75	1.31	

*p<.05, **P<.01

다. 음란물 접촉 경험

전체 평균은 2.39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음란물 접촉 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있어, 성별,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준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문고(3.09) 학생들의 접촉 경험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 (표 III-58).

<표 III-58> 음란물 접촉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77	1.38	t=14.56**
	여 자	1.84	1.15	
학 교 별	중 학 교	1.99	1.24	F=118.43**
	실 업 고	2.58	1.29	
	인 문 고	3.09	1.34	
	전체(N=1,595)	2.39	1.37	
지 역 별	특 별 시	2.46	1.40	F=4.68*
	광 역 시	2.45	1.37	
	시 군	2.22	1.34	
	전체(N=1,592)	2.39	1.3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68	1.43	F=6.13**
	보통수준	2.35	1.34	
	잘사는편	2.32	1.40	
	전체(N=1,594)	2.39	1.37	
성 적 별	하 위 권	2.34	1.38	F=3.72*
	중 위 권	2.31	1.35	
	상 위 권	2.52	1.38	
	전체(N=1,595)	2.39	1.3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29	1.34	F=6.42**
	독 재 적	2.63	1.46	
	허 용 적	2.38	1.36	
	방 입 적	2.84	1.38	
	전체(N=1,583)	2.39	1.37	

*p<.05, **=P<.01

라. 폭력물 접촉 경험

전체 평균은 1.77로 청소년들은 폭력물 접촉 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져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준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59).

<표 III-59> 폭력물 접촉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97	1.27	t=8.91**
	여 자	1.48	.92	
학 교 별	중 학 교	1.56	1.05	F=36.53**
	실 업 고	1.93	1.17	
	인 문 고	2.10	1.27	
	전체(N=1,595)	1.77	1.16	
지 역 별	특 별 시	1.74	1.13	F=6.10**
	광 역 시	1.86	1.21	
	시 군	1.62	1.07	
	전체(N=1,592)	1.77	1.1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00	1.29	F=5.66**
	보통수준	1.71	1.10	
	잘사는편	1.79	1.26	
	전체(N=1,594)	1.77	1.16	
성 적 별	하 위 권	1.70	1.11	F=3.71*
	중 위 권	1.72	1.15	
	상 위 권	1.88	1.21	
	전체(N=1,595)	1.77	1.16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72	1.12	F=4.75*
	독 재 적	1.90	1.34	
	허 용 적	1.74	1.13	
	방 입 적	2.17	1.29	
	전체(N=1,583)	1.77	1.16	

*p<.05, **P<.01

마. 음란채팅 경험

전체 평균은 1.46으로 청소년들은 음란채팅 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져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60).

<표 III-60> 음란채팅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55	1.09	t=5.02**
	여 자	1.32	.80	
학 교 별	중 학 교	1.37	.92	F=9.55**
	실 업 고	1.66	1.12	
	인 문 고	1.54	1.03	
	전체(N=1,595)	1.46	.98	
지 역 별	특 별 시	1.51	1.01	F=3.93*
	광 역 시	1.50	1.03	
	시 군	1.34	.87	
	전체(N=1,592)	1.46	.99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64	1.11	F=4.39*
	보통수준	1.43	.95	
	잘사는편	1.43	1.01	
	전체(N=1,594)	1.46	.99	
성 적 별	하 위 권	1.52	1.05	
	중 위 권	1.42	.97	
	상 위 권	1.43	.93	
	전체(N=1,595)	1.46	.98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42	.93	
	독 재 적	1.57	1.11	
	허 용 적	1.47	1.02	
	방 입 적	1.39	.92	
	전체(N=1,583)	1.45	.98	

*p<.05, **P<.01

바. 언어폭력 피해 경험

전체 평균은 2.38로 청소년들은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 학교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61).

<표 III-61> 언어폭력 피해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53	1.44	t=5.17**
	여 자	2.18	1.23	
학 교 별	중 학 교	2.32	1.39	F=4.36*
	실 업 고	2.30	1.30	
	인 문 고	2.54	1.34	
	전체(N=1,595)	2.38	1.37	
지 역 별	특 별 시	2.29	1.30	
	광 역 시	2.40	1.39	
	시 군	2.44	1.39	
	전체(N=1,592)	2.39	1.3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56	1.46	
	보통수준	2.36	1.33	
	잘사는편	2.33	1.44	
	전체(N=1,594)	2.39	1.37	
성 적 별	하 위 권	2.36	1.36	
	중 위 권	2.37	1.35	
	상 위 권	2.43	1.40	
	전체(N=1,595)	2.38	1.3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28	1.33	F=5.67**
	독 재 적	2.63	1.46	
	허 용 적	2.40	1.38	
	방 입 적	2.77	1.40	
	전체(N=1,583)	2.39	1.37	

*p<.05, **P<.01

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

전체 평균은 1.72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져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학교별만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 간의 응답치도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62).

<표 III-62>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76	1.10	F=10.24**
	여 자	1.67	1.01	
학 교 별	중 학 교	1.63	1.05	
	실 업 고	1.78	1.02	
	인 문 고	1.90	1.09	
	전체(N=1,595)	1.72	1.07	
지 역 별	특 별 시	1.65	1.04	
	광 역 시	1.73	1.08	
	시 군	1.77	1.08	
	전체(N=1,592)	1.72	1.0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85	1.13	
	보통수준	1.68	1.03	
	잘사는편	1.76	1.14	
	전체(N=1,594)	1.72	1.07	
성 적 별	하 위 권	1.77	1.07	
	중 위 권	1.66	1.05	
	상 위 권	1.75	1.09	
	전체(N=1,595)	1.72	1.0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65	1.03	
	독 재 적	1.86	1.22	
	허 용 적	1.76	1.06	
	방 입 적	1.78	1.11	
	전체(N=1,583)	1.72	1.07	

*p<.05, **P<.01

아. 사이버성폭력 피해 경험

전체 평균은 1.38로 청소년들은 사이버성폭력피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과, 학교별, 경제수준별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 간의 응답치도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63).

<표 III-63> 사이버성폭력피해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42	.95	t=2.74*
	여 자	1.31	.74	
학 교 별	중 학 교	1.32	.83	F=5.49**
	실 업 고	1.49	.95	
	인 문 고	1.45	.91	
	전체(N=1,595)	1.38	.87	
지 역 별	특 별 시	1.39	.91	
	광 역 시	1.41	.89	
	시 군	1.30	.80	
	전체(N=1,592)	1.38	.8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57	1.07	F=6.37**
	보통수준	1.34	.82	
	잘사는편	1.35	.86	
	전체(N=1,594)	1.38	.87	
성 적 별	하 위 권	1.40	.88	
	중 위 권	1.37	.90	
	상 위 권	1.36	.83	
	전체(N=1,595)	1.38	.8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33	.80	
	독 재 적	1.57	1.09	
	허 용 적	1.36	.85	
	방 입 적	1.51	1.01	
	전체(N=1,583)	1.37	.87	

*p<.05, **P<.01

자. 해킹 피해 경험

전체 평균은 1.82로 청소년들은 해킹 피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만이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간의 응답치도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64).

<표 III-64> 해킹 피해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92	1.26	t=4.27**
	여 자	1.68	1.05	
학 교 별	중 학 교	1.81	1.19	
	실 업 고	1.85	1.22	
	인 문 고	1.83	1.15	
	전체(N=1,595)	1.82	1.18	
지 역 별	특 별 시	1.88	1.23	
	광 역 시	1.85	1.19	
	시 군	1.73	1.14	
	전체(N=1,592)	1.82	1.18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93	1.31	
	보통수준	1.80	1.14	
	잘사는편	1.82	1.22	
	전체(N=1,594)	1.82	1.18	
성 적 별	하 위 권	1.87	1.22	
	중 위 권	1.75	1.13	
	상 위 권	1.85	1.20	
	전체(N=1,595)	1.82	1.18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75	1.13	
	독 재 적	1.94	1.30	
	허 용 적	1.86	1.20	
	방 입 적	1.78	1.18	
	전체(N=1,583)	1.81	1.18	

*p<.05, **P<.01

차. 바이러스감염 피해 경험

전체 평균은 2.35로 바이러스 피해 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 학교 별, 경제수준별, 성적별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표 III-65> 바이러스감염 피해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54	t=6.66**
	여 자	2.08	
학 교 별	중 학 교	2.10	F=40.23**
	실 업 고	2.47	
	인 문 고	2.79	
	전체(N=1,595)	2.35	
지 역 별	특 별 시	2.38	
	광 역 시	2.34	
	시 군	2.37	
	전체(N=1,592)	2.3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58	F=3.46**
	보통수준	2.31	
	잘사는편	2.36	
	전체(N=1,594)	2.36	
성 적 별	하 위 권	2.26	F=3.54**
	중 위 권	2.33	
	상 위 권	2.48	
	전체(N=1,595)	2.36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26	
	독 재 적	2.37	
	허 용 적	2.45	
	방 임 적	2.49	
	전체(N=1,583)	2.36	

*p<.05 , **P<.01

카. 사이버스토킹 피해경험

전체 평균은 1.26로 청소년들은 사이버스토킹 피해경험에 대하여 거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 학교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 간의 응답치들도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66).

<표 III-66> 사이버스토킹 피해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31	t=3.68**
	여 자	1.18	
학 교 별	중 학 교	1.20	F=8.32**
	실 업 고	1.35	
	인 문 고	1.35	
	전체(N=1,595)	1.26	
지 역 별	특 별 시	1.24	
	광 역 시	1.29	
	시 군	1.21	
	전체(N=1,592)	1.2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32	
	보통수준	1.24	
	잘사는편	1.30	
	전체(N=1,594)	1.26	
성 적 별	하 위 권	1.24	
	중 위 권	1.27	
	상 위 권	1.28	
	전체(N=1,595)	1.26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22	F=3.03*
	독 재 적	1.37	
	허 용 적	1.26	
	방 입 적	1.39	
	전체(N=1,583)	1.26	

*p<.05, **P<.01

타.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경험

전체 평균은 1.54로 청소년들은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 학교별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 간의 응답치들도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67).

<표 III-67>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1.53	t=7.17**
	여 자	1.22	
학 교 별	중 학 교	1.31	F=10.82**
	실 업 고	1.51	
	인 문 고	1.54	
	전체(N=1,595)	1.40	
지 역 별	특 별 시	1.33	
	광 역 시	1.45	
	시 군	1.38	
	전체(N=1,592)	1.41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51	
	보통수준	1.37	
	잘사는편	1.44	
	전체(N=1,594)	1.41	
성 적 별	하 위 권	1.38	
	중 위 권	1.40	
	상 위 권	1.44	
	전체(N=1,595)	1.41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35	
	독 재 적	1.56	
	허 용 적	1.43	
	방 입 적	1.41	
	전체(N=1,583)	1.41	

*p<.05, **P<.01

파. 게임 아이TEM 사기 피해 경험

전체 평균은 2.04로 게임 아이TEM 사기 피해 경험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결과 성별만이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별 각 응답치들도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져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표 III-68).

<표 III-68>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 경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39	t=13.08**
	여 자	1.55	
학 교 별	중 학 교	2.06	1.40
	실 업 고	1.90	1.31
	인 문 고	2.06	1.36
	전체(N=1,595)	2.04	1.38
지 역 별	특 별 시	2.12	1.42
	광 역 시	2.03	1.38
	시 군	2.01	1.35
	전체(N=1,592)	2.05	1.38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17	1.41
	보통수준	1.99	1.35
	잘사는편	2.15	1.47
	전체(N=1,594)	2.04	1.38
성 적 별	하 위 권	2.10	1.42
	중 위 권	1.94	1.32
	상 위 권	2.09	1.40
	전체(N=1,595)	2.04	1.38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1.97	1.36
	독 재 적	2.19	1.51
	허 용 적	2.07	1.35
	방 입 적	2.25	1.49
	전체(N=1,583)	2.04	1.38

*p<.05, **P<.01

⑥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순기능에 대한 평가

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60으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된 것은 학교별, 경제 수준별, 성적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69>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발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63	.98	
	여 자	3.56	.82	
학 교 별	중 학 교	3.56	.95	F=16.56**
	실 업 고	3.36	1.00	
	인 문 고	3.78	.78	
	전체(N=1,595)	3.60	.91	
지 역 별	특 별 시	3.58	.97	
	광 역 시	3.62	.90	
	시 군	3.59	.92	
	전체(N=1,592)	3.60	.9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56	.99	F=3.68*
	보통수준	3.57	.88	
	잘사는편	3.72	.100	
	전체(N=1,594)	3.60	.92	
성 적 별	하 위 권	3.43	.94	F=15.99**
	중 위 권	3.62	.83	
	상 위 권	3.75	.97	
	전체(N=1,595)	3.60	.92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65	.91	
	독 재 적	3.54	1.01	
	허 용 적	3.56	.89	
	방 입 적	3.60	.96	
전체(N=1,583)		3.60	.92	

*p<.05, **P<.01

학교별로는 인문고(3.78), 중학교(3.56), 실업고(3.36)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3.72), 보통수준(3.57), 못 사는 편(3.56)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3.75), 중위권(3.62), 하위권(3.43)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73).

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51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56	1.01	t=2.42**
	여 자	3.44	.89	
학 교 별	중 학 교	3.46	1.00	F=8.71**
	실 업 고	3.36	1.00	
	인 문 고	3.66	.88	
	전체(N=1,595)	3.51	.97	
지 역 별	특 별 시	3.44	1.04	
	광 역 시	3.54	.95	
	시 군	3.51	.95	
	전체(N=1,592)	3.51	.9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50	1.02	F=3.44*
	보통수준	3.47	.95	
	잘사는편	3.64	1.01	
	전체(N=1,594)	3.51	.97	
성 적 별	하 위 권	3.34	.94	F=14.64**
	중 위 권	3.54	.93	
	상 위 권	3.65	1.02	
	전체(N=1,595)	3.51	.9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52	.98	
	독 재 적	3.55	.98	
	허 용 적	3.52	.94	
	방 임 적	3.33	1.00	
	전체(N=1,583)	3.51	.97	

*p<.05 , **P<.01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된 것은 성별, 학교별, 경제 수준별, 성적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3.56)가 여자(3.44)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3.66), 중학교(3.46), 실업고(3.36)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3.64), 못 사는 편(3.50), 보통수준(3.47),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성적별로는 상위권(3.65), 중위권(3.54), 하위권(3.34)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70).

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활발한 개인 문화교류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77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된 것은 학교별, 성적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3.95), 중학교(3.71), 실업고(3.61)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성적별로는 상위권(3.91), 중위권(3.81), 하위권(3.58)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71).

<표 III-71>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활발한 개인간의 문화교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75	1.06	
	여 자	3.80	.88	
학 교 별	중 학 교	3.71	1.03	F=11.28**
	실 업 고	3.61	1.02	
	인 문 고	3.95	.91	
	전체(N=1,595)	3.77	1.00	
지 역 별	특 별 시	3.75	1.06	
	광 역 시	3.79	.97	
	시 군	3.74	1.02	
	전체(N=1,592)	3.77	1.0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75	.99	
	보통수준	3.75	.98	
	잘사는편	3.82	1.08	
	전체(N=1,594)	3.76	1.00	
성 적 별	하 위 권	3.58	1.02	F=14.54**
	중 위 권	3.81	.93	
	상 위 권	3.91	.1.04	
	전체(N=1,595)	3.77	1.0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76	1.03	
	독 재 적	3.78	1.00	
	허 용 적	3.81	.96	
	방 입 적	3.65	1.02	
	전체(N=1,583)	3.77	1.00	

*p<.05, **P<.01

라.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활발한 국가 문화교류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80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된 것은 학교별, 성적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3.95), 중학교(3.76), 실업고(3.64)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성적별로는 상위권(3.91), 중위권(3.84), 하위권(3.64)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72).

<표 III-72>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활발한 국가간의 문화교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78	1.01	
	여 자	3.82	.88	
학 교 별	중 학 교	3.76	1.00	F=9.28**
	실 업 고	3.64	.97	
	인 문 고	3.95	.83	
	전체(N=1,595)	3.77	.96	
지 역 별	특 별 시	3.76	.99	
	광 역 시	3.84	.93	
	시 군	3.76	.98	
	전체(N=1,592)	3.80	.9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78	.99	
	보통수준	3.79	.93	
	잘사는편	3.85	1.04	
	전체(N=1,594)	3.80	.96	
성 적 별	하 위 권	3.64	.97	F=11.60**
	중 위 권	3.84	.91	
	상 위 권	3.91	.97	
	전체(N=1,595)	3.80	.96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82	.95	
	독 재 적	3.77	1.04	
	허 용 적	3.81	.94	
	방 입 적	3.64	.96	
	전체(N=1,583)	3.80	.96	

*p<.05, **P<.01

마.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층에 대한 복지혜택 증가
 전체 평균은 3.09로 전반적으로는 약한 긍정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된 것은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73>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층에 대한 복지혜택 증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15	1.12	t=2.70**
	여 자	3.01	.96	
학 교 별	중 학 교	3.20	1.06	F=11.84**
	실 업 고	2.90	.98	
	인 문 고	2.96	1.06	
	전체(N=1,595)	3.09	1.06	
지 역 별	특 별 시	3.09	1.14	
	광 역 시	3.09	1.04	
	시 군	3.10	1.03	
	전체(N=1,592)	3.09	1.0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10	1.08	F=3.93*
	보통수준	3.05	1.03	
	잘사는편	3.24	1.11	
	전체(N=1,594)	3.09	1.06	
성 적 별	하 위 권	3.05	1.01	
	중 위 권	3.13	1.03	
	상 위 권	3.09	1.14	
	전체(N=1,595)	3.09	1.06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12	1.05	F=3.47*
	독 재 적	3.16	1.11	
	허 용 적	3.08	1.06	
	방 임 적	2.75	1.03	
	전체(N=1,583)	3.09	1.06	

*p<.05, **P<.01

성별로는 남자(3.15)가 여자(3.01)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교별로는 중학교(3.20), 인문고(2.96), 실업고(2.90)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3.24), 못 사는 편(3.10), 보통수준(3.05)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부모별 양육태도에 따라 독재적(3.16), 민주적(3.12), 허용적(3.08), 방임적(2.75)로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집단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3).

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40으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4>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의 여가시간 증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40	1.17	
	여 자	3.39	1.00	
학 교 별	중 학 교	3.36	1.16	
	실 업 고	3.46	1.07	
	인 문 고	3.43	1.01	
	전체(N=1,595)	3.40	1.1	
지 역 별	특 별 시	3.30	1.16	F=3.82*
	광 역 시	3.47	1.09	
	시 군	3.33	1.09	
	전체(N=1,592)	3.39	1.10	
경제수준별	못 사는 편	3.46	1.17	F=4.03*
	보통수준	3.34	1.06	
	잘 사는 편	3.53	1.20	
	전체(N=1,594)	3.39	1.11	
성 적 별	하 위 권	3.43	1.08	
	중 위 권	3.40	1.09	
	상 위 권	3.36	1.15	
	전체(N=1,595)	3.39	1.11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41	1.11	
	독 재 적	3.36	1.16	
	허 용 적	3.40	1.09	
	방 임 적	3.31	1.13	
	전체(N=1,583)	3.40	1.11	

*p<.05 , **P<.01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된 것은 지역별, 경제수준별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3.47), 시군(3.33), 특별시(3.30)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3.53), 못 사는 편(3.46), 보통수준(3.34)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74).

사.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세대 간 상호이해 증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2.93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5>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세대간 상호이해 증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92	1.17	
	여 자	2.95	.99	
학 교 별	중 학 교	3.02	1.10	F=16.22**
	실 업 고	3.06	1.04	
	인 문 고	2.69	1.10	
	전체(N=1,595)	2.93	1.10	
지 역 별	특 별 시	2.94	1.16	
	광 역 시	2.96	1.09	
	시 군	2.86	1.09	
	전체(N=1,592)	2.93	1.1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89	1.14	F=3.67*
	보통수준	2.90	1.07	
	잘사는편	3.09	1.20	
	전체(N=1,594)	2.93	1.10	
성 적 별	하 위 권	3.01	1.05	F=3.86*
	중 위 권	2.96	1.08	
	상 위 권	2.83	1.17	
	전체(N=1,595)	2.93	1.1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99	1.11	
	독 재 적	2.88	1.13	
	허 용 적	2.90	1.07	
	방 임 적	2.77	1.19	
	전체(N=1,583)	2.93	1.11	

*p<.05, **P<.01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된 것은 학교별, 경제수준별, 성적별로 집단 간에 차이 있었다. 학교별로는 실업고(3.06), 중학교(3.02), 인문고(2.6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3.09), 보통수준(2.90), 못 사는 편(2.89)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하위권(3.01), 중위권(2.96), 상위권(2.83)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

다(표 III-75).

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 간 문화격차 감소에 대한 평가

<표 III-76>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 간 문화격차 감소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14	1.17	t=2.66**
	여 자	2.99	.99	
학 교 별	중 학 교	3.06	1.10	
	실 업 고	3.17	1.06	
	인 문 고	3.06	1.11	
	전체(N=1,595)	3.07	1.10	
지 역 별	특 별 시	3.10	1.14	
	광 역 시	3.07	1.09	
	시 군	3.06	1.09	
	전체(N=1,592)	3.07	1.1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15	1.12	
	보통수준	3.05	1.06	
	잘사는편	3.11	1.23	
	전체(N=1,594)	3.07	1.10	
성 적 별	하 위 권	3.00	1.02	
	중 위 권	3.15	1.08	
	상 위 권	3.08	1.17	
	전체(N=1,595)	3.07	1.1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10	1.09	
	독 재 적	3.07	1.14	
	허 용 적	3.05	1.10	
	방 임 적	3.17	1.08	
	전체(N=1,583)	3.08	1.10	

*p<.05 , **P<.01

전체 평균은 3.07로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만이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는데 성별로는 남자(3.14)가 여자(2.99)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0).

자.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2.96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교별, 경제수준별로 각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3.02), 인문고(2.90), 실업고(2.79)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3.09), 보통수준(2.94), 못 사는 편(2.86)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7).

<표 III-77>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99	1.11
	여 자	2.91	.93
학 교 별	중 학 교	3.02	1.06
	실 업 고	2.79	.98
	인 문 고	2.90	1.01
	전체(N=1,595)	2.96	1.04
지 역 별	특 별 시	2.89	1.12
	광 역 시	3.00	1.02
	시 군	2.93	1.02
	전체(N=1,592)	2.96	1.15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86	1.01
	보통수준	2.94	1.02
	잘사는편	3.09	1.12
	전체(N=1,594)	2.96	1.04
성 적 별	하 위 권	2.91	1.01
	중 위 권	2.94	1.00
	상 위 권	3.02	1.11
	전체(N=1,595)	2.96	1.04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96	1.06
	독 재 적	2.94	1.04
	허 용 적	2.99	1.03
	방 임 적	2.75	.96
전체(N=1,583)	2.96	1.04	

*p<.05, **P<.01

차.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27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집단별로는 학교별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별로는 실업고(3.34), 중학교(3.32), 인문고(3.14)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8).

<표 III-78>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30	1.19	F=3.97*
	여 자	3.23	1.09	
학 교 별	중 학 교	3.32	1.14	
	실 업 고	3.34	1.13	
	인 문 고	3.14	1.17	
	전체(N=1,595)	3.27	1.15	
지 역 별	특 별 시	3.20	1.20	
	광 역 시	3.31	1.21	
	시 군	3.25	1.15	
	전체(N=1,592)	3.27	1.15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28	1.16	
	보통수준	3.24	1.11	
	잘사는편	3.37	1.24	
	전체(N=1,594)	3.27	1.14	
성 적 별	하 위 권	3.29	1.11	
	중 위 권	3.29	1.12	
	상 위 권	3.23	1.21	
	전체(N=1,595)	3.27	1.15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31	1.14	
	독 제 적	3.31	1.19	
	허 용 적	3.23	1.15	
	방 임 적	3.08	1.18	
	전체(N=1,583)	3.27	1.15	

*p<.05, **P<.01

카.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층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26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에는 경제수준별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경제수준별 집단 간의 차이는 잘 사는 편(3.40), 못 사는 편(3.28), 보통수준(3.22)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9).

<표 III-79>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층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29	1.14	
	여 자	3.22	.93	
학 교 별	중 학 교	3.28	1.09	
	실 업 고	3.12	.97	
	인 문 고	3.28	1.02	
	전체(N=1,595)	3.26	1.06	
지 역 별	특 별 시	3.20	1.14	
	광 역 시	3.29	1.03	
	시 군	3.27	1.05	
	전체(N=1,592)	3.27	1.0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28	1.07	F=3.33*
	보통수준	3.22	1.03	
	잘사는편	3.40	1.14	
	전체(N=1,594)	3.26	1.06	
성 적 별	하 위 권	3.20	1.02	
	중 위 권	3.25	1.00	
	상 위 권	3.34	1.15	
	전체(N=1,595)	3.26	1.06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29	1.04	
	독 재 적	3.37	1.18	
	허 용 적	3.23	1.04	
	방 입 적	3.07	1.14	
	전체(N=1,583)	3.27	1.06	

*p<.05, **P<.01

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제공 확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21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에는 성별, 경제수준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로는 남자(3.26)가 여자(3.14)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3.39), 보통수준(3.17), 못 사는 편(3.17)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0).

<표 III-80>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제공 확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26	t=2.17*
	여 자	3.14	
학 교 별	중 학 교	3.25	F=4.40*
	실 업 고	3.21	
	인 문 고	3.13	
	전체(N=1,595)	3.21	
지 역 별	특 별 시	3.25	F=4.40*
	광 역 시	3.23	
	시 군	3.14	
	전체(N=1,592)	3.21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17	F=4.40*
	보통수준	3.17	
	잘사는편	3.39	
	전체(N=1,594)	3.21	
성 적 별	하 위 권	3.18	F=4.40*
	중 위 권	3.26	
	상 위 권	3.19	
	전체(N=1,595)	3.21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23	F=4.40*
	독 재 적	3.15	
	허 용 적	3.24	
	방 임 적	3.08	
	전체(N=1,583)	3.22	

*p<.05 , **P<.01

파.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학습효과 증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1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에는 성별, 학교별, 경제수준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3.16)가 여자(3.05)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교(3.25), 실업고(2.97), 인문고(2.91)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3.28), 보통수준(3.09), 못 사는 편(3.02)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22), 하위권(3.08), 상위권(3.05)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민주적(3.21), 허용적(3.08), 독재적(3.04), 방임적(2.78)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적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학생들과 방임적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학생들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1).

<표 III-81>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학습효과 증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16	t=2.06**
	여 자	3.05	
학 교 별	중 학 교	3.25	F=16.37**
	실 업 고	2.97	
	인 문 고	2.91	
	전체(N=1,595)	3.12	
지 역 별	특 별 시	3.13	
	광 역 시	3.13	
	시 군	3.08	
	전체(N=1,592)	3.1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02	F=4.38*
	보통수준	3.09	
	잘사는편	3.28	
	전체(N=1,594)	3.12	
성 적 별	하 위 권	3.08	F=3.59*
	중 위 권	3.22	
	상 위 권	3.05	
	전체(N=1,595)	3.12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21	F=4.79**
	독 재 적	3.04	
	허 용 적	3.08	
	방 임 적	2.78	
	전체(N=1,583)	3.12	

*p<.05, **P<.01

⑦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평가

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신중범죄의 증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4.00으로 청소년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신중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각 집단 간에 있

어서는 학교별, 성적별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4.35), 실업고(3.97), 중학교(3.83)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인문고 학생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상위권(4.12), 중위권(4.01), 하위권(3.88)의 순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2).

<표 III-82>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신종범죄의 증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98	1.06	
	여 자	4.04	.91	
학 교 별	중 학 교	3.83	1.05	F=43.91**
	실 업 고	3.97	1.04	
	인 문 고	4.35	.78	
	전체(N=1,595)	4.00	1.00	
지 역 별	특 별 시	3.98	1.03	
	광 역 시	4.03	.99	
	시 군	3.97	1.01	
	전체(N=1,592)	4.00	1.0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4.04	.99	
	보통수준	3.99	.98	
	잘사는편	3.98	1.07	
	전체(N=1,594)	4.00	1.00	
성 적 별	하 위 권	3.88	1.05	F=8.13**
	중 위 권	4.01	.96	
	상 위 권	4.12	.98	
	전체(N=1,595)	4.00	1.0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4.00	1.00	
	독 재 적	3.90	1.06	
	허 용 적	4.00	1.01	
	방 입 적	4.22	.86	
전체(N=1,583)	4.00	1.00		

*p<.05, **P<.01

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 증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41로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된 것은 성별과 학교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3.46)가 여자(3.34)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3.76), 실업고(3.29), 중학교(3.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문고의 학생들이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 증가에 대하여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3).

<표 III-83>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증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46	t=2.47*
	여 자	3.34	
학 교 별	중 학 교	3.26	F=37.18**
	실 업 고	3.29	
	인 문 고	3.76	
	전체(N=1,595)	3.41	
지 역 별	특 별 시	3.37	
	광 역 시	3.40	
	시 군	3.46	
	전체(N=1,592)	3.41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50	
	보통수준	3.40	
	잘사는편	3.38	
	전체(N=1,594)	3.41	
성 적 별	하 위 권	3.43	
	중 위 권	3.38	
	상 위 권	3.42	
	전체(N=1,595)	3.41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41	
	독 재 적	3.50	
	허 용 적	3.39	
	방 입 적	3.31	
전체(N=1,583)	3.41	1.05	

*p<.05, **P<.01

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타인과의 실제만남 감소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30으로 전반적으로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타인과의 실제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별로는 성별과 학교별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로는 남자(3.36)가 여자(3.20)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3.45), 실업고(3.39), 중학교(3.20)의 순으로 높은 수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표 III-84).

<표 III-84>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실제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의 증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36	1.17	t=2.92*
	여 자	3.20	1.03	
학 교 별	중 학 교	3.20	1.13	F=8.94**
	실 업 고	3.39	1.07	
	인 문 고	3.45	1.08	
	전체(N=1,595)	3.30	1.12	
지 역 별	특 별 시	3.28	1.18	
	광 역 시	3.31	1.10	
	시 군	3.27	1.11	
	전체(N=1,592)	3.30	1.1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38	1.16	
	보통수준	3.30	1.09	
	잘사는편	3.20	1.16	
	전체(N=1,594)	3.29	1.12	
성 적 별	하 위 권	3.23	1.10	
	중 위 권	3.32	1.09	
	상 위 권	3.35	1.15	
	전체(N=1,595)	3.30	1.12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28	1.14	
	독 재 적	3.32	1.20	
	허 용 적	3.29	1.07	
	방 입 적	3.41	1.13	
	전체(N=1,583)	3.30	1.12	

*p<.05, **P<.01

라.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증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79로 전반적으로는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증가에 대하여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학교별, 성적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4.13), 실업고(3.76), 중학교(3.63)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인문고 학생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상위권(3.89), 중위권(3.79), 하위권(3.69)의 순으로 높게 동의하고 있었다(표 III-85).

<표 III-85>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증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76	1.10
	여 자	3.84	.95
학 교 별	중 학 교	3.63	1.09
	실 업 고	3.76	1.04
	인 문 고	4.13	.85
	전체(N=1,595)	3.79	1.04
지 역 별	특 별 시	3.68	1.08
	광 역 시	3.82	1.05
	시 군	3.82	1.01
	전체(N=1,592)	3.79	1.05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75	1.08
	보통수준	3.81	1.01
	잘사는편	3.76	1.14
	전체(N=1,594)	3.79	1.04
성 적 별	하 위 권	3.69	1.09
	중 위 권	3.79	1.01
	상 위 권	3.89	1.03
	전체(N=1,595)	3.79	1.05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82	1.04
	독 재 적	3.74	1.07
	허 용 적	3.75	1.06
	방 입 적	3.92	.89
	전체(N=1,583)	3.79	1.05

*p<.05, **P<.01

마.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불건전 사이트가 증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83으로 전반적으로 정보화에 따른 불건전 사이트의 증가에 대하여 높은 동의수준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각 집단 간의 차이는 학교

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4.14), 실업고(3.88), 중학교(3.66)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3.92), 중위권(3.83), 하위권(3.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방임적(3.95), 민주적(3.88), 허용적(3.81), 독재적(3.59)의 순으로 나타나, 독재적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학생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III-86).

<표 III-86>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불건전 사이트의 증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84	1.15
	여 자	3.81	.99
학 교 별	중 학 교	3.66	1.15
	실 업 고	3.88	1.09
	인 문 고	4.14	.87
	전체(N=1,595)	3.83	1.09
지 역 별	특 별 시	3.78	1.14
	광 역 시	3.84	1.10
	시 군	3.85	1.03
	전체(N=1,592)	3.83	1.09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97	1.07
	보통수준	3.80	1.09
	잘사는편	3.83	1.12
	전체(N=1,594)	3.83	1.09
성 적 별	하 위 권	3.74	1.16
	중 위 권	3.83	1.06
	상 위 권	3.92	1.05
	전체(N=1,595)	3.83	1.09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88	1.03
	독 재 적	3.59	1.21
	허 용 적	3.81	1.12
	방 임 적	3.95	1.09
전체(N=1,583)	3.83	1.09	

*p<.05, **P<.01

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심화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4.02로 전반적으로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심화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에 있어서 학교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4.21), 실업고(4.06), 중학교(3.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방임적(4.14), 허용적(4.10), 민주적(3.98), 독재적(3.8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7).

<표 III-87>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심화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98	1.09
	여 자	4.06	.95
학 교 별	중 학 교	3.91	1.08
	실 업 고	4.06	1.08
	인 문 고	4.21	.88
	전체(N=1,595)	4.02	1.03
지 역 별	특 별 시	3.95	1.11
	광 역 시	4.05	1.03
	시 군	4.00	.99
	전체(N=1,592)	4.02	1.04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4.10	1.05
	보통수준	4.02	1.01
	잘사는편	3.93	1.12
	전체(N=1,594)	4.01	1.04
성 적 별	하 위 권	3.93	1.09
	중 위 권	4.09	.95
	상 위 권	4.02	1.06
	전체(N=1,595)	4.02	1.04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98	1.06
	독 재 적	3.84	1.14
	허 용 적	4.10	.97
	방 임 적	4.14	1.01
	전체(N=1,583)	4.02	1.04

*p<.05, **P<.01

사.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가치관 혼란 증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32로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가치관 혼란 증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 중 성별, 학교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로는 남자(3.38)가 여자(3.23)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3.49), 실업고(3.35), 중학교(3.2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8).

<표 III-88>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가치관 혼란 증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38	t=3.05**
	여 자	3.23	
학 교 별	중 학 교	3.23	F=11.36**
	실 업 고	3.35	
	인 문 고	3.49	
	전체(N=1,595)	3.32	
지 역 별	특 별 시	3.24	
	광 역 시	3.36	
	시 군	3.30	
	전체(N=1,592)	3.3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35	
	보통수준	3.30	
	잘사는편	3.34	
	전체(N=1,594)	3.32	
성 적 별	하 위 권	3.25	
	중 위 권	3.36	
	상 위 권	3.35	
	전체(N=1,595)	3.32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32	
	독 재 적	3.21	
	허 용 적	3.34	
	방 입 적	3.41	
전체(N=1,583)	3.32	.98	

*p<.05 , **P<.01

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와 갈등의 심화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20으로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와 갈등의 증가에 대하여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으며, 인문고(3.41), 실업고(3.20), 중학교(3.10)의 순으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89).

<표 III-89>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계층간 정보격차 심화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25	1.13	
	여 자	3.14	.96	
학 교 별	중 학 교	3.10	1.08	F=12.75**
	실 업 고	3.20	1.03	
	인 문 고	3.41	1.05	
	전체(N=1,595)	3.20	1.07	
지 역 별	특 별 시	3.16	1.12	
	광 역 시	3.26	1.03	
	시 군	3.14	1.09	
	전체(N=1,592)	3.20	1.0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36	1.08	
	보통수준	3.17	1.04	
	잘사는편	3.18	1.14	
	전체(N=1,594)	3.20	1.07	
성 적 별	하 위 권	3.19	1.03	
	중 위 권	3.21	1.07	
	상 위 권	3.20	1.10	
	전체(N=1,595)	3.20	1.0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19	1.06	
	독 재 적	3.22	1.23	
	허 용 적	3.22	1.02	
	방 입 적	3.23	1.13	
	전체(N=1,583)	3.20	1.07	

*p<.05, **P<.01

자.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한 평가

전체 평균은 3.11로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하여 약한 동의수준의 응답이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별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으며, 인문고(3.28), 실업고(3.11), 중학교(3.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90).

<표 III-90>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갈등 심화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15	1.13
	여 자	3.05	.93
학 교 별	중 학 교	3.02	1.06
	실 업 고	3.11	1.02
	인 문 고	3.28	1.01
	전체(N=1,595)	3.11	1.05
지 역 별	특 별 시	3.06	1.07
	광 역 시	3.14	1.04
	시 군	3.07	1.05
	전체(N=1,592)	3.11	1.05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21	1.06
	보통수준	3.08	1.01
	잘사는편	3.12	1.13
	전체(N=1,594)	3.10	1.04
성 적 별	하 위 권	3.12	1.02
	중 위 권	3.10	1.03
	상 위 권	3.10	1.10
	전체(N=1,595)	3.11	1.05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11	1.03
	독 재 적	3.07	1.18
	허 용 적	3.13	1.02
	방 입 적	2.98	1.08
	전체(N=1,583)	3.11	1.05

*p<.05, **P<.01

⑧ 정보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평가

가. 저 소득층 자녀 대상 컴퓨터 보급사업

전체 평균은 2.29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 중 학교별, 지역별, 성적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실업고(2.51), 인문고(2.35), 중학교(2.21)의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2.38), 특별시(2.37), 시군(2.05)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성적별로는 상위권(2.37), 중위권(2.33), 하위권(2.16)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1).

<표 III-91> 저 소득층 자녀 대상 컴퓨터 보급 사업 인지도 평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31	1.08	
	여 자	2.25	1.02	
학 교 별	중 학 교	2.21	1.07	F=7.80**
	실 업 고	2.51	1.03	
	인 문 고	2.35	1.05	
	전체(N=1,595)	2.29	1.06	
지 역 별	특 별 시	2.37	1.03	F=14.58**
	광 역 시	2.38	1.07	
	시 군	2.05	1.02	
	전체(N=1,592)	2.29	1.0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29	1.09	
	보통수준	2.31	1.04	
	잘사는편	2.25	1.10	
	전체(N=1,594)	2.29	1.06	
성 적 별	하 위 권	2.16	.98	F=5.83**
	중 위 권	2.33	1.07	
	상 위 권	2.37	1.11	
	전체(N=1,595)	2.29	1.06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29	1.07	
	독 재 적	2.23	1.14	
	허 용 적	2.30	1.01	
	방 입 적	2.37	1.12	
전체(N=1,583)		2.29	1.06	

*p<.05, **P<.01

나. 저 소득층 청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

전체 평균은 2.28로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학교별, 지역별, 성적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실업고(2.38), 중학교(2.31), 인문고(2.18)의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2.34), 특별시(2.31), 시군(2.16)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성적별로는 중위권(2.38), 상위권(2.29), 하위권(2.17)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2).

<표 III-92> 저 소득층 청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정책 인지도 평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28	1.05	
	여 자	2.28	.99	
학 교 별	중 학 교	2.31	1.06	F=3.66*
	실 업 고	2.38	1.01	
	인 문 고	2.18	.95	
	전체(N=1,595)	2.28	1.03	
지 역 별	특 별 시	2.31	1.06	F=4.42*
	광 역 시	2.34	1.02	
	시 군	2.16	1.00	
	전체(N=1,592)	2.28	1.03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20	1.01	
	보통수준	2.28	1.00	
	잘사는편	2.35	1.13	
	전체(N=1,594)	2.28	1.03	
성 적 별	하 위 권	2.17	.94	F=5.55**
	중 위 권	2.38	1.06	
	상 위 권	2.29	1.06	
	전체(N=1,595)	2.28	1.03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27	1.04	
	독 재 적	2.21	1.05	
	허 용 적	2.30	.99	
	방 입 적	2.43	1.12	
전체(N=1,583)		2.28	1.03	

*p<.05, **P<.01

다. 소년원 등 보호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

전체 평균은 2.09로 전반적으로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학교별, 성적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실업고(2.16), 중학교(2.14), 인문고(1.99)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성적별로는 중위권(2.18), 하위권(2.06), 상위권(2.05)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3).

<표 III-93> 소년원 등 보호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정책 인지도 평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11	1.03
	여 자	2.07	.94
학 교 별	중 학 교	2.14	1.03
	실 업 고	2.16	.98
	인 문 고	1.99	.92
	전체(N=1,595)	2.09	1.00
지 역 별	특 별 시	2.11	1.00
	광 역 시	2.13	1.01
	시 군	2.02	.96
	전체(N=1,592)	2.09	1.0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1.97	.98
	보통수준	2.11	.98
	잘사는편	2.14	1.08
	전체(N=1,594)	2.10	1.00
성 적 별	하 위 권	2.06	.96
	중 위 권	2.18	1.01
	상 위 권	2.05	1.01
	전체(N=1,595)	2.10	1.0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07	.99
	독 재 적	2.07	1.03
	허 용 적	2.13	.98
	방 입 적	2.10	1.07
전체(N=1,583)	2.09	1.00	

*p<.05, **P<.01

라. 청소년 종합 서비스 제공

전체 평균은 2.18로 전반적으로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의 검증결과 학교별, 경제수준별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교별로 중학교(2.24), 실업고(2.22), 인문고(2.06)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2.22), 보통수준(2.21), 못 사는 편(2.01)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III-94).

<표 III-94> 청소년 종합 서비스 제공 정책 인지도 평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19	1.03.	
	여 자	2.17	.95	
학 교 별	중 학 교	2.24	1.03	F=5.33**
	실 업 고	2.22	.99	
	인 문 고	2.06	.93	
	전체(N=1,595)	2.18	1.00	
지 역 별	특 별 시	2.19	1.02	
	광 역 시	2.22	1.00	
	시 군	2.11	.99	
	전체(N=1,592)	2.18	1.0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01	1.00	F=4.08*
	보통수준	2.21	.98	
	잘사는편	2.22	1.06	
	전체(N=1,594)	2.19	1.00	
성 적 별	하 위 권	2.11	.96	
	중 위 권	2.23	.97	
	상 위 권	2.21	1.06	
	전체(N=1,595)	2.19	1.0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16	.98	
	독 재 적	2.07	1.01	
	허 용 적	2.23	.99	
	방 입 적	2.34	1.20	
	전체(N=1,583)	2.19	1.00	

*p<.05, **P<.01

마. 불건전 정보 방지 대책

전체 평균은 2.39로 전반적으로 인지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졌다.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경제수준별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으며, 잘 사는 편(2.50), 보통수준(2.39), 못 사는 편(2.25)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5).

<표 III-95> 불건전 정보방지 대책 인지도 평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42	1.13	
	여 자	2.34	1.07	
학 교 별	중 학 교	2.37	1.12	
	실 업 고	2.38	1.04	
	인 문 고	2.44	1.06	
	전체(N=1,595)	2.39	1.09	
지 역 별	특 별 시	2.41	1.17	
	광 역 시	2.42	1.08	
	시 군	2.30	1.04	
	전체(N=1,592)	2.39	1.09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25	1.11	F=3.25*
	보통수준	2.39	1.05	
	잘사는편	2.50	1.19	
	전체(N=1,594)	2.39	1.09	
성 적 별	하 위 권	2.30	1.04	
	중 위 권	2.40	1.05	
	상 위 권	2.46	1.17	
	전체(N=1,595)	2.39	1.09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36	1.08	
	독 재 적	2.31	1.13	
	허 용 적	2.46	1.08	
	방 입 적	2.27	1.10	
	전체(N=1,583)	2.39	1.10	

*p<.05 , **P<.01

바.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상담

전체 평균은 2.46으로 전반적으로 인지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의 검증 결과 성별,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준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집단 간 차이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성별에 있어 남자(2.53)가 여자(2.36)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학교별로는 중학교(2.52), 실업고(2.37), 인문고(2.36)의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2.60), 광역시(2.47), 시군(2.32)의 순으로,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2.68), 보통수준(2.43), 못 사는 편(2.28)

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허용적(2.57), 민주적(2.41), 방임적(2.36), 독재적(2.31)의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III-96).

<표 III-96>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상담 인지도 평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2.53	1.18	t=3.04**
	여 자	2.36	1.07	
학 교 별	중 학 교	2.52	1.18	F=3.96*
	실 업 고	2.37	1.04	
	인 문 고	2.36	1.10	
	전체(N=1,595)	2.46	1.14	
지 역 별	특 별 시	2.60	1.24	F=6.01**
	광 역 시	2.47	1.13	
	시 군	2.32	1.07	
	전체(N=1,592)	2.46	1.14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2.28	1.09	F=8.79**
	보통수준	2.43	1.11	
	잘사는편	2.68	1.26	
	전체(N=1,594)	2.46	1.14	
성 적 별	하 위 권	2.41	1.11	
	중 위 권	2.51	1.13	
	상 위 권	2.46	1.18	
	전체(N=1,595)	2.46	1.14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2.41	1.12	F=3.40*
	독 재 적	2.31	1.17	
	허 용 적	2.57	1.13	
	방 임 적	2.36	1.22	
	전체(N=1,583)	2.45	1.14	

*p<.05, **P<.01

⑨ 정보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 평가

가.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전체 평균은 3.45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 중, 학교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인문고(3.56), 중학교(3.45), 실업고(3.20)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3.57), 중위권(3.55), 하위권(3.24)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하위권의 필요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민주적(3.51), 허용적(3.50), 방임적(3.22), 독재적(3.19)의 순으로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97).

<표 III-97>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42	1.22	
	여 자	3.49	.97	
학 교 별	중 학 교	3.45	1.10	F=6.95**
	실 업 고	3.20	1.17	
	인 문 고	3.56	1.14	
	전체(N=1,595)	3.45	1.12	
지 역 별	특 별 시	3.44	1.13	
	광 역 시	3.45	1.11	
	시 군	3.47	1.14	
	전체(N=1,592)	3.45	1.1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38	1.15	
	보통수준	3.45	1.07	
	잘사는편	3.50	1.25	
	전체(N=1,594)	3.45	1.12	
성 적 별	하 위 권	3.24	1.10	F=15.02**
	중 위 권	3.55	1.05	
	상 위 권	3.57	1.17	
	전체(N=1,595)	3.45	1.12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51	1.09	F=5.64**
	독 재 적	3.19	1.23	
	허 용 적	3.50	1.09	
	방 임 적	3.22	1.28	
	전체(N=1,583)	3.45	1.12	

*p<.05, **P<.01

나. 사이버 비행 예방 활동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63으로 전반적으로 사이버 비행 예방 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 중, 학교별, 성적별, 부

모의 양육태도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교(3.68), 인문고(3.63), 실업고(3.40)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76), 상위권(3.69), 하위권(3.45)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민주적(3.70), 허용적(3.66), 방임적(3.53), 독재적(3.35)의 순으로 사이버 비행 예방활동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98).

<표 III-98> 사이버 비행 예방활동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59	1.19
	여 자	3.68	.98
학 교 별	중 학 교	3.68	1.12
	실 업 고	3.40	1.14
	인 문 고	3.63	1.06
	전체(N=1,595)	3.63	1.11
지 역 별	특 별 시	3.63	1.13
	광 역 시	3.63	1.09
	시 군	3.63	1.14
	전체(N=1,592)	3.63	1.11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57	1.15
	보통수준	3.62	1.06
	잘사는편	3.69	1.23
	전체(N=1,594)	3.63	1.11
성 적 별	하 위 권	3.45	1.16
	중 위 권	3.76	1.03
	상 위 권	3.69	1.10
	전체(N=1,595)	3.63	1.11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70	1.09
	독 재 적	3.35	1.20
	허 용 적	3.66	1.08
	방 임 적	3.53	1.11
전체(N=1,583)	3.63	1.11	

*p<.05, **P<.01

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95로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성별, 학교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차이에서는 여자(4.04)가 남자(3.89)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3.99), 중학교(3.98), 실업고(3.77)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중위권(4.07), 상위권(3.96), 하위권(3.83)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방임적(4.01), 허용적(4.01), 민주적(3.98), 독재적(3.62)의 순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독재적 양육태도하의 학생들이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9).

<표 III-99>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89	1.17	t=-2.67*
	여 자	4.04	.96	
학 교 별	중 학 교	3.98	1.09	F=3.34*
	실 업 고	3.77	1.17	
	인 문 고	3.99	1.04	
	전체(N=1,595)	3.95	1.09	
지 역 별	특 별 시	3.90	1.14	
	광 역 시	3.98	1.05	
	시 군	3.92	1.13	
	전체(N=1,592)	3.95	1.09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97	1.11	
	보통수준	3.94	1.05	
	잘사는편	3.96	1.23	
	전체(N=1,594)	3.95	1.09	
성 적 별	하 위 권	3.83	1.14	F=6.67**
	중 위 권	4.07	1.00	
	상 위 권	3.96	1.11	
	전체(N=1,595)	3.96	1.09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98	1.07	F=6.30**
	독 재 적	3.62	1.22	
	허 용 적	4.01	1.05	
	방 입 적	4.01	1.16	
	전체(N=1,583)	3.95	1.09	

*p<.05, **P<.01

라. 청소년용 정보 서비스 강화 및 통합 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56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용 정보서비스 강화 및 통합 서비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학교별, 성적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인문고(3.59), 중학교(3.59), 실업고(3.38)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68), 상위권(3.59), 하위권(3.43)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100).

<표 III-100> 청소년용 정보 서비스 강화 및 통합 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56	1.15	
	여 자	3.57	.97	
학 교 별	중 학 교	3.59	1.08	F=3.44*
	실 업 고	3.38	1.11	
	인 문 고	3.59	1.05	
	전체(N=1,595)	3.56	1.08	
지 역 별	특 별 시	3.56	1.08	
	광 역 시	3.57	1.07	
	시 군	3.56	1.08	
	전체(N=1,592)	3.56	1.08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51	1.12	
	보통수준	3.54	1.03	
	잘사는편	3.69	1.20	
	전체(N=1,594)	3.57	1.08	
성 적 별	하 위 권	3.43	1.09	F=7.49**
	중 위 권	3.68	1.02	
	상 위 권	3.59	1.10	
	전체(N=1,595)	3.57	1.08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60	1.06	
	독 재 적	3.45	1.17	
	허 용 적	3.58	1.05	
	방 입 적	3.55	1.18	
	전체(N=1,583)	3.57	1.08	

*p<.05, **P<.01

마. 건전 정보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58로 전반적으로 건정 정보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학교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교(3.63), 인문고(3.54), 실업고(3.39)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71), 상위권(3.61), 하위권(3.41)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방입적(3.64), 민주적(3.63), 허용적(3.59), 독재적(3.38)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독재적 양육태도

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01).

<표 III-101> 건전 정보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별	남자	3.56	1.13
	여자	3.60	.95
학교별	중학교	3.63	1.06
	실업고	3.39	1.01
	인문고	3.54	1.06
	전체(N=1,595)	3.57	1.06
지역별	특별시	3.51	1.10
	광역시	3.62	1.05
	시군	3.54	1.04
	전체(N=1,592)	3.57	1.06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59	1.05
	보통수준	3.55	1.02
	잘사는편	3.66	1.19
	전체(N=1,594)	3.58	1.06
성적별	하위권	3.41	1.07
	중위권	3.71	.98
	상위권	3.61	1.10
	전체(N=1,595)	3.58	1.06
부모의 양육태도별	민주적	3.63	1.05
	독재적	3.38	1.14
	허용적	3.59	1.03
	방임적	3.64	1.11
	전체(N=1,583)	3.59	1.06

*p<.05, **P<.01

바. 농어촌, 장애 청소년 등 정보소의 청소년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76으로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학교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인문고(3.87), 중학교(3.73), 실업고(3.65)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86), 상위권(3.83), 하위권(3.59)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민주적(3.81),

허용적(3.78), 방임적(3.73), 독재적(3.55)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독재적 양육태도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02).

<표 III-102> 정보소외 청소년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별	남자	3.74	1.16
	여자	3.78	.97
학교별	중학교	3.73	1.10
	실업고	3.65	1.09
	인문고	3.87	1.05
	전체(N=1,595)	3.76	1.09
지역별	특별시	3.71	1.13
	광역시	3.82	1.06
	시군	3.67	1.10
	전체(N=1,592)	3.76	1.09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81	1.11
	보통수준	3.72	1.05
	잘사는편	3.86	1.19
	전체(N=1,594)	3.76	1.09
성적별	하위권	3.59	1.13
	중위권	3.86	1.00
	상위권	3.83	1.10
	전체(N=1,595)	3.76	1.08
부모의 양육태도별	민주적	3.81	1.05
	독재적	3.55	1.21
	허용적	3.78	1.07
	방임적	3.73	1.20
	전체(N=1,583)	3.77	1.09

*p<.05, **P<.01

사.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정보능력 개발 지원 확대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57로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66), 상위권(3.63), 하위권(3.44)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

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민주적(3.63), 방임적(3.60), 허용적(3.58), 독재적(3.35)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독재적 양육태도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03).

<표 III-103>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정보능력 개발 지원 확대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59	1.15	
	여 자	3.55	.94	
학 교 별	중 학 교	3.55	1.09	
	실 업 고	3.49	1.03	
	인 문 고	3.65	1.04	
	전체(N=1,595)	3.57	1.07	
지 역 별	특 별 시	3.63	1.09	
	광 역 시	3.58	1.04	
	시 군	3.51	1.10	
	전체(N=1,592)	3.57	1.0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59	1.12	
	보통수준	3.54	1.02	
	잘사는편	3.66	1.18	
	전체(N=1,594)	3.57	1.07	
성 적 별	하 위 권	3.44	1.09	F=6.82**
	중 위 권	3.66	1.01	
	상 위 권	3.63	1.09	
	전체(N=1,595)	3.58	1.0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63	1.05	F=3.32*
	독 재 적	3.35	1.14	
	허 용 적	3.58	1.07	
	방 임 적	3.60	1.12	
	전체(N=1,583)	3.58	1.07	

*p<.05, **P<.01

아.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47로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성적별만이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56), 상위권(3.54), 하

위권(3.32)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104).

<표 III-104>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52	1.15	
	여 자	3.41	.94	
학 교 별	중 학 교	3.47	1.09	
	실 업 고	3.38	1.09	
	인 문 고	3.52	1.03	
	전체(N=1,595)	3.47	1.07	
지 역 별	특 별 시	3.53	1.07	
	광 역 시	3.47	1.06	
	시 군	3.44	1.10	
	전체(N=1,592)	3.47	1.0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49	1.06	
	보통수준	3.44	1.04	
	잘사는편	3.58	1.19	
	전체(N=1,594)	3.47	1.07	
성 적 별	하 위 권	3.32	1.07	F=8.30**
	중 위 권	3.56	1.03	
	상 위 권	3.54	1.09	
	전체(N=1,595)	3.48	1.0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50	1.06	
	독 재 적	3.40	1.15	
	허 용 적	3.50	1.05	
	방 입 적	3.33	1.15	
	전체(N=1,583)	3.48	1.07	

*p<.05, **P<.01

자. 학교 내 정보화 인프라 구축 확대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49로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경제수준별, 성적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사는 편(3.62), 잘 사는 편(3.61), 보통수준(3.43)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수준의 응답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상위권

(3.63), 중위권(3.51), 하위권(3.33)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III-105).

<표 III-105> 학교 내 정보화 인프라 구축 확대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52	1.17	
	여 자	3.45	.99	
학 교 별	중 학 교	3.50	1.10	
	실 업 고	3.40	1.14	
	인 문 고	3.51	1.09	
	전체(N=1,595)	3.49	1.10	
지 역 별	특 별 시	3.51	1.15	
	광 역 시	3.51	1.08	
	시 군	3.45	1.10	
	전체(N=1,592)	3.49	1.10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62	1.04	F=4.83*
	보통수준	3.43	1.07	
	잘사는편	3.61	1.22	
	전체(N=1,594)	3.49	1.10	
성 적 별	하 위 권	3.33	1.09	F=10.47**
	중 위 권	3.51	1.09	
	상 위 권	3.63	1.10	
	전체(N=1,595)	3.49	1.10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50	1.06	
	독 재 적	3.44	1.27	
	허 용 적	3.52	1.08	
	방 임 적	3.42	1.21	
	전체(N=1,583)	3.50	1.10	

*p<.05, **P<.01

차. 정보통신 기술교육 강화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65로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75), 상위권(3.72), 하위권(3.49)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민주적(3.69), 허용적(3.68), 독재적(3.53), 방임적

(3.40)의 순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106).

<표 III-106> 정보통신 기술교육 강화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66	1.14
	여 자	3.63	.97
학 교 별	중 학 교	3.68	1.09
	실 업 고	3.51	1.06
	인 문 고	3.66	1.05
	전체(N=1,595)	3.65	1.07
지 역 별	특 별 시	3.66	1.08
	광 역 시	3.67	1.07
	시 군	3.61	1.08
	전체(N=1,592)	3.65	1.0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65	1.10
	보통수준	3.61	1.03
	잘사는편	3.78	1.18
	전체(N=1,594)	3.65	1.07
성 적 별	하 위 권	3.49	1.12
	중 위 권	3.75	1.02
	상 위 권	3.72	1.06
	전체(N=1,595)	3.66	1.0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69	1.04
	독 재 적	3.53	1.20
	허 용 적	3.68	1.04
	방 임 적	3.40	1.27
	전체(N=1,583)	3.66	1.08

*p<.05, **P<.01

카. 청소년 건전 사이트 지속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75로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성별, 학교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3.66)보다 여자(3.87)가 더 필요성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3.83), 인문고(3.66), 실업고(3.58)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89), 상위권(3.74), 하위권(3.60)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민주적(3.85), 허용적(3.76), 방임적(3.52), 독재적(3.46)의 순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107).

<표 III-107> 청소년 건전 사이트 지속 개발 및 보급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별	남자	3.66	t=-3.77**
	여자	3.87	
학교별	중학교	3.83	F=6.34**
	실업고	3.58	
	인문고	3.66	
	전체(N=1,595)	3.75	
지역별	특별시	3.68	F=9.27**
	광역시	3.79	
	시군	3.73	
	전체(N=1,592)	3.75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75	F=7.53**
	보통수준	3.73	
	잘사는편	3.80	
	전체(N=1,594)	3.75	
성적별	하위권	3.60	F=9.27**
	중위권	3.89	
	상위권	3.74	
	전체(N=1,595)	3.75	
부모의 양육태도별	민주적	3.85	F=7.53**
	독재적	3.46	
	허용적	3.76	
	방임적	3.52	
	전체(N=1,583)	3.75	

*p<.05, **P<.01

다. 유해정보매체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체제 운영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77로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성별, 학교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3.66)보다 여자(3.92)가 더 필요성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

별로는 중학교(3.82), 인문고(3.72), 실업고(3.61)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88), 상위권(3.83), 하위권(3.58)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민주적(3.85), 허용적(3.77), 방임적(3.58), 독재적(3.51)의 순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108).

<표 III-108> 유해정보매체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체제 운영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66	1.23	t=-4.60**
	여 자	3.92	1.04	
학 교 별	중 학 교	3.82	1.16	F=3.09*
	실 업 고	3.61	1.21	
	인 문 고	3.72	1.15	
	전체(N=1,595)	3.77	1.16	
지 역 별	특 별 시	3.67	1.21	
	광 역 시	3.82	1.14	
	시 군	3.73	1.19	
	전체(N=1,592)	3.76	1.17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68	1.12	
	보통수준	3.74	1.16	
	잘사는편	3.89	1.22	
	전체(N=1,594)	3.76	1.17	
성 적 별	하 위 권	3.58	1.21	F=10.25**
	중 위 권	3.88	1.10	
	상 위 권	3.83	1.17	
	전체(N=1,595)	3.76	1.17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85	1.14	F=5.13**
	독 재 적	3.51	1.29	
	허 용 적	3.77	1.12	
	방 임 적	3.58	1.29	
	전체(N=1,583)	3.77	1.16	

*p<.05, **P<.01

파. 개인정보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4.01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성별, 학교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

별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3.94)보다 여자(4.10)가 더 필요성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별로는 인문고(4.14), 중학교(3.99), 실업고(3.80)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4.12), 중위권(4.12), 하위권(3.78)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허용적(4.05), 민주적(4.03), 방임적(4.01), 독재적(3.79)의 순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109).

<표 III-109> 개인정보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94	1.18	t=-2.80*
	여 자	4.10	1.02	
학 교 별	중 학 교	3.99	1.14	F=6.83**
	실 업 고	3.80	1.21	
	인 문 고	4.14	1.00	
	전체(N=1,595)	4.01	1.11	
지 역 별	특 별 시	3.95	1.16	
	광 역 시	4.00	1.11	
	시 군	4.05	1.10	
	전체(N=1,592)	4.01	1.1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97	1.13	
	보통수준	3.99	1.09	
	잘사는편	4.08	1.19	
	전체(N=1,594)	4.01	1.12	
성 적 별	하 위 권	3.78	1.18	F=16.69**
	중 위 권	4.12	1.07	
	상 위 권	4.12	1.06	
	전체(N=1,595)	4.01	1.11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4.03	1.09	F=2.65*
	독 재 적	3.79	1.32	
	허 용 적	4.05	1.07	
	방 임 적	4.01	1.13	
	전체(N=1,583)	4.01	1.11	

*p<.05, **P<.01

하. 인터넷 미디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

전체 평균은 3.62로 전반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중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중위권(3.68), 상위권(3.66), 하위권(3.51)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별로는 허용적(3.69), 민주적(3.66), 방임적(3.42), 독재적(3.35)의 순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110).

<표 III-110> 인터넷 미디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 계 치
성 별	남 자	3.58	1.19	
	여 자	3.67	1.01	
학 교 별	중 학 교	3.64	1.14	
	실 업 고	3.58	1.09	
	인 문 고	3.60	1.08	
	전체(N=1,595)	3.62	1.12	
지 역 별	특 별 시	3.50	1.16	
	광 역 시	3.65	1.10	
	시 군	3.64	1.10	
	전체(N=1,592)	3.61	1.12	
경제수준별	못사는편	3.57	1.13	
	보통수준	3.60	1.07	
	잘사는편	3.70	1.25	
	전체(N=1,594)	3.61	1.12	
성 적 별	하 위 권	3.51	1.15	F=3.77*
	중 위 권	3.68	1.05	
	상 위 권	3.66	1.13	
	전체(N=1,595)	3.62	1.11	
부 모 의 양육태도별	민 주 적	3.66	1.07	F=5.47**
	독 재 적	3.35	1.26	
	허 용 적	3.69	1.10	
	방 임 적	3.42	1.21	
	전체(N=1,583)	3.62	1.11	

*p<.05, **P<.01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첫째,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설문 대상자 중 98.3%가 가정에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6.0%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이 일상생활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컴퓨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컴퓨터 이용에 있어 인터넷 이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시간은 인문계 고등학생과 중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광역시와 시군 거주자보다 특별시 거주자가, 가정환경이 못하는 편일수록, 성적이 하위권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부모의 양육태도별 이용시간 비교에 있어서 부모가 방임적이거나 허용적일수록 민주적인 양육태도 하에서 자란 청소년보다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모가 독재적일수록 청소년들의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임적일수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용도의 1순위는 게임과 오락, 2순위는 인터넷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게임과 오락의 비중이 인터넷 이용보다 매우 높았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시 음란, 폭력물이나 사이버스토킹, 해킹 등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모두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피해경험 중 음란성 광고메일 수신경험과 스팸메일 수신 경험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음란성 광고메일 수신경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과 정보이용의 편리성 수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정보화 능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학교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편의 학생들, 성적별

로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높게 평가한 반면, 지역별, 양육태도별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좀 더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3.80으로 역기능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수준 별로는 잘사는 편의 학생들이 순기능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순기능/ 역기능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 및 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남학생, 가정의 경제적 조건이 상위층일수록 정보화의 순기능에 긍정적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혜택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이나 좋은 점도 많이 인식하고 누린다고 추측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및 이로부터 오는 이익에 대한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이것이 인식의 차이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정보화의 순기능 중 세대 간의 상호이해 증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는 평균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세대 간 상호이해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경제수준별로는 못사는 학생들, 성적별로는 상위권 학생들이 낮게 평가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경제수준별로는 못 사는 학생들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세대간 상호이해 증가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세대간 상호 교류가 기존의 사회문화적 장애의 작용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집단별 또는 연령계층별로 단편화와 파편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청소년들내부에서도 특정정보통신기기의 소유나 활용 등에 따라서 집단별 파편화와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파편화와 차별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보화의 역기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신종범죄의 증가는 평균 4.00으로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신종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증가, 불건전 사이트 증가, 인터넷 중독 심화 역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불건전 사이트 증가와 인터넷 중독 심화의 경우 방임적 양육태도 하의 청소년들보다 독재적 양육태도 하의 청소년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모에게 제재를 많이 받을수록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중독에 빠질 염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및 학교 교과과정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과 더불어 각 학년 및 교과 수준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불건전정보 예방, 중독예방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 등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중 저소득층 자녀대상 컴퓨터 보급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 소년원 등 보호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많이 하거나 당하고 인터넷에 많이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기존의 교육이 큰 효과가 없거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게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사이버비행 예방활동, 정보소외 청소년 정보화 교육, 정보능력 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독재적인 양육태도 하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민주적인 양육태도 하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설문 중심의 연구결과이다 보니 정보화정책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화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에 후속연구로서 직접적인 정보화정책의 수혜자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이들로부터의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념과 범위,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영역,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과 효율화방안 등의 내용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5점 척도로 동의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005년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1차,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는 청소년 정보화 정책과 관련된 현장전문가, 행정전문가, 대학교수 등 총 17명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였으며 2차 조사의 결과위주로 평균, 표준편차, 순위,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1)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념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념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의견 조사 결과 청소년

이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정책,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 청소년이 정보화 기본 지식과 기술에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청소년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정보의 선택과 이용에 관련된 부분, 정보의 공유와 자유로운 이용 등도 제시되었다.

특히, 최근 부각되는 온라인상의 다양한 청소년문제로 인한 사이버우리를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청소년을 정보의 생산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정보생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용을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정보이용 능력이 높고,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정보이용 권리의 보장이나, 청소년의 정보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1>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념

구 분	순위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이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정책	1	4.67	.617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	2	4.53	.640
청소년이 정보화 기본지식과 기술에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3	4.33	.617
청소년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4	3.87	.640
청소년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5	3.53	1.060

2)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 청소년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정보활용 및 정보 생산을

위한 교육, 청소년(기관)간의 네트워크 확대,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의견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책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프라 구축, 다양한 교육의 제공, 콘텐츠의 개발과 유통 등이 포함된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내용들이 한 범주를 이루고 있고, 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보호정책,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행동이나 문화 등의 변화 등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 대책수립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대상을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성인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외의 기타의견으로 외국의 청소년들과의 정보화관련 인적·물적 교류, 청소년복지를 위해 청소년기관과 정부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개발, 빠르게 변화되는 정보환경과 청소년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 등도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III-112>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

구 분	순위	평균	표준편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1	4.33	.724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	1	4.33	.617
청소년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유통	1	4.33	.724
정보활용 및 정보생산을 위한 교육	1	4.33	.617
청소년(기관) 간의 네트워크 확대	5	3.80	.775
정보인프라 구축	5	3.80	.941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변화	5	3.80	1.146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 행동결과에 대한 대책	8	3.73	.594
정보를 이용한 청소년의 참여	8	3.73	.799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및 관련기관으로 대상 확대	10	3.53	1.060

3)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로 정보활용 윤리교육, 소외청소년의 정보화 환경 접근성 제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형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생산 능력

강화,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발 및 사회적 환경마련,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효과적인 처치, 문화 및 여가 콘텐츠 확충,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를 몇 가지 공통 요인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정보활용과 관련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정보접근성 및 정보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콘텐츠를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정보생산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청소년의 참여로 사이버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보면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의 향상과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이버 문화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상위목표로 하여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하위목표들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13>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

구 분	순위	평균	표준편차
정보활용윤리교육	1	4.50	.650
소외청소년의 정보화 환경 접근성 제고	2	4.36	.497
건강한 인터넷 문화형성	3	4.29	.611
정보격차 해소	4	4.21	.699
정보생산능력 강화	4	4.21	.699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발 및 사회적 환경 마련	6	4.15	.555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7	4.14	.864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효과적인 처치	8	4.07	.730
문화 및 여가 콘텐츠 확충	9	4.00	.877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10	3.93	.730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및 역량강화	10	3.93	.730
사이버문화 활성화	12	3.86	.535
정보 보호능력 향상	13	3.79	.579
친 청소년적인 정보화 마인드 구축	14	3.71	.726
미래정보사회 일원으로 육성	15	3.64	.842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교육의 보편화	16	3.57	.646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과 성찰	16	3.57	.852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 적응방식의 파악	18	3.29	.825
청소년 정보화 엘리트 교육	19	3.23	.599
정보와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20	3.07	.730

4)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기존의 청소년 관련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중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의 부족, 청소년보호에 국한된 소극적 정책,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미약, 장애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접근성 향상 정책 부재, 정부 각 부처 간의 중복된 정책 추진 등 순으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전체 의견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책에는 청소년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못하였고,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정보화의 역기능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 기반확충이나 청소년 개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소극적인 정책 이었다고 제시되었으며, 또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 문제의 대처에 미흡했고 정부 각 부처 간의 중복된 정책추진으로 인한 재원의 중복 투자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1차 조사에 제시되지 않았던 기타 의견으로 정보에 대한 이용윤리나 정보 자료의 평가에 관련된 정책이 부족하다고 제시되었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유해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유해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보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보 자료의 평가에 대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114>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구 분	순위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의 부족	1	4.13	1.060
건전한 정보활동의 지원보다는 청소년보호에 국한된 소극적 정책이었음	2	4.00	.756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미약	3	3.73	.884
장애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접근성 향상 정책 부재	3	3.73	.884
정부 각 부처간의 중복된 정책추진	3	3.73	1.163
정보접근성 확대에만 치중한 정책	6	3.67	.816
정보격차 문제 대처 미흡	7	3.53	.990
정보화관련 기술개발과 정보사회 기반확충에 주로 초점이 맞춰 있었음	8	3.47	1.302
전반적인 정보환경에 대한 정책이기 보다는 개인변화 중심의 정책이었음	9	3.33	.976
청소년단체들의 정보화나 소외계층 인프라에 지원에 치중	10	2.79	1.122

5)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효과적 시행방안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제시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효과적 시행방안으로서는 청소년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유기적 추진, 질 좋은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확산 필요, 청소년에 의한 콘텐츠 창작 및 참여를 위한 지원, 소외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화 지원 대책 마련, 장애청소년대상 정보접근 환경의 개선, 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 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 의무화,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17개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유사한 네 가지 요인으로 묶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결정 및 정책집행과정상의 효과적 시행방안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정부부처간에 유기적 협력, 특히 청소년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중장기 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청소년의 능력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 정책집행 시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각 정책집행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청소년에 의한 콘텐츠 창작 및 지원하고 질 좋은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기존에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들은 청소년의 정보수준이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개발되어 청소년들에 외면당함으로써 지속적인 비용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소년들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져 왔다.

셋째, 장애청소년, 정보소외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보접근환경을 개선하고 정보의 생산 처리능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화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정보격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정보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는 장애청소년 등 정보소외청소년에 대한 정보접근 환경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 시민단체 민간기업의 역할분담과 사회전체 시스템 속에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이 종합적으로 기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표 III-115>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효과적 시행방안

구 분	순위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유기적 추진	1	4.40	.632
질 좋은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확산 필요	1	4.40	.632
청소년에 의한 콘텐츠 창작 및 참여를 위한 지원	1	4.40	.632
소외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화 지원대책 마련	1	4.40	.632
장애청소년대상 정보접근 환경의 개선	5	4.33	.488
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	5	4.27	.594
학교에서의 정보윤리화교육 의무화	5	4.27	.704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5	4.27	.799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9	4.20	.676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전 전략에 반영	10	4.13	.743
청소년 욕구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확대	10	4.13	.743
사회전체시스템(가정, 학교, 미디어, 종교)에서 청소년정보화 정책이 종합적으로 기획·실천되고 평가되어야 함	10	4.13	.743
중요한 통신정책의 결정 및 집행시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13	3.87	.640
정보의 생산 및 처리능력을 위한 정책의 강화	14	3.73	.458
정부, 시민단체,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	15	3.71	.469
올바른 정보이용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이벤트 강화	16	3.60	.632
정보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보장	17	3.53	.743

IV.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선방안

1. 청소년 정보이용 활성화 방안
2.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선방안
3. 청소년 정보복지 개선방안

IV.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선방안

1. 청소년 정보이용 활성화 개선방안

정보통신의 기술은 날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며, 우리의 생활환경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양적 정보화는 크게 증대하였으나 질적 정보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청소년들의 용이한 접근과 이용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이를 양적으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정보활용과 그에 따른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다.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 소유의 문제를 떠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가공하는데 따라 결과물이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이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생산적 정보이용이라고 한다.

정보활용의 범위는 양적 활용과 질적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적 활용에는 정보통신 기기 이용능력과 컴퓨터 및 인터넷 조작과 활용이 포함된다. 질적 활용에는 정보 윤리 및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선별 능력과 정보가공 및 가치 창출의 차원이 포함된다. 질적 정보화 정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 이용과 생산적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나 물리적 환경적으로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강국을 자처하지만, 생산적인 정보이용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전면화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정보사회를 이끌어가길 청소년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은 의미가 크다.

정보이용에 대한 접근은 정보화 정책이나 정보격차해소정책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보이용을 위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저절로 정보이용이 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정보이용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정보이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적인 조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용자 개인의 욕구와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보이용에 관한 모델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며(유용성), 사용하기 쉽다고 느낄 때(용이성) 정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실제로 이용하는 행위로 연결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느끼는 유용성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보 그 자체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과 더불어 해당 정보가 속해있는 주변 환경의 조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내 청소년의 97%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일주일에 평균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온라인게임이나 오락,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러한 온라인게임이나 오락에 몰두하는 일은 건강을 해치거나 학교생활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적인 활용범주로 구분한다. 반면 생산적 활용으로 분류되는 학습과 교육콘텐츠의 이용은 저조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교육과 학습콘텐츠의 질과 내용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즉 개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보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의 이용을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학습이나 교육활동과 같은 생산적인 정보이용이 낮은 것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경험하면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보의 생산적인 활용을 저해한다고 할 때, 현재의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습과 교육콘텐츠에 대한 낮은 활용도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들의 생산적인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드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용이성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화능력과 관련이 있다. 정보이용에 있어서 용이함을 느끼게 되어 지속적인 정보이용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정보이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이 강조되었다.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국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보화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보화 능력을 살펴보면 문서작성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음악/동영상등 본인의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부분의 유능함을 보고했을 뿐, 유틸리티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법, 인터넷뱅킹 및 전자민원에서의 사용능력은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보화능력을 초보와 중간정도로 평가할 뿐, 전문가 수준이라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 기술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화교육의 수준도 심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초기 교육들은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정보소외계층과는 달리 인터넷과 생활하면서 자라온 세대이며, 기계 친화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해 갈 세대이므로, 전문성을 지닌 인재의 양성도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능력이 뛰어나 전문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을 위한 상급의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정보활용수준과 이용능력에 따라 정보이용자를 구분한 다음 각 단계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소극적 활용

집단의 경우 정보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개인의 복지는 물론이고 경제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전문적 활용 집단의 경우 향후 이 분야의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 기술의 습득 기회의 제공, 정보기술 엘리트 교육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비적 활용 집단에는 생산적인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활용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정보윤리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 집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일탈과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타 집단보다 높다는 선행 연구가 있으므로 이 집단의 생산적, 윤리적 정보활용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 활용 집단은 정보활용 능력은 높은 반면에 정보 이용능력은 낮으므로 이용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 정보화 정책은 청소년들의 욕구, 필요, 입장,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실시되어야 예산 낭비가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점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선방안

최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위변조가 용이하고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를 한 번 떠들썩하게 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21종의 민원서류를 개인 컴퓨터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로써 현재 이 서비스는 전면 중단되었다. 위변조는 500KB 정도의 작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다. 이 조그만 프로그램이 올해에만 161만 7,000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을 쉽게 뚫은 것이다.

교육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우려들이 정보화에 역

행하는 사고라며 비판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단순히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이 100% 완벽한 보안은 없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며 해킹도 그에 따라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차 500KB의 작은 프로그램이 주민등록등본을 그렇게 쉽게 위·변조하리라고는 시스템 구축당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처리하여야 하고, 각 시스템은 분리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기타 개인정보 처리원칙이 준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각 정보들을 통합 처리·구축한 개인정보DB를 통해 실존인격과 분리된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상이 타인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인간존엄과 자유의 상실 위험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통해 수집되고 인격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중인 청소년의 민감한 정보들은 여타의 정보와는 다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학생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자기결정권, 그와 관련된 부모의 자녀교육권, 그리고 학생정보가 가지는 특성에 비추어 아홉 가지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이 법·제도·정책에서, 그리고 실제의 교육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실현될 때에 청소년이 가지는 권리가 보호되고 확보될 것이다.

한편, 개인 미니홈피를 통해 공개된 정보로 인해 범행의 표적이 된 사례가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공개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치고는 막대하다. 문제는 이러한 미니홈피를 통해 학력, 거주지, 휴대폰번호 등 신상정보를 가장 많이 공개하는 비율은 다른 아님 10대들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개인정보의 공개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성인과 같은 이해와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많은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인터넷쇼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듯이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구해

야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의 접근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도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 자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거의되어 있지 못함으로 청소년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3. 청소년 정보복지정책 개선방안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의 문제는 복지정보와 정보복지이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보복지의 문제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복지란 '사회구성원들이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자기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그 욕구충족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복지란 정보의 접근과 이용의 문제를 '권리'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에 대한 생산적인 참여, 정보자원의 재분배, 정보사회에서의 풍요로움의 향유, 참여를 통한 자기창조 능력을 배양 등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복지는 국가 정보기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의 부정적 양상과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자 정보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선의 목표를 정립하는 개념이다. 정보복지는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한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의 정보리터러시를 증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과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갖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인터넷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으로써 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동시에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 비복지와 인터넷 중독 등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청소년 세대에서의 정보격차는 개별적인 차원의 문화적 소외나 사회적 이탈 행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은 현존하는 정보의 불평등과 더불어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격차의 이중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격차는 경제력 및 정보의 상품화 요인, 지식 및 교육정도, 환경적·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정책을 펴도 인터넷서비스이용 요금이 너무 비싸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외청소년들을 정책에 참여하게 하여 소외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부처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정보화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의 한 분야로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안목과 그 중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세 가지 영역에서 밝힌 주요 결과와 정책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청소년들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유익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각종의 손해와 부작용을 알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정보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보격차나 소외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을 정리하였다. 각 정책 내용별 주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04년 한국인터넷진흥원(2004)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률은 97.1%에 육박하고, 일주일 평균 사용시간도 10시간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이 전체 응답자의 59.4%에 이른다.

2005년의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라운 것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98.3%가 가정에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96.0%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이 이제는 일상생활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산업이 상용화되면서 지난 10년은 국내 인터넷보급과 사용이 주요한 관건이 되었으며 정보의 접근과 입수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현재는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창출은 물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인터넷사용여부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을 실행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와 관련한 활용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많은 정보 중에서 양질의 정보를 분별하여 선택하고, 비록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제는 양적 성장을 떠나 생산적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위변조가 용이하고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21종의 민원서류를 개인 컴퓨터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보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당시 위의 사례와 같은 우려들이 정보화에 역행하는 사고라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단순히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처리하여야 하고, 각 시스템은 분리하여 구축해야 하며, 기타 개인정보 처리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통해

인격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민감한 정보들은 여타의 정보와는 다르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자기결정권, 그와 관련된 부모의 자녀교육권, 그리고 개인정보가 가지는 특성에 비추어 아홉 가지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이 법·제도·정책에서, 그리고 실제의 교육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실현될 때에 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되고 확보될 것이다.

청소년은 현재의 주인공이요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이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정보사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의 문제는 복지정보와 정보복지이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보복지의 문제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복지란 정보의 접근과 이용의 문제를 '권리'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에 대한 생산적인 참여, 정보자원의 재분배, 정보사회에서의 풍요로움의 향유, 참여를 통한 자기창조 능력을 배양 등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복지는 국가 정보기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의 부정적 양상과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비교적 최근 개념이자 정보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선의 목표이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환경으로써 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 비복지와 인터넷 중독 등 새로운 사회적 부작용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정보의 오남용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부작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해 가장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도 고위험 사용자군에서 가장 많으며, 인터넷 이용 장소도 고위험 사용자군은 상대적으로 PC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인터넷 이용 목적은 일반 사용자군이 정보검색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고위험 사용자군은 게임을 하기 위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독서나 운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복지 차원의 소외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정책 제언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관한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구체적인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사용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National Grid for Learning이나 미국의 Students.gov가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생산적인 정보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문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청소년들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실제적인 피해를 줄여줌으로써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대한 교육을 구성하는데 일반교육과 IT영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구조와

고용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정보화교육은 기초적인 기술의 습득과 숙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일반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도 현실 생활에 적합하도록 수준을 다소 높일 필요가 있으며 IT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이용에 관한 기존연구는 사회 모든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을 생활공간으로 살아온 세대이므로 기성세대의 경험과 많이 다르다. 이런 경험의 차이가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특화한 연구결과의 지속적인 축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1998).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1a).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국 단위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1b). 교육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제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육정보화백서.
- 교육정보관리국(1997). 교육정보화 촉진시행계획. 교육월보, 제183권 제3호.
- 김규원·박경(2004). 정보화와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정보와 사회. 한국정보사회학회.
- 김문조(2001). 청소년 정보화의 실태 및 문제점. 지식·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육성방향 모색.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 자료.
- 김미숙(2003).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의 레저 문화 실태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제26권, pp. 29-37.
- 김미윤(2003). 사이버공간 경험의 의미와 청소년문화.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 211-233. 한국청소년학회.
- 김옥순(2000). 청소년 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육성. 2000 학술대회 새천년 청소년 정책방향과 청소년학의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 다케우치 히로시(1984). 정보화 사회의 가능성과 문제점. 현대사회, 가을호. 현대사회연구소.
- 문화관광부(1998).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8-2002).
- 박기홍·한병섭·김기홍·주대영·윤애(2000). 디지털경제와 인터넷혁명. 을유문화사.
- 박남희·조영란·최원희·문남진·안혜경·신재신(2004). 청소년의 사이버세계 몰입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1호, pp. 15-25. 한국간호과학회.
- 박재준(200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정책의 분석과 평가.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 배규한(1995). 미래사회학. 사회비평사.
- 성낙일(2003).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 소영진(1998). 정보사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정보사회와 정보화 정책. 나남.
- 송희준(2002). 새로운 정보화 정책의 비전과 방향. 정보학정책, 제9권 제4호, pp. 5-103.

- 유지열·추혜원(2001),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영국의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정보화로 가는 길, 제49호. 한국정보문화센터.
- 윤영민(1998). 혁신적인 정보화 정책의 청사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전석호(1995). 정보사회론. 나남.
- 정갑영(2002). 청소년 문화정책의 흐름과 전망. 정보사회의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포럼, 5, pp. 13-23.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활성화정책 연구보고서.
- 최성모(1998). 정보화의 개념과 함축적 의미. 정보사회와 정보화 정책. 나남.
- 최정일(2003). 청소년 정보문화의 전망과 과제. 지방교육경영, 제8권, pp. 175-211.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 2004교육정보화백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4). 정보화실태조사.
- 한국전산원(2000a).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 한국전산원(2000b).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전산원(2001).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전산원(2002).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전산원(2003).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전산원(2004a).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전산원(2004b).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주요 정보화 정책.
- 한국정보문화진흥원(1999).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 및 실천방안 연구보고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a). 해외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흐름과 변화. 동향분석 03-02.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b). 2003 정보격차해소 백서.
-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청소년 정보봉사단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정보문화 수용실태 연구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2004). 2004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 황상민(2000). 온라인문화를 바라보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시각차 설문분석자료. 청소년 온라인문화 바로 이해하기 세미나자료집(2000.6). 학부모정보감시단.
- 황진구(2000). 온라인상의 청소년문화 현주소, 청소년 온라인문화 바로 이해하기 세미나자료집(2000.6). 학부모정보감시단.
- 황진구(2004).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월간 정보격차 이슈 리포트, 제1권 제4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Brancomb, Anne(1994). *Who owns information?* New York: Basic Books.
- Castells, Manuel(1989). *The information city—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Basil Blackwell. pp.7—32.
- Compaine, B. M.(1988). Information gaps: myth or reality? In Benjamin M. Compaine(Ed.), *Issues in new information technology*. Ablex Publishing Com. pp.183.
- Hartley, John, et al.,(1985). *Key concepts in communication*. London & New York: Methuen. (박명진 편, 1994). 비판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 기본개념과 용어. 나남.
- Hepworth, Mark & Kevin Robins(1998). Whose information society?: A view from the periphery.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10 No.3, pp, 324.
- O'Brien, Rita Cruise(1986).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A north—south perspective, In George Gerbener and Marsha Siefert(Eds.), *World communication*. New York: Longman.
- Rogers, Everett. M.(1983). *Diffusion of innov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Schiller, Herbert I.(1996). *Information inequality*. New York: Routledge.
- Wilhoit, G. C.(Ed.)(1981).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Vol.2.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Our Information Age: The Government's View. <http://www.number-10.gov.uk>

부 록

1. 청소년 정보화 실태조사 설문지
2. 청소년 정보화 전문가 의견조사지



청소년 정보화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청소년 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용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우리나라 청소년 정보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느낀 바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2005. 7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 (우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빌딩
한국청소년개발원 1014호 (담당자 : 성윤숙 부연구위원)

(☎ 02-2188-8823, FAX 02-2188-8829)

(E-mail: first1004@youthnet.re.kr)

12. 인터넷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우선 순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자료·정보검색
- ② 온라인 게임
- ③ 쇼핑,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서비스
- ④ 온라인 강의수강 등 교육·학습
- ⑤ 오락(영화보기, 음악듣기, TV시청, 인터넷방송 등)
- ⑥ 전자우편(이메일)
- ⑦ 채팅/메신저
- ⑧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
- ⑨ 신문·잡지·뉴스보기
- ⑩ 휴대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사용
- ⑪ 블로그나 홈페이지 관리하기
- ⑫ 기타()

13.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왼쪽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세요.

문항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보통	가끔 있음	매우 많음
1) 음란물을 보낸 경험이 있다	1	2	3	4	5
2) 폭력물을 보낸 경험이 있다	1	2	3	4	5
3) 음란채팅을 유도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4) 음란성 광고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1	2	3	4	5
5)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6) 언어폭력을 해본 경험이 있다	1	2	3	4	5
7)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8) 사이버성폭력을 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9) 사이버스토킹을 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10) 해킹을 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11) 바이러스 유포 경험이 있다	1	2	3	4	5
12)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다	1	2	3	4	5
13) 전자상거래 사기 경험이 있다	1	2	3	4	5
14) “엽기”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다	1	2	3	4	5

16. 다음은 **정보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왼쪽의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1	2	3	4	5
2)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1	2	3	4	5
3)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4)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5)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6)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7)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청소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1	2	3	4	5
8)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실제 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9)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줄고, 개인의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1	2	3	4	5
10)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1	2	3	4	5
11)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성세대와의 만남이 활발해져 세대간 상호이해의 폭이 커질 것이다	1	2	3	4	5
12)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폭력물과 음란물, 불건전 사이트 범람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13)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간 문화격차가 줄 것이다	1	2	3	4	5
14)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중독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15)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1	2	3	4	5
16)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학력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1	2	3	4	5
17)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생활양식의 빠른 변화로 인한 가치관 혼란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18)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청소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1	2	3	4	5
19)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불균등한 정보화로 인해 계층간 격차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20)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불균등한 정보화로 인해 지역간 격차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1	2	3	4	5
21)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1	2	3	4	5
22)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학업성취 능력이 향상되어 학습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1	2	3	4	5

※ 다음은 **청소년 정보화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왼쪽의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17. 다음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문 항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들어만 본 정도	조금 알고 있는편	자세히 알고 있음
1) 저소득층 자녀 대상 컴퓨터 보급사업	1	2	3	4	5
2) 저소득 청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	1	2	3	4	5
3) 소년원 등 보호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	1	2	3	4	5
4)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제공	1	2	3	4	5
5) 불건전정보 방지대책	1	2	3	4	5
6)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상담	1	2	3	4	5

18. 다음은 청소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각각의 지원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는편	보통이다	다소 필요한편	매우 필요함
1)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1	2	3	4	5
2) 사이버비행 예방 활동	1	2	3	4	5
3)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1	2	3	4	5
4) 청소년용 정보서비스 강화 및 통합서비스 운영	1	2	3	4	5
5) 건전 정보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1	2	3	4	5
6) 농어촌, 장애 청소년 등 정보소외 청소년 정보화 교육	1	2	3	4	5
7)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정보능력 개발 지원 확대	1	2	3	4	5
8)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관련기관·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1	2	3	4	5
9) 학교내 정보화 인프라 구축 확대	1	2	3	4	5
10) 정보통신기술교육 강화	1	2	3	4	5
11) 청소년 건전사이트 지속개발 및 보급	1	2	3	4	5
12) 유해정보매체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체제 운영	1	2	3	4	5
13)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개발 및 보급	1	2	3	4	5
14) 인터넷 미디어 교육 강화	1	2	3	4	5

19.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음란물, 폭력물 등 유해정보 노출
- ② 인터넷중독(게임중독, 채팅중독, 음란물 중독, 정보검색 중독 등)
- ③ 신체적 피로
- ④ 학습의 지장
- ⑤ 가족과의 갈등
- ⑥ 기타()

20.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규범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 안에 V표시
 해주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빈칸으로 남겨 두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버지는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5
3) 어머니는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5
4) 내 누이나 형님, 언니나 오빠는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5
5) 내 동생(들)은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가장 가까운 내 친구는 내가 인터넷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다음 6가지 질문들은 귀하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 안에
 V표시 해주세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나는 내 가족생활에 대하여	1	2	3	4	5
2) 나는 내 친구관계에 대하여	1	2	3	4	5
3) 나는 내 학교생활에 대하여	1	2	3	4	5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1	2	3	4	5
5)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하여	1	2	3	4	5
6)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1	2	3	4	5

8. 귀하가 생각하는 귀하 부모님의 양육태도는 무엇입니까?

- ① 민주적 ② 독재적 ③ 허용적 ④ 방임적

9. 평소에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1) 아버지	1	2	3	4	5
2) 어머니	1	2	3	4	5

10. 부모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약간 이해하신다	많이 이해하신다
1) 아버지	1	2	3	4	5
2) 어머니	1	2	3	4	5

11. 부모님의 직업을 보기에서 찾아 **각 항목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세요.

<보기 : 직업>
① 안계심(돌아가심)
② 일반사무직(회사원,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교 교사, 향해사, 공무원, 경찰, 군인 등)
③ 전문직(연구직, 의사, 변호사, 교수, 예술가 등)
④ 자영업(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⑤ 생산/기술직(운전기사, 기능공, 목공, 요리사 등)
⑥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및 외판원 등)
⑦ 단순노무직(토목관계 현장 작업, 청소부, 수위 등)
⑧ 관리직(5급이상 고급공무원, 기업체 부장이상의 지위, 교장)
⑨ 농/임/어업
⑩ 주부(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⑪ 무직
⑫ 기타

	직업
1) 아버지	
2) 어머니	

12. 부모님의 학력을 보기에서 찾아 각 항목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기 : 최종학력>	
①	안계심(돌아가심)
②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③	초등학교 졸업
④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⑥	전문대 중퇴 혹은 졸업
⑦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⑧	대학원 중퇴 혹은 졸업

	학력
1) 아버지	
2) 어머니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I)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금년도 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청소년 정보화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학계, 관계,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의 결과는 오로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설문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일정 관계로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진 올림

문 의: 박영균 연구위원 (02-2188-8824)

성윤숙 부연구위원 (02-2188-8823)

I. 다음은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1】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 정보화 정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

【질문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

II. 다음은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3】 귀하께서는 청소년 정보화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다섯 가지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	
목표	
방향	

Ⅲ. 다음은 [청소년 정보화 정책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4】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① 이 구분에 대하여 평가해 주시고, ②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영역을 기술하여 주시며, ③ 그 이유를 간단히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년 정보화 정책 영역에 대한 연구진 안	
<1안> ① 접근성 정책 ② 이용성 정책 ③ 활용성 정책 ④ 오·남용 방지정책	<2안> ① 정보이용활성화 정책 ② 정보보호 정책 ③ 정보복지 정책

귀하의 의견	
① 청소년 정보화 정책 영역 구분에 대한 평가 의견	
② 귀하가 생각하시는 다른 영역	
③ 다른 영역 구분에 대한 이유	
기타의견	

IV. 다음은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질문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	
①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②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효율화 방안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제2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금년도 연구과제로 '청소년 정보화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학계, 관계,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차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첨부한 조사지에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셔서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2차 조사에서는 더욱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조사의 결과는 오로지 우리나라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일정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2차 질문지의 마감 날짜를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진 올림

문 의: 박영균 연구위원 (02-2188-8824)

성윤숙 부연구위원 (02-2188-8823)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리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의견이 있다면 기타의견란에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1. 정보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이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이 정보화 기본지식과 기술에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2.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정보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관련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유통	①	②	③	④	⑤
(5) 정보활용 및 정보생산을 위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정보를 이용한 청소년의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 행동결과에 대한 대책	①	②	③	④	⑤
(8)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변화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및 관련기관으로 대상 확대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기관) 간의 네트워크 확대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3. 청소년 정보화 정책이 추구해 나아가 할 목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정보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3) 정보활용윤리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사이버문화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5) 정보생산능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소외청소년의 정보화 접근성 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7) 문화 및 여가 콘텐츠 확충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 정보화 엘리트 교육	①	②	③	④	⑤
(9) 미래정보사회 일원으로 육성	①	②	③	④	⑤
(10) 개인정보 보호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1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①	②	③	④	⑤
(12) 친 청소년적인 정보화 마인드 구축	①	②	③	④	⑤
(13)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과 성찰	①	②	③	④	⑤
(14) 정보와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15)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효과적인 처치	①	②	③	④	⑤
(16) 건전한 인터넷 문화형성	①	②	③	④	⑤
(17)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 적응방식의 파악	①	②	③	④	⑤
(18)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및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19)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교육의 보편화	①	②	③	④	⑤
(20)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발 및 사회적 환경 마련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4.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은?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소년단체의 정보화나 소외계층 인프라 지원에 치중됨	①	②	③	④	⑤
(2) 정보화관련 기술개발과 정보사회 기반확충에 주로 초점이 맞춰 있음	①	②	③	④	⑤
(3)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미약	①	②	③	④	⑤
(4) 정보격차 문제 대처 미흡	①	②	③	④	⑤
(5) 건전한 정보활동의 지원보다는 청소년보호에 국한된 소극적 정책이었음	①	②	③	④	⑤
(6) 정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기보다는 개인변화 중심의 정책이었음	①	②	③	④	⑤
(7) 정부 각 부처간의 중복된 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9) 정보접근성 확대에만 치중한 정책	①	②	③	④	⑤
(10) 장애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접근성 향상 정책 부재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5. 청소년 정보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한 방안은?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소년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유기적 추진	①	②	③	④	⑤
(2) 질 높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확산 필요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에 의한 콘텐츠 창작 및 참여를 위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	①	②	③	④	⑤
(5) 정보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보장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①	②	③	④	⑤
(7)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적 전략에 반영	①	②	③	④	⑤
(8)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9) 올바른 정보이용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이벤트 강화	①	②	③	④	⑤
(10) 소외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화 지원대책 마련	①	②	③	④	⑤
(11) 중요한 통신정책의 결정 및 집행시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13) 청소년 욕구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대	①	②	③	④	⑤
(14)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접근 환경의 개선	①	②	③	④	⑤
(15) 정부, 시민단체,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	①	②	③	④	⑤
(16) 정보의 생산 및 처리능력을 위한 정책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17) 사회전체시스템(가정, 학교, 미디어, 종교 등)에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이 종합적으로 기획·실천되고 평가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 기타의견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박영균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성윤숙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권기창 한양사이버대학교 · 교수
이수진 국민대학교 ·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 교수

◆ 자 문 진 ◆

강홍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권기창 한양사이버대학교 · 교수
김동철 청소년위원회 · 정보화담당
김현주 중앙대학교 · 교수
남정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상임전문위원
류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사무총장
문효은 다음세대재단 · 대표
안동근 한양대학교 · 교수
이수진 국민대학교 ·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 교수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흥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향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해연 · 조아미 · 박현선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혜영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05-R12-3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이수진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윤숙 · 이인호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흥주·
 김현철·성운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운숙·백해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흥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흥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 · 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와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 연구수행 자료집

-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인 쇄 2005년 12월 3일

발 행 2005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556-7(93330)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박영균(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권기창(한양사이버대학교 · 교수)
 이수진(국민대학교 · 교수)
 이인호(중앙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박용미(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정보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변화 과정에서 청소년은 정보화 역기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 청소년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대부분이 역기능과 유해정보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청소년 계층이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국가 정보화 정책의 추진 성과와 더불어 청소년 관련 부처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의 정보화 정책 내용의 중복성과 유사성, 그리고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선에 관한 미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는 사례연구,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청소년 정보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설문대상자 중 98.3%가 가정에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96.0%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컴퓨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남학생은 주로 게임을 하기 위해, 그리고 여학생은 인터넷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시간은 인문계 고등학생과 중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광역시와 시군 거주자보다 특별시 거주자가, 가정환경이 못 사는 편일수록, 성적

이 하위권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부모의 양육태도별 이용시간 비교에 있어서 부모가 방임적이거나 허용적일수록 민주적인 양육태도 하에서 자란 청소년보다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모가 독재적일수록 청소년들의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임적일수록 허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시 음란, 폭력물이나 사이버스토킹, 해킹 등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모두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피해경험 중 음란성 광고메일 수신경험과 스팸메일 수신 경험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음란성 광고메일 수신경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신종범죄의 증가는 평균 4.00으로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신종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증가, 불건전 사이트 증가, 인터넷 중독 심화 역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중 저소득층 자녀대상 컴퓨터 보급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 소년원 등 보호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중 특히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 개인정보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사이버비행 예방활동, 정보 소외계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 정보능력 개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 하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로 정보활용 윤리교육, 소외 청소년의 정보화 환경 접근성 제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형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생산 능력 강화,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발 및 사회적 환경 마련,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효과적인 처치, 문화 및 여가 콘텐츠 확충,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를 몇 가지 공통 요인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활용과 관련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접근성 및 정보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정보생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 참여에 의한 사이버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양한 지원을 통한 정보활용능력의 향상과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이버 문화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상위목표로 하여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하위목표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의 개발이 부족하고, 청소년보호에 국한된 소극적 정책 중심이며,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하고, 장애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 없고, 정부 각 부처에서 중복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전체 의견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책에는 청소년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못하였고,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정보화의 역기능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 기반확충이나 청소년 개개인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는 소극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며, 또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 문제의 대처에 미흡했고 정부 각 부처 간의 중복된 정책추진으로 인한 중복 투자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한편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제시된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효과적 시행 방안으로는 청소년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유기적 추진과 더불어 질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에 의한 콘텐츠 창작 및 참여를 위한 지원, 소외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화 지원 대책 마련, 장애청소년대상 정보접근 환경의 개선, 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 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 의무화,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산업이 상용화되면서 지난 10년은 국내 인터넷 보급과 사용이 주요 관건이 되었으며 정보의 접근과 입수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현재는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창출은 물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소년은 현재의 주인공이요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국민 인터넷 사용여부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활용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많은 정보 중에서 양질의 정보를 분별하여 선택하고, 비록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제는 양적 성장을 떠나 생산적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독서나 운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복지 차원의 실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 문제	4
1)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현 실태	4
2)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선점	4
3. 연구방법 및 절차	5
1) 연구방법	5
2) 연구의 절차	8
II. 청소년 정보화 정책 현황	
1. 정보사회와 청소년	11
1) 정보사회의 정의	11
2)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	12
3) 정보화와 청소년	14
2. 주요 국가의 정보화 정책 현황	17
1) 각국의 교육정보화 정책	17
2) 각국의 정보화 역기능 대응 정책	20
3) 각국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23
3. 한국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 현황	30
1)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추진과정	30
2) 청소년 관련부처의 청소년 정보화 정책	32
3) 부문별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집행 현황	36
III. 조사연구 결과 분석	
1. 청소년 정보화 설문조사 결과	51
1) 조사개요	51
2) 조사결과	54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159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62
1)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념	162
2)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	163
3)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	164
4)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166
5)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효과적 시행방안	168
IV.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선방안	
1. 청소년 정보이용 활성화 개선방안	173
2.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선방안	176
3. 청소년 정보복지정책 개선방안	178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183
2. 정책 제언	186
참 고 문 헌	188
부록	
1. 청소년 정보화 실태조사 설문지	193
2. 청소년 정보화 전문가 의견조사지	205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 관련부처의 정보화 정책	34
<표 II-2>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정보화 추진 현황	44
<표 II-3> 연도별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현황	46
<표 III-1> 지역권역별 조사지점	52
<표 III-2>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53
<표 III-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5
<표 III-4> 가정의 컴퓨터 보유와 인터넷 이용 현황	56
<표 III-5> 가정의 인터넷 이용 방법 현황	56
<표 III-6> 가정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57
<표 III-7> 성별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 T-test 결과	57
<표 III-8> 학교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58
<표 III-9> 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59
<표 III-10> 경제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60
<표 III-11> 성적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61
<표 III-12> 양육태도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62
<표 III-13> 컴퓨터/인터넷 사용 장소	63
<표 III-14> 컴퓨터 이용용도	64
<표 III-15> 인터넷 이용용도	65
<표 III-16> 인터넷을 통한 가해 경험	66
<표 III-17> 인터넷을 통한 피해 경험	67
<표 III-18>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68
<표 III-19>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성별 T-test 결과	69
<표 III-20>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학교별 ANOVA 검증 결과	70
<표 III-21>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경제수준별 ANOVA 검증 결과	71
<표 III-22> 정보문화 수준에 대한 성적별 ANOVA 검증 결과	73
<표 III-23> 지역별 정보문화 수준평가 ANOVA 검증 결과	74
<표 III-24> 양육태도별 정보문화 수준평가 ANOVA 검증 결과	74

<표 III-25>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순기능 평가	75
<표 III-26>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역기능 평가	76
<표 III-27>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성별 T-test 결과 ..	76
<표 III-28>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학교별 ANOVA 검증 결과 ..	77
<표 III-29> 지역별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 ANOVA 검증결과 ..	78
<표 III-30>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경제수준별 ANOVA 검증 결과	79
<표 III-31>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성적별 ANOVA 검증 결과	80
<표 III-32> 양육태도별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 ANOVA 검증 결과 ..	81
<표 III-33>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81
<표 III-34> 청소년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 평가	82
<표 III-35> 인터넷 부작용 인지	83
<표 III-36> 인터넷 이용의 사회규범 평가	83
<표 III-37>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가	84
<표 III-38> 청소년의 부모님과 대화와 이해도	84
<표 III-39> 컴퓨터 이용용도 1순위	85
<표 III-40> 인터넷 이용용도 1순위	86
<표 III-41> 인터넷 이용시 느끼는 유해성	87
<표 III-42> 음란물을 보낸 경험	88
<표 III-43> 폭력물을 보낸 경험	89
<표 III-44> 음란채팅을 유도한 경험	90
<표 III-45> 음란성 광고메일 송신 경험	91
<표 III-46>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험 ..	92
<표 III-47> 언어폭력을 해 본 경험	93
<표 III-48>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험	94
<표 III-49> 사이버 폭력을 한 경험	95
<표 III-50> 사이버 스토킹을 한 경험	96
<표 III-51> 해킹을 한 경험	97
<표 III-52> 바이러스 유포 경험	98
<표 III-53>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99
<표 III-54> 전자상거래 사기 경험	100

<표 III-55> 엽기 사이트 접촉 경험	101
<표 III-56>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은 경험	102
<표 III-57> 스팸메일(일반성 광고)을 받은 경험	103
<표 III-58> 음란물 접촉 경험	104
<표 III-59> 폭력물 접촉 경험	105
<표 III-60> 음란채팅 경험	106
<표 III-61> 언어폭력 피해 경험	107
<표 III-62>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	108
<표 III-63> 사이버성폭력 피해 경험	109
<표 III-64> 해킹 피해 경험	110
<표 III-65> 바이러스감염 피해 경험	111
<표 III-66> 사이버스토킹 피해 경험	112
<표 III-67>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경험	113
<표 III-68>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 경험	114
<표 III-69>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발전	115
<표 III-70>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116
<표 III-71>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활발한 개인 간의 문화교류 ..	118
<표 III-72>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활발한 국가 간의 문화교류 ..	119
<표 III-73>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층에 대한 복지혜택 증가 ..	120
<표 III-74>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의 여가시간 증가	121
<표 III-75>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세대간 상호이해 증가	122
<표 III-76>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간 문화격차 감소	123
<표 III-77>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	124
<표 III-78>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	125
<표 III-79>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층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	126
<표 III-80>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제공 확대	127
<표 III-81>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학습효과 증대	128
<표 III-82>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신종범죄의 증가	129
<표 III-83>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증가	130
<표 III-84>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실제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의 증가 ..	131
<표 III-85>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증가	132
<표 III-86>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불건전 사이트의 증가	133

<표 III-87>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심화	134
<표 III-88>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가치관 혼란 증대	135
<표 III-89>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계층 간 정보격차 심화 ..	136
<표 III-90>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갈등 심화 ..	137
<표 III-91> 저소득층 자녀 대상 컴퓨터 보급 사업 인지도 평가 ..	138
<표 III-92>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정책 인지도 평가 ..	139
<표 III-93> 소년원 등 보호소년 무료 정보화 교육정책 인지도 평가 ..	140
<표 III-94> 청소년 종합 서비스 제공 정책 인지도 평가	141
<표 III-95> 불건전 정보방지 대책 인지도 평가	142
<표 III-96>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보급 및 상담 인지도 평가 ..	143
<표 III-97>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필요성	144
<표 III-98> 사이버 비행 예방활동의 필요성	145
<표 III-99>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	147
<표 III-100> 청소년용 정보 서비스 강화 및 통합 서비스 운영의 필요성 ..	148
<표 III-101> 건전 정보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149
<표 III-102> 정보소외 청소년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150
<표 III-103>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정보능력개발 지원확대의 필요성 ..	151
<표 III-104>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152
<표 III-105> 학교 내 정보화 인프라 구축 확대의 필요성	153
<표 III-106> 정보통신 기술교육 강화의 필요성	154
<표 III-107> 청소년 건전 사이트 지속 개발 및 보급	155
<표 III-108> 유해정보매체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체제 운영의 필요성 ..	156
<표 III-109> 개인정보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157
<표 III-110> 인터넷 미디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	158
<표 III-111>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개념	163
<표 III-112>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범위	164
<표 III-113>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목표	166
<표 III-114>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167
<표 III-115> 청소년 정보화 정책의 효과적 시행방안	169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절차도	8
----------------------	---